

歷代注釋 序文을 통한 《黃帝八十一難經》의 研究(Ⅱ)

趙學俊 · 金容辰*

I. 緒 論

《黃帝八十一難經》은 일반적으로 저자는 秦越人이고, 그 의미는 《內經》의 深奧한 뜻을 발명한 것이고, 그 內容과 編次는 크게 脈學 經絡 臟腑 疾病 針灸 輪穴 등의 6篇으로 되어 있으며 그 최초의 注釋家는 呂廣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說은 의심의 餘地가 많아서 歷代로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옹호와 반박을 받아왔다. 따라서 歷代 注釋家들은 혹은 《難經》의 저자에 대해 의심하기도 하고, 혹은 《內經》과 글이 서로 다르므로 《內經》과의 관계에 관해 말하기도 하고, 혹은 八十一難을 13篇으로 또는 6篇으로 分類하고, 혹은 獨取寸口와 臟腑脈位와 命門學說 등의 독특한 內容에 대한 論爭을 하여 왔다.

지금까지 《難經》에 관한 研究는 저자와 成立年代에 대한 것¹⁾과, 《難經》을 6편으로 나누어 各難의 原文을 懸吐 번역하고 歷代 注釋家의 注釋을 懸吐 考察한 것²⁾ 등이 있고 現存하는 歷代 《難經》의 序文에 대하여 研究한 것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에는 그 두 번째로 기존의 研究에 이어서 歷代 注釋家의 序文을 分析하여 《難經》에 대한 제반 문제를 定立하고 定理하여 《難經》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필자는 《難經》에 대한 이러한 研究를 위하여, 歷代 注釋의 序文을 縣吐 번역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內容을 몇가지 측면에서 分析하려고 한다. 본 論文의 研究 內容은 《中國醫籍通考》에 기재된 《難經》의 歷代注釋의 序文 14篇과 《難經經釋補正》에 기재된 難經解題 등의 글 8篇과 《中國醫學源流論·難經學》 1篇을 포함하여 모두 23篇이다.

上記의 글들을 懸吐 번역하고 정리 요약하는 과정에서 《難經》의 의미와 他書와의 비교, 《難經

》의 저자, 《難經》의 독특한 內容, 특징있는 歷代注釋의 장단점, 序文을 짓게 된 동기 등으로 그 內容을 분류 요약하여 발표하는 바이다.

Ⅱ. 研究 方法

序文의 內容을 분석하기 위하여 序文을 번역하는데 중점을 두되, 每編의 번역을 마치고 그 內容을 간단히 분류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原文은 懸吐 解釋하였으며 原文에 대한 注釋은 懸吐를 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순서는 《中國醫籍通考》에 실린 序文은 시대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여 번역하였으며 《難經經釋補正》에 기재된 기타의 글은 기재된 순서로 배열하여 번역하였다.

가. 懸吐는 전래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나. 解釋은 直譯을 원칙으로 하되 문맥이 잘 통하도록 지시어를 ()안에 넣어 이해를 돕고, 直譯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도 ()안에 직역과 같은 內容을 의역해서 넣어 문맥이 매끄럽고 이해가 잘 되도록 하였다.

라. 흔히 쓰지 않는 漢字와 漢字語句는 각주를 달아서 자세히 설명하고 內容과 연관있는 다른 뜻도 아울러 소개하여 더욱 문맥에 맞는 內容을 취사선택하도록 하였다.

마. 內容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용문헌에 대한 설명과 各家에 대한 해설이나 注釋의 보충설명은 각주로 처리하였다.

바. 本 論文에 사용한 부호는 引用文獻은 《 》, 인용편명은 〈 〉, 문헌과 편명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 · 》로 가운데 방점을 넣었고, 원문에 대한 주는 「 」로 표시하였고, 각주는 『 』로 표시하였다.

사. 정리가 필요한 編에는 그 編末에 번역한 內容을 몇가지로 분류 요약하여 考察하였다.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1) 천병태 難經의 성립과 역대연구에 관한 고찰, 대전, 대전대학교대학원 1993

2) 김정규 《黃帝八十一難經》 중 臟腑生理篇에 관한 研究 등 다수

Ⅲ. 研究內容

本篇에서 연구한 篇은 《難經》의 歷代注釋의 序文이 《中國醫籍通考》에 기재된 것 14편과 《難經釋補正》에 기재된 기타의 글 8篇과 《中國醫學源流論》의 〈難經學〉 1篇을 포함하여 모두 23篇이다.

1. 難經本義 揭法序

【原文】

素問 靈樞는 醫之大經大法이 在焉하니 後世諸方書 | 皆本于此라 然이나 其言 | 簡古淵涵하여 未易通曉라 故로 秦越人이 發爲八十一難하니 所以推明其義也이라 然이나 越人은 去古未遠하고 其言이 亦深하여 一文一字 | 意周旨密이라 故로 爲之注釋者 | 亦數十家나 但各以臆見而卒無歸一之論하니 或得此而失彼하고 或舉前而遺後하여 非惟自誤요 又以誤人이니 識者 | 病焉이라 許昌滑君伯仁은 篤實詳敏하여 博極群書하여 工于醫者 | 三十四年하여 起廢愈痼를 不可勝紀러니 遂晝惟夕思하여 旁推遠索하여 作難經本義 二卷하니 析其精微하고 探其隱蹟³⁾하고 鈎其玄要하여 疑者는 辨之하고 誤者는 正之하고 諸家之善者는 取之라 于是에 難經之書 | 辭達理明하고 條分縷解하고 而素問靈樞之奧 | 亦由是而得矣라 夫人之生死 | 系于醫하고 醫之本源이 出于經하니 經之旨을 不明이던 其害를 可勝言哉리오 然則伯仁之功이 豈小補者耶아

至正二十六年二月에 工部郎中揭法은 序하노라

【解釋】

《素問》, 《靈樞》는 醫의 大經과 大法이 存在하니 後世의 여러 方書가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다. 그러나 그 말이 簡潔하고 古雅하고 깊고 잠겨서 쉽게 통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秦越人이 八十一難을 發하여 만드니 그 뜻을 미루어 밝히기 위함이다. 그러나 越人은 옛으로부터 (시간적) 거리가 멀지 않고 그 말이 또한 深奧하여 한 문장 한 글자가 뜻이 周密하므로 그 것에 注釋한 자가 또한 數十家이지만 그러나 各各 臆測으로 보아서 마침내 하나로 一致되는 論이 없으니 或은 이것을 얻었으나 저것을 잃고 或은 앞은 들었으나 뒤는 빠뜨려서 스스로만 그를 뿐만 아니라 또한

남을 그르게 하니 識者가 안타까이 여긴다. 許昌의 滑君伯仁(滑壽)은 篤實하고 仔詳하고 敏捷하여 群書를 모두 다 읽어서 醫業에 專攻한지 三十四年이어서 廢疾을 일으키고 痼疾病을 낫기를 이루다 기록하지 못하게 많더니 마침내 晝夜로 생각하고 窮理하여 두루 推論하고 깊이 探索하여 《難經本義》 二卷을 지으니 그 精微를 분석하고 그 숨어서 드러나지 않아 深奧한 것을 찾고 그 玄妙한 要點을 꿰어서 의심나는 것은 分별하고 그릇된 것은 바로 잡고 諸家의 좋은 것은 取하였다. 이에 《難經》의 글이 말이 이해가 되고 理致가 밝혀지며 條目이 나누어지고 실마리가 풀려서 《素問》, 《靈樞》의 奧妙함이 또한 이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나. 무릇 사람의 生死가 醫師에 매어 있고 醫의 本原이 經에서 나오니 經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그 害를 이루 말할 수 있으리오! 그러하면 伯仁(滑壽)의 功이 어찌 작은 도움이라!

至正 二十六年二月에 工部郎中 揭法은 序하노라

【考察】

本編은 《難經》의 《內經》과의 관계, 注釋家의 단점 및 本注釋書의 장점 등에 대해 記述하고 있다.

《難經》의 《內經》과의 관계는 《素問》 《靈樞》가 醫의 大經이지만 그 말이 어렵고 深遠하여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을 밝혀 놓은 것이 《難經》이라는 것이다.

注釋家의 단점과 本注釋의 장점에 대해서는 그 注釋家가 수십여명이지만 臆測이 많아서 하나로 통일된 의견이 없으나 滑壽가 그 精微와 玄妙를 분석하고 의심나는 것을 分별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여러 注釋家의 장점을 취하여 《難經》의 뜻과 條理가 밝혀짐으로 인하여 《內經》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滑壽의 功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2. 難經本義 張翥⁴⁾序

【原文】

醫之爲道 | 聖矣로다 自神農氏로 凡草木金石이 可濟夫天死札⁵⁾瘵⁶⁾할새 悉列諸經하고 而八十一難은 自秦越人으로 推本軒岐鬼臾區之書하여 發難析

4) 翥(저): 날아오르다

5) 札(찰): 일찍 죽다, 天死하다, 돌림병

6) 瘵(차): 앓다, 病, 疫病, 病이 낫다

3) 蹟(색): 깊숙하다, 심오하다, 깊어서 보기가 어렵다

疑하고 論辨精詣⁷⁾하야 鬼神無遁情하니 爲萬世法이요 其道 | 與天地로 並立하니 功豈小補也哉리오 且夫人은 以七尺之軀으로 五藏百骸 | 受病하니 六氣之診은 乃系于三指點按之下라 一呼一吸之間에 無有形影하니 特切其洪細濡伏若一發하니 苟或誤謬면 則脈生而藥死之矣리니 而可輕以談醫하고 而可易以習醫邪아 寓鄞⁸⁾滑伯仁은 故家許이니 許去東垣近일세 早爲李氏之學하야 遂名于醫는 予雅⁹⁾聞之나 未識也러니 今年秋에 來遺所撰難經本義할새 閱之에 使人起敬하니 有是哉라 君之精意于醫也여 條釋圖陣하야 脈絡尺寸과 部候虛實이 簡而通하고 決而明하니 予 | 雖未嘗學이라 而思亦過半矣로다 嗚乎라 醫之道는 生道也니 行道則生意 | 充宇宙하야 澤流無窮하야 人以壽死하니 是則往聖之心也라 世之學者 | 能各置一通于側하야 而深求力討之면 不爲良醫也者 | 幾希리라 嗚乎라 越人은 我師也니 伯仁이 不爲我라 而刊諸梓하야 與天下之人로 共之하니 是則伯仁之心也이라 故로 舉其大旨하야 爲序하노라

至正七十五年龍躔¹⁰⁾甲辰十月既望에 翰林學士承旨榮祿大夫知制誥兼修國史張翥는 序하노라

【解釋】

醫의 道가 聖하도다. 神農氏로부터 모든 草木金石이 모든 天死와 疾病과 疫病을 구제할 수 있었으므로 (本草를) 모두 여러 經에 列舉하였고 《八十一難》은 秦越人으로부터 軒岐와 鬼臾區의 책을 미루고 根本하야 어려운 것을 풀어내고 疑心나는 것을 分析하고 論하고 分辨함이 精密하고 境地에 올라서 鬼神이라도 뜻을 숨기지 못하니 萬世의 法이 되고 그 道가 天地와 並立하니 功이 어찌 작은 도움이 되리오! 또한 사람은 七尺의 몸으로써 五藏百骸가 病을 받으니 六氣의 診察은 이에 三指로 점찍듯이 누르는(診脈하는) 아래에 매어있다. 一呼一吸의 사이에 形體도 그림자도 있지 않으니 다만 그 洪細濡伏의 脈이 혹 한 번 나타나는 것을 切脈하니 진실로 或 그릇되면 脈에는 살아있지만 藥으로 죽게 할 것이니 可히 가볍게 醫學을 말하고 可히 쉽게 醫學을 익히겠는가! 鄞현에 잠깐 살았던 滑伯仁은 故家가 許氏이니 許氏의 집이 東垣과 거리가 가까워서 일찌기 李氏(李東垣)의 學問을 하여 醫業으로 名醫을 이룬 것을 내가 평소

들었으나 잘 알지는 못하였더니, 今年 가을에 그가 지은 《難經本義》를 보내오길래 보았더니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니, 이런 것이 있었구나! 君(滑壽)의 醫學에 정밀한 뜻이여! 條目마다 풀이하고 그림을 배열하여 脈絡尺寸과 部候虛實이 簡單하면서도 通하고 簡潔하면서도 밝으니 내가 비록 일찍이 배우지 않았으나 생각만으로도 반을 지나쳤도다(이미 절반은 알겠도다). 아아! 醫道는 (사람을) 살리는 道이니 道를 행하면 生意가 宇宙에 充滿하여 恩澤이 흐름이 無窮하야 사람이 죽을 사람도 壽命을 延長하게 하니 이것이 지나간 聖人의 마음이다. 세상의 學者가 能히 各各 두어서(가지고 있어서) (각자) 한편에서(《難經本義》의 뜻을) 通하여 깊이 研究하고 努力하여 討論하면 良醫가 되지 못하는 자가 거의 드물 것이리라. 아아! 越人은 나의 스승이니 伯仁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서 木숨에게 간행하도록 하여 天下의 사람과 함께하니(共有하니) 이는 伯仁(滑壽)의 마음이다. 따라서 그 큰 뜻을 들어서 序하노라

至正七十五年 龍躔甲辰十月 보름에 翰林學士 承旨榮祿大夫 知制誥兼修國史 張翥는 序하노라

【考察】

本編은 《難經》의 《內經》과의 관계, 《難經》의 脈法, 注釋家에 대한 내용, 本注釋의 특징, 序문을 짓게 된 동기 등을 기술하고 있다.

《難經》의 《內經》과의 관계는 《內經》에 근본하여 그 뜻을 미루어 어려운 것은 發明하고 의심나는 것은 분석한 것이다.

《難經》은 지금의 脈法이 여기에서 緣由하므로 그만큼 중요하여 脈을 그릇되게 알면 用藥을 잘못하여 사람을 죽이게 된다고 하였다.

注釋家에 대해서 滑壽가 李東垣과 가까워서 그에게 學問을 배웠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本注釋의 특징은 條目별로 정리하고 그림을 그려넣어서 《難經》의 내용이 간결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서 初學者도 쉽게 알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序문을 짓게 된 동기로는 醫道는 生道이므로 醫

7) 詣(예): 이르다, 도착하다, 學藝가 경지에 이르다

8) 鄞(은): 땅이름, 고을 이름

9) 雅(아): 평소, 평상

10) 躔(전): 궤도, 해 달 별이 운행하는 길, 돌다

術을 행하면 生意가 충만해져서 聖人の 마음을 본 받을 수 있으니 天下의 사람과 이 책을 공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3. 勿聽子八十一難經 道軒敬序

【原文】

素問靈樞는 醫之大經法이니 診候證治 | 悉有樞機라 然이나 其經旨 | 幽深하야 不無疑難할새 賴扁鵲之聖하야 重而明之하야 設以問答하야 發爲八十一難하니 辭意 | 周密하고 法理 | 玄微하니 後世醫乃大備니라 若此經 | 不作이면 雖千萬世라도 使醫之道로 猶觸途冥行이언마는 此經이 既作하니 則部候虛實이 顯然分明하고 藏府邪變이 罔能閑隱하고 井榮得穴하고 經絡有歸하야 啓迪後人하니 何其幸歟인저 自是以來로 註家相踵이나 繁簡醇疵하야 或有遺憾이라가 予遂從其俗解호대 間有是與不是하니 望高明君子 | 訂而正之하야 使初學蒙士¹¹⁾로 或有取焉하나이다 因題于此 以誌歲月云 首라 正統戊午春正人日에 道軒敬은 識하노라

【解釋】

《素問》, 《靈樞》는 醫의 大經 大法이니 診候와 證治가 (그 책에) 모두 지도리와 기틀이 있다. 그러나 그 經旨가 그윽하고 깊어서 의심나고 어려운 것이 없지 않아서 扁鵲의 聖에 의지하여 거듭하고 밝혀서 問答을 베풀어서 發하여 八十一難을 만드니 말의 뜻이 周到綿密하고 法의 理致가 玄微하니 後世의 醫가 이에 크게 갖추어 졌다. 만약 이 經이 지어지지 않았으면 비록 千萬世가 지나더라도 醫道가 오히려 觸途冥行(깜깜한 밤에 길을 더듬으며 어둠게 가는 것)과 같건언마는 이 經이 이미 지어지니 三部九候의 虛實이 顯然하게 分明하고 藏府의 邪變이 能히 막고 숨김이 없고 井榮에 穴을 얻고 經絡에 돌아감(얻음, 歸趣)이 있어서 後人에게 열어주고 引導하니 어찌 그 다행인저 (다행이 아난가)! 이로부터 註家가 줄을 이어나 繁雜하고 簡單하고 醇一하고 瑕疵가 있어서 或 遺憾이 있다가 내가 마침내 그 俗解를 좇았으되 그 사이에 옳고 그른 것이 있으니 高明한 君子가 訂正하여 初學者와 蒙昧한 선비로 하여금 或 取함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因하여 여기에 題하여 첫머리에 歲月을 기록한다.

正統戊午春正人日에 道軒敬은 識하노라

11) 蒙士(몽사): 蒙昧한 선비

【考察】

本編은 《難經》과 《內經》과의 관계, 注釋家의 단점을 기술하고 있다.

《難經》과 《內經》과의 관계는 《內經》이 醫의 大經 大法이나 뜻이 깊어서 의심나고 어려운 것이 많은 것을 扁鵲이 거듭하고 밝힘으로써 醫學界가 醫學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歷代 注釋家의 단점은 注釋家가 예로부터 많으나 혹은 번잡하고 혹은 너무 간결하고 그릇되고 옳은 것이 섞여서 일정한 學說이 없다는 것이다.

4. 圖注八十一難經 徐昂序

【原文】

醫는 乃九流¹²⁾之一이라 醫書之難經과 醫者之秦越人은 并皆佳妙者也라 秦越人은 有所養者也요 其著難經은 有所本者也라 秦越人은 世不常有언마는 而難經은 世所共傳이니 八十一難이 既設이면 則榮衛 度數 尺寸 部位 陰陽 王相 臟腑 虛實 脈法 病症과 概夫經絡流注 針刺劑穴을 歷歷如親이라 予以發內經之未發하고 備內經之未備하니 大有功于醫道者也라 厥後에 吳之呂廣과 宋之丁德用과 紀天錫과 金之張元素와 元之滑伯壽(仁)之儔¹³⁾ | 俱爲之解나 矛盾牴牾¹⁴⁾하야 未有歸一之論하고 其間에 明處果有이나 晦處不無하니 雖云得多나 失亦不少하니 依稀仿佛¹⁵⁾하고 眞妄錯雜할새 醫者 | 往往難之라 迨¹⁶⁾夫國朝四明張君賢 字天成者하야 稟賦 | 高하고 用意 | 密하며 醫有世傳하고 學無涯涘¹⁷⁾하야 得于心領神會者니 實深患夫難經之解未悉하고 而圖未會也라 于是에 折衷群書하고 修以己意하야 每節爲之注하고 每難爲之圖하야 精曲折 | 如指諸掌 然後에 八十一難答 | 以發明하고 而八十一圖 | 始見詳備이라 纂集成書 | 計若干卷하야 藏于篋¹⁸⁾司하야 以備自覽이라 一日에 扁舟로 過揚訪余에 適余老母病危할새 請醫診視하니 用藥如神하고 得

12) 九流: 漢代의 아홉 學派로서, 儒家, 道家, 陰陽家, 法家, 名家, 墨家, 縱橫家, 雜家, 農家를 말한다. 醫學은 雜家에 속한다.

13) 儔(주): 무리, 짝, 누구

14) 牴牾(저오): 서로 어긋남

15) 仿佛(방불): ① 거의 비슷함, ② 흐린 모양, 어렵듯한 모양

16) 迨(태): 미치다, 이르다

17) 涘(사): 물가, 강가

18) 篋(협): 상자, 좁고 긴 네모난 상자

效最速이라 僉¹⁹⁾謂今之秦越人也라 余知其亦有所養이면 必有所述일새 詢²⁰⁾之再四하니 因出圖注難經一帙하야 以示余라 予亟²¹⁾讀에 羨²²⁾亟²³⁾일새 方將手錄이라가 偶兩淮都雲呂公邦佑訪하야 迎天成이 療治壺²⁴⁾相의 宿病에 有驗하니 珍重其人하야 話及所述하니 呂 | 亟求閱하야 遂爲鐫²⁵⁾梓以傳하고 而徵文以弁諸首라 予惟²⁶⁾醫道 | 與儒道로 相爲流通者也니 通乎儒하고 不通乎醫者는 容有已어니와 未有通于醫하고 而不本乎儒者也라 徒通乎醫者는 庸人也오 兼通乎儒者는 明醫也니 世之以醫爲業者 | 皆資難經이로되 昔難今易하고 昔晦今明이니 一披²⁷⁾閱天成之所圖注면 則思過半矣리라 然則儒醫兼通者歟며 圖注難經은 其醫家之指南歟아 誠能由圖注하야 以知難經하고 由難經하야 而知內經이면 其精醫世之功이 不爲小補이어늘 況天成之妙齡勤學이 將來之造詣를 著之工業하니 其可量乎아予 | 于天成에 舊有一日之長²⁸⁾하니 是用不辭하고 而爲之序하니 小寓期望之意云이라 維揚徐昂은 識하노라

【解釋】

醫는 九流中에 하나다. 醫書의 《難經》과 醫師의 秦越人은 모두 좋고 오묘한 것이다. 秦越人은 修養한 것이 있는 者이고 그의 著書 《難經》은 根本한 것이 있는 것이다. 秦越人은 代代로 항상 있지 않건마는 《難經》은 代代로 모두 전해져 오 는 것이니 八十一難이 이미 베풀어 졌으면 榮衛 度數 尺寸 部位 陰陽 王相 臟腑 虛實 脈法 病症과 모든 經絡流注 針刺劑穴을 歷歷히 볼 수 있는 것 과 같다. 이에 《內經》에서 發明하지 못한 것을 發明하고 《內經》에서 갖추지 못한 것을 갖추니 크게 醫道에 功이 있는 것이다. 그 後에 吳의 呂廣과 宋의 丁德用과 紀天錫과 金의 張元素와 元의 滑伯壽(仁)의 무리가 모두 풀이하였으나 矛盾되로 서로 배치되어 일치되는 것이 있지 않고 그 사 이에 밝혀 놓은 곳이 과연 있으나 어렵게 해놓은 곳 도 없지 않으니 비록 얻은 것이 많다고 말하나 잃 은 것 또한 적지 않으니 依託할 것이 드물고 어렵 뜻하고 진실로 어지럽혀 놓고 錯雜하기 때문에 醫師가 종종 어려워한다. 무릇 國朝(明代) 四明 張君賢, 字가 天成인 者에 미쳐서 稟賦가 높고 用意 가 周到하며 醫業을 대대로 傳하고 學問이 끝이 없어서 마음으로 理解하고 神으로 알아내는 境地

를 얻은 者이니 실제로 《難經》의 解釋이 未盡하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음을 깊이 근심하였다. 이 에 모든 책을 折衷하고 자신의 뜻으로 修整하여 每節에 注를 달고 每難에 그림을 그려서 情密하고 曲盡하게 分析한 것이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쉬운) 後에야 八十一難의 答이 發明되고 八十一의 그림이 비로소 상세히 갖추어짐 을 보았다. 纂集하여 책을 이루어 약간 卷을 계산 하여 篋司에 보관하여 스스로 찾아보는데 갖추도 록(도움이 되도록)한다. 어느날에 작은 배로 揚州 를 지나다가 나를 만남에 마침 나의 老母가 病으로 危急하여 醫師로 請해서 診斷하여 보게 하였디 니 用藥함이 神과 같고 效果를 얻음이 가장 빨랐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의 秦越人이다라고 하였 다. 내가 그 또한 修養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저 술한 것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再三再四 물 어 보았더니 인하여 《圖注難經》 一帙을 꺼내서 나에게 보여 주었다. 내가 빨리 읽어봄에 부러워 할 만하고 좋길래 바야흐로 장차 손으로 베끼려다 가 우연히 兩淮都運 呂公 邦佑가 방문하여 天成을 맞이하여 壺相의 宿病을 치료함에 效驗이 있었으 니 그 사람을 귀히 여겨서 이야기가 저술에까지 미치니 呂가 지극히 볼 것을 구하여 드디어 새기고 목수질하여 傳하고 글로 증명하여 (책) 머리에 썼다. 내가 생각컨대 醫道가 儒道와 함께 서로 流 通하는 것이니 儒에 通하고 醫에 通하지 못한 者 는 있을 수 있거니와 醫에 通하고 儒에 근본하지 않은 者는 있지 않다. 한자 醫에 通한 者는 庸人 이고 儒에 兼通한 者는 明醫이니 世上에서 醫로써 業을 삼은 者는 모두 《難經》에 依支하되 옛것을 어렵게 여기고 지금은 쉽게 여기고 옛날에는 어렵 게 여기고 지금은 밝게 여기나 한번 天成이 圖注 한 것을 열어보면 생각만해도 절반을 지난다. 그

- 20) 詢(순): 묻다, 자문하다, 피하다
- 21) 亟(극): 급하다, 빠르다, 자주
- 22) 羨(이): 넓다, 부러워하다, 고을이름
- 23) 亟(극): 다하다, 삼가하다, 사랑하다, 고치다
- 24) 壺(호): 병, 박, 投壺, 참고로 壺(곤)은 대궐안길을 뜻한다.
- 25) 鐫(전): 새기다, 뚫다, 쪼다, 귀양가다
- 26) 惟(유): 생각하다
- 27) 披(피): 헤치다, 열다, 쪼개다, 나누다
- 28) 一日之長: ①하루 먼저 태어남, 나이가 조금 많음, ②轉하여 조금 나음

19) 僉(점): 다, 여럿, 여러사람이 함께 말하다

렇다면 儒와 醫를 兼通한 者이며 圖注難經은 그 醫家의 指南인저! 진실로 能히 圖注로 말미암아 <難經>을 알고 <難經>으로 말미암아 <內經>을 알면 그 精密히 世上을 治療하는 功이 적은 도움이 아니거늘 하물며 天成의 妙齡 勤學이 將來의 造詣를 工業에 기록하니 그 可히 헤아릴 수 있는가! 내가 天成에게 오래전부터 一日之長이 있으니 이에 辭讓하지 아니하고 序를 지으니 이미 바라는 뜻을 작으나마 부치노라
維揚徐昂은 기록하노라

【考察】

本編은 <難經>의 의의, <難經>과 <內經>과의 관계, 역대 注釋家의 단점, 本注釋의 특징, 序文을 짓게 된 동기와 注釋家에 대한 내용 本注釋의 장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難經>의 의의는 <難經>과 秦越人은 根本이 있는 책이고 修養이 있는 사람으로서 <難經>으로 인하여 脈法 藏府 經絡 病症 針灸 등을 지금까지 낱낱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難經>과 <內經>과의 관계는 <內經>에서 發明하지 않은 것을 發明하여 醫道에 큰 功이 있다는 것이다.

역대 注釋家의 단점으로는 서로 모순되어 일정한 學說이 없고 發明한 곳이 있으나 도리어 어둡게 해놓은 곳도 있어서 醫家들이 어렵게 여긴다는 것이다.

本注釋의 특징은 <難經>중에서 풀이하기 어려운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每節마다 注를 달아서 發明하였다는 것이다.

序文을 짓게 된 동기는 序文을 지은 사람(徐昂)의 老母가 病患으로 위급할 때에 本注釋家(張世賢)가 치료하여 나음을 계기로 그의 著書를 편찬하고 序文을 짓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注釋家에 대해서는 張世賢이 醫와 儒를 兼通한 明醫라고 하였다.

本注釋의 장점은 그림으로 풀이하여 <難經>을 이해하기 쉽게 하여 醫家의 指南이 된다는 것이다.

5. 圖注八十一難經 馮養序

【原文】

難經 脈訣 二書는 古之秦越人과 王叔和二先生이 遵黃帝素問而作者也니 洞悉之理하여 誠爲醫家之要語라 迨四明張靜齋하여 又取二書而圖且注之하니 是爲圖注難經脈訣이 益珍重焉이라 後之業醫者

讀其書면 卽按圖索理하고 會注窮去하여 而不病于庸矣리라 予家藏茲業已久라가 庸每暇輒出하여 朗誦若不能釋하니 知其大有裨益于斯世之醫者라 故로 勿敢私焉하고 而付諸梓라

養松道人馮養은 識하노라

【解釋】

<難經>, <脈訣> 二書는 옛날의 秦越人과 王叔和二先生이 <黃帝素問>을 따라서 지은 것이니 理致를 洞明하고 다하여 진실로 醫家의 要點이 되는 말이 된다. 四明 張靜齋에 미처서 또한 二書를 取하여 그림을 그리고 注를 다니 이에 <圖注難經脈訣>이 더욱 귀하고 소중하여진다. 後에 醫業을 하는 者가 그 책을 읽으면 卽 그림을 살펴서 理致를 찾고 모아서 注를 달기를 다하여 가서 庸劣한데 病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집이 이 業을 감추어 온 지 오래다가 한가할 때마다 문득 꺼내서 朗誦하기를 풀지 못하는 것처럼 하니 그 이 世上의 醫師에게 도움이 있을 것을 알아서 따라서 私事로히 보관하지 않고 목수에게 부탁한다.
養松道人 馮養은 기록하노라

【考察】

本編은 <難經>과 <內經>과의 관계, 注釋書의 장점 등을 記述하였다.

<難經>과 <內經>과의 관계는 <內經>의 理致를 밝혀서 醫家의 要點이 된다는 것이다.

注釋書의 장점은 그림을 그리고 注를 달아서 이치를 밝혔다.

6. 圖注八十一難經評林捷徑統宗 魏時亨序(1)

【原文】

人之生은 橐²⁹⁾ 籥³⁰⁾于天地五行 神官所輸하여 挾氣而運하니 莫不于脈理見之라 然이나 脈者는 氣血之先也니 人人所同有나 而非人人能知者하니 以行而不著하고 習而不察故也일새라 西晉叔和王氏 推本素難之義하여 發明獨得之蘊하여 作爲脈訣하니 凡男婦小兒의 五臟六腑生死吉凶之法이 昭析咸備라 歷代醫家 多爲注解하고 求其講論博而考察詳할새 折衷群言하여 一歸于正하여 類標七表八理九道諸脈하고 分別陰陽五行 主客虛實하고 括之于浮沈遲數하고 驗之于風寒濕暑하며 并古方之合于脈者하여

29) 橐(탁): 전대, 풀무, 절구질하는 소리

30) 籥(월): 갈

悉附于後하야 仍節注一圖하야 以發未盡之意하야 使人一覽卽知其源하야 未有若此書之明且盡者니 實我友冰鑿王文潔編摩之功也라 其信好于古하니 而裨益于後者! 豈淺鮮哉리오 予嘉其志하코 而樂其成하야 遂忘譚³¹⁾陋하고 而弁諸首하야 以識歲月云이라

萬曆己亥 春季之吉에 安福交亭 魏時亨은 拜書叙畢하노라

【解釋】

사람의 生命은 天地五行에 의해 풀무질하고 무기를 삼아서 神官이 옮겨 주어서 기운을 타서 움직이니 脈理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脈은 氣血보다 먼저이니 사람마다 함께 있는 것이지만 사람마다 能히 아는 것이 아니니 行함에 나타나지 않고 익숙함에 살피지 않기 때문이다. 西晉의 王叔和가 《素問》《難經》의 뜻을 미루고 根本하여 홀로 얻은 奧妙함을 發明하여 脈訣을 만드니 모든 男子 婦女 小兒의 五臟六腑와 生死吉凶의 法이 밝게 분석되어 모두 갖추어져 있다. 歷代 醫家가 注解한 것이 많고 그 講論이 넓고 考察이 자세한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여러 말을 折衷하여 바른 것으로 一致시켜 七表八理九道の 諸脈을 類別로 標示하고 陰陽五行과 主客虛實을 分別하고 浮沈遲數에 包括하여 風寒濕暑에 徵驗하며 古方이 脈에 合하는 것을 아울러서 모두 뒤에 부쳐서 因하여 節注一圖를 만들어 未盡한 뜻을 다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보면 곧 그 根源을 알게 하여 이 책과 같이 分明하고 極盡한 것이 있지 않으니 실제로 나의 벗 冰鑿 王文潔의 編輯하고 研磨한 功이다. 그는 옛 것을 믿고 좋아하니 뒷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어찌 적고 드무리오! 내가 그 뜻을 좋아하고 그(책이) 이루어진 것을 즐겨하여 마침내 淺薄하고 鄙陋함을 잊고서 머리에 써서 세월을 기록한다.

萬曆己亥 春季之吉에 安福交亭 魏時亨은 절하여 써서 序文을 마치노라.

【考察】

本篇의 內容은 《脈經》과 《內經》, 《難經》과의 관계, 《脈經》의 內容 등이다.

《脈經》은 《內經》, 《難經》의 뜻을 미루고 근본하여 발명한 것이다.

《脈經》의 內容은 七表八裏九道脈을 밝혀 陰陽五行 主客虛實을 分別하고, 浮沈遲數을 包括하여 六氣를 징험하고 古方이 脈에 合하는 것을 부쳐서 節注와 그림을 만들었다.

7. 圖注八十一難經評林捷徑統宗 魏時亨序(2)

【原文】

嘗謂儒道는 以六經爲宗하야 而學庸論孟은 正辨難六經之義하야 而一以貫之者也오 醫道는 以內經爲統하야 而古今名賢이 皆有著作이라 然이나 未有若扁鵲難經一書라 發明素問靈樞之旨하야 使人身三焦 榮衛 關格 經絡同流大虛之理로 昭然于八十一難之中이라 至秦越人하야 嘗注以釋之하니 當與六經注疏로 并傳可也라 中季以來로 脈理湮³²⁾微하고 傳注桀錯하고 其功習醫業者! 多不本于儒術하야 或得其言而不得其所以言이라가 在扁鵲하야 固欲因經以設難하고 在越人하야 尤欲釋難以明經이러니 在今人하얀 不免泥經以觀難하고 又不免緣難以瀉³³⁾經이라 經濟而道愈背矣니 夫豈作者意哉리오 余! 檢校方書에 每用樵³⁴⁾然이라가 東友冰鑿王氏! 究心醫業하야 察前晰³⁵⁾後하야 擊菴³⁶⁾廓³⁷⁾蒙于八十一難하고 又發其變通之用于圖評之間하니 無乃亦遇神人하야 飲以上池之水하야 盡見五臟症結호대 特以診脈爲名하야 而托述于是舉也라 書梓于書林安正堂하고 劉雙松君이 命序于余하거늘 余! 喜其書之可傳하니 非惟能發扁鵲未發之秘라 其于黃帝妙義에 亦深有補矣리니 乃題之篇端하야 以寓³⁸⁾不忘하야 俾與叔和脈訣로 并行云이라

時萬曆己亥夏年에 安福交亭魏時亨逢泰甫는 手書하노라

【解釋】

일찍이 儒道는 六經으로 으뜸을 삼아서 《大學》, 《中庸》, 《論語》, 《孟子》는 바로 六經의 뜻을 辯難하여 一以貫之한 것이고, 醫道는 《內經》으로 系統을 삼아 古今의 名賢이 모두 著作을 한 것이 있다. 그러나 扁鵲《難經》一書만 같은 것이

32) 湮(녘): 검은 물 들이다, 진흙, 개흙

33) 瀉(리): 경박하다, 얽다, 스며들다, 물소리

34) 樵(무): 명한 모양, 失意한 모양, 어루만지다

35) 晰(철): 밝고 소수

36) 菴(부): 차양, 덩개, 방석

37) 廓(확): 넓다, 크다, 성, 외곽

38) 寓(우): 머무르다, 객지에 묵다, 숙소, 여관

31) 譚(전): 알다, 천박하다

없다고 말하였다. 《素問》《靈樞》의 뜻을發明하여 人身의 三焦 榮衛 關格 經絡同流 大虛의 理로 하여금 八十一難의 가운데에 밝게 나타나게 하였다. 秦越人에 이르러서 일찌기 注하여 解釋하니 마땅히 六經의 注疏와 함께 傳해지는 것이 옳다. 中季以來로 脈理가 어지럽혀지고 微微하고 傳해지는 注가 그릇되고 섞여서 그 醫業을 專攻하고 익히는 者가 흔히 儒學의 技術에 根本하지 않아서 或 그 말을 얻었으나 그 말한 이유를 알지 못하다가 扁鵲에 있어서는 진실로 經으로 인하여 질문을 베풀고 越人에 있어서 더욱 經을 解釋하여 經을 밝히고자 하였다니 今人에 있어서는 經에 구애되어 《難經》을 보는데 免하지 못하고 또한 《難經》으로 인하여 經을 경박히 여긴다. 經이 경박하게 여겨지니 道가 더욱 어그러지게 되었으니 무릇 어찌 지은 者의 뜻이리오! 내가 方書를 檢査하고 校閱함에 매번 失意하다가 東友 冰鑿 王氏(王文潔)가 醫業에 研究하고 마음에 두어 前의 것을 살피고 後의 것을 밝혀서 《八十一難》에 가린 것을 쳐서 없애고 어리석음을 넓히고 또한 그림을 그리고 評하는 사이에 變通의 쓰임을發하니 이에 또한 神人을 만나서 上池의 물을 마셔서 五臟의 症結을 다 보았으니 다만 診脈으로 이름을 얻어서 자취를 이 例에서 依託하는 것이 아닌가! 書林安正堂에서 글쓰고 목수질하여 劉雙松君이 나에게 序文을 命하거늘 내가 그 책이 傳해 질 수 있음을 기뻐하니 다만 能히 扁鵲이 發明하지 않은 秘密을 發明한 것일 뿐 아니라, 그 黃帝의 妙義에 또한 깊어 도움이 있을 것이니 이에 책의 실마리에 題하여 잊지 않도록 부쳐서 하여금 叔和의 《脈訣》과 함께 并行하도록 한다.

時萬曆己亥夏年에 安福交亨 魏時亨 逢秦甫는 손으로 쓰노라.

【考察】

本編은 《難經》과 儒書와의 비교, 《難經》의 저자 및 의의, 序文을 지은 동기 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難經》과 儒書와의 비교로는 儒書는 六經으로 으뜸을 삼고 《大學》, 《中庸》, 《論語》, 《孟子》가 六經의 뜻을 辨難하여 一貫한 것처럼 秦越人이 지은 《難經》은 《素問》, 《內經》의 뜻을 發明하고 秦越人이 그것을 注疏한 것이다.

《難經》의 의의는 扁鵲이 《內經》으로 인하여 《難經》을 만들고 秦越人이 《難經》을 해석하여

《內經》을 밝혔다고 하여 扁鵲과 秦越人을 同一人으로 보고 있지 않다.

序文을 지은 동기에는 扁鵲이 發明하지 못한 秘密을 發한 것뿐만 아니라 黃帝의 妙義에도 큰 도움이 되니 이 글이 傳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8. 難經直解 莫煒 自序

【原文】

史記에 載扁鵲은 姓이 秦氏요 名이 越人이요 渤海郡鄭³⁹⁾人也라 受業于長桑君하야 授秘方하고 飲以上池之水하야 能見垣一方人이라 其後에 起虢世子之死하고 診趙簡子之脈하고 視齊桓侯之疾하니 眞精義入神이니 非凡流可及이라 溯靈素之源流하고 演難經八十一篇하야 首取寸口하야 以明肺之一經이 乃脈之要會하고 一取關部하야 以分陰陽之界하야 脈以胃氣爲本하고 一取尺內하야 以明腎爲生氣之原하니 乃十二經之根本이라 三部既明이면 則脈之大綱이 已判然矣라 其臟腑之部位와 氣血之流行과 陰陽升降之義와 五行生克之理와 四時逆從之論과 虛實補瀉之分과 三焦命門之辨과 七衝八會之區와 色脈之參應과 針法之迎隨와 奇經八脈이 無一不詳且盡라 後之注難經者 | 不啻十餘家라 然이나 文繁者 | 失之過多하고 辭寡者 | 失之太略할새 二者 | 皆非初學之津梁이라 蓋難經一書는 設爲問答하야 其義業已解明하니 爰煩多贅⁴⁰⁾이리오 但業是術者 | 恐未及究心 靈素之奧旨하고 而經絡穴名을 多所不曉이어늘 況初學乎야 茲以滑氏之注로 細考各家之說하야 其中에 或誤 或闕 或錯 或衍文疑詞 諸義를 悉遵滑氏하야 重加刪訂하야 而爲難經直解하니 學者 | 誠能熟讀本文하고 細研注義면 則知寸至魚際를 名曰寸이요 尺至尺澤를 名曰尺과 經絡之陰陽과 臟腑之表裏과 井榮輸經合은 其所出 | 爲井이요 所流 | 爲榮이요 所注 | 爲腧요 所行이 爲經이요 所入이 爲合과 氣血之周于身호대 始于肺하야 終于肝하고 而復會于肺脈之要會하니 于此에 洞然無遺矣리라 嗟乎라 難經之秘旨 | 卽靈素之階梯也니 學者 | 其可忽諸야

康熙壬子歲에 武林莫煒는 識하노라

【解釋】

《史記》에 記載하기를 扁鵲은 姓이 秦氏이고 이름이 越人이고 渤海郡 鄭人이다. 長桑君에게 수

39) 鄭은 '鄭'字의 誤植이다.

40) 贅(贅): 군더더기, 혹, 모오다

업하여 秘方을 傳授받고 上池의 水를 마셔서 能히 담너머 사람을 볼 수 있었다. 그 後에 虢世子가 죽은 것을 살리고 趙簡子の 脈을 診察하고 齊桓侯의 疾病하을 보니 진실로 精密한 義理가 神의 境地에 들어간 것이니 凡流로서 可히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靈樞》《素問》의 源流를 거슬러 올라가고 《難經》八十一篇을 演釋하여 먼저 寸口를 취하여 肺의 一經이 脈의 要會가 됨을 밝히고, 한번 關部를 取하여 陰陽의 境界를 나누어 脈은 胃氣로 根本하고 한번 尺內를 取하여 腎이 生氣의 根源이 됨을 밝히니 十二經의 根本이 된다. 三部가 이미 밝혀지면 脈의 大綱이 이미 분별이 된다. 그 臟腑의 部位와 氣血의 流行과 陰陽升降의 뜻과 五行生克의 理와 四時逆從의 論과 虛實補瀉의 區分과 三焦命門의 分辨과 七衝八會의 區別와 色脈의 參應과 針法의 迎隨와 奇經八脈이 하나라도 자세히 다하지 않은 것이 없다. 뒤에 《難經》을 注하는 者가 十餘家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글이 번거로운 者는 過多함에 잃었고 말이 적은 者는 너무 간략한데 잃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初學의 (研究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리역할을 하지 못한다. 대개 《難經》一書는 問答을 베풀어서 그 義業이 이미 解明되니 어찌 번거롭고 군더더기가 많으리오! 다만 이 術에 從事하는 者가 미처 《靈樞》《素問》의 오묘한 뜻을 研究하지 못하고 經絡 穴名을 깨닫지 못한 바가 많을까 두려워하거늘 하물며 初學에 있어서라! 이에 滑氏의 注로써 各家의 說을 자세히 살펴서 그 中에 或 그릇된 것과 或 빠진 것과 或 섞인 것과 或 불어난 글과 의심나는 말의 모든 뜻을 모두 滑氏를 따라서 거둬 더 삭제하고 校訂하여 《難經直解》를 만드니 學者가 진실로 能히 本文을 익숙히 읽고 注의 뜻을 細密히 研究하면 寸에서 魚際에 이르는 것을 寸이라 이름하고 尺에서 尺澤까지를 尺이라 이름하는 것과 經絡의 陰陽과 臟腑의 表裏와 井榮輸經合은 그 나오는 것이 井이 되고 흐르는 것이 榮이 되고 注하는 것이 腧가 되고 行하는 것이 經이 되고 들어가는 것이 合이 되는 것과 氣血이 全身을 두루 돌되 肺에서 시작하여 肝에서 끝나고 다시 肺脈의 要會에서 만나는 것을 알게 되니 이에 밝게 되어 빠짐이 없으리라. 아아! 《難經》의 숨겨진 뜻이 즉 《靈樞》《素問》의 사다리의 역할을 하니 學者가 그 可히 소홀히 하라!

康熙 壬子歲에 武林 莫煥는 기록하노라

【考察】

本編은 《難經》의 저자, 《難經》과 《內經》과의 관계, 《難經》의 脈法, 歷代注釋의 단점 및 本注釋家의 장점 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難經》의 저자는 秦越人으로서 渤海郡 鄭縣人이며 長桑君으로부터 醫術을 전해받아 虢太子 趙簡子 齊桓侯를 診察하였다.

《難經》은 《內經》의 源流에 根本하여 《難經》을 演釋한 것으로 《內經》을 공부하는 계단과 사다리와 같은 위치의 書籍이다.

《難經》의 내용에서 脈法에서는 獨取寸口하여 胃氣와 腎을 강조하고 그 외에 藏府部位 氣血流行 陰陽升降 五行生克 四時逆從 虛實補瀉 三焦命門 七衝門 八會穴 色脈合診 등의 내용이 모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歷代注釋의 단점은 글이 많은 것은 過多하고 글이 적은 것은 너무 簡略하여서 初學者들이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本注釋家의 장점은 滑壽의 注를 따르고 各家의 說을 살펴서 或 잘못된 것과 或 빠진 것과 或 섞인 것과 或 衍文과 의심나는 말을 없애고 校正하여 그 내용을 환히 알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9. 難經直解 錢捷序

【原文】

今天下言醫者 | 夥⁴¹⁾矣니 莫不言醫有源流언하는 叩⁴²⁾其所學이던 雖張李劉朱四家라도 言未甚會通曉暢어늘 況內經素問爲神聖之書乎아 後世儕⁴³⁾醫 | 于九流에 膠集局方하고 不知察診하니 何以釋縛脫羸하야 拯黎元于壽域哉리오 稽秦越人難經一書 尙대 設爲問答하야 殫⁴⁴⁾究精微하니 極盡醫師之道焉이라 昔東坡楞伽經跋에 曰醫之有難經하니 句句皆理요 字字皆法이라하니 誠信斯言이라 使學者로 熟讀而察腓⁴⁵⁾하고 審證而□⁴⁶⁾藥하야 以上溯靈素之傳하니 此는 其楷⁴⁷⁾模也矣라 然이나 自呂廣과 楊玄操以後로 注釋이 凡十有數家하고 擽寧生詮解

- 41) 夥(과): 많다, 동업하다, 패거리
- 42) 叩(고): 묻다, 물어보다, 두드리다, 잡아당기다
- 43) 儕(제): 同輩, 무리, 함께
- 44) 殫(탄): 다하다, 두루, 널리, 모두
- 45) 腓(비): 앓다, 병들다, 괴하다, 장단지
- 46) □: 문맥상 아마도 '用'字 或은 '遺'字일 것이다.
- 47) 楷(해): 본, 본보기, 곧다, 바르다,楷書

1 尤備나 但言愈多而旨愈晦하니 若三焦胞絡은 本有形也나 二十五難에 以爲無形하고 兩腎은 皆藏精也이나 而三十六難에 以右腎으로 爲藏精系包之命門이어늘 滑擗寧이 隨文解注하니 罔所折衷이라 以是로 古今聚訟이라 此莫翁丹子所注! 悉本素問靈樞以正之하니 將難經之所以致疑者하야 不妨存其偏하고 而難經之所以取信者는 直足以發其蘊이라 此其言有源流하야 會通曉暢하야 直溯之千百載以上하니 功豈在張李劉朱之後也리오 丹子! 嘗有言曰 醫는 以三指之下로 寄⁴⁸⁾人生死하니 所任이 最重할새 須用苦心하야 窮究內經奧旨하야 通極三才之道하니 此는 蓋有神聖之心而後에 可行神聖之道라 黃帝! 曰若窺深淵이라하고 而迎浮! 云脈之難知하니 惟帝猶然이라하니라 難經四十一難으로 以至六十一難히 皆言診候病能和 臟腑積聚와 傷寒雜症之別하고 而繼之以望聞問切하니 可謂盡醫之能事矣라 하니라 丹子! 復集崔紫虛所撰 四言脈要하야 條分而詳晰之하니 大抵本靈素脈難之旨하고 而辨高陽生脈訣之訛하야 合于經者는 法之하고 悖于經者는 黜之하야 若燃犀하고 若觀火하니 以是로 愈疴起痼하야 活人最多라 又述李月池脈學于編後하야 以作後學之津梁하니 功顯不偉也哉리오 余留心靈素之書! 久矣하야 偶得解則識之하고 未敢輕以刀圭⁴⁹⁾爲嘗試러니 今讀丹子言 而有合也라 范文正公이 云不能爲良相이면 願學爲良醫라하니 余于退食之暇에 尙孜孜乎內經一編하야 以求其會通曉暢하니 望古神聖之道! 茫⁵¹⁾乎其未有畔岸이라 丹子約理에 有云人壽八十에 醫事始濟라하니 竊又幸學道之未晚也로다 因爲序하야 而并及之니라

康熙甲寅立秋一日에 陶雲錢捷은 序于燕邸⁵²⁾하노라

【解釋】

지금 天下에 醫를 말하는 者가 많으니 醫에 源流가 있다고 말하지 않음이 없건마는 그 배운 바를 물어보면 비록 張元素, 李東垣, 劉河間, 朱丹溪의 四家라도 말이 심히 이해가 되고 통하고 깨닫고 퍼지지 않거늘 하물며 《內經素問》의 神聖한 책에라! 後世의 여러 醫師가 九流에 膠彘局方에 고집하기만 하고 診察을 알지 못하니 묵은 것을 풀고 어려운 것을 빠뜨려서 어찌 백성을 장수하는 곳으로 건져내리오! 秦越人《難經》一書を 상고하건대 問答을 베풀어서 精微를 다하고 研究

하니 醫師의 道를 극진히 한 것이다. 옛날에 東坡의 楞伽經跋에 醫에 《難經》이 있으니 句節마다 모두 이치요 글자마다 모두 法이라 말하였으니 진실로 이 말을 믿을 만하다. 學者로 하여금 익숙히 읽고 병든 이를 살피고 證을 살펴서 藥을 □하여 (써서) 위로는 《靈樞》《素問》의 傳함을 거슬러 올라가니 이는 그 모범이다. 그러나 呂廣과 楊玄操 이후로부터 注釋이 모두 十餘家가 있고 擗寧生(滑壽)의 詮解가 더욱 갖추어 있으나 그러나 말이 더욱 많아지면서 뜻은 더욱 어두워지니 예를 들어 三焦와 胞絡은 본래 有形이나 〈二十五難〉에 無形이라 하고 兩腎은 모두 藏精하나 〈三十六難〉에 右腎으로 藏精系包의 命門으로 삼거늘 滑擗寧(滑壽)가 글을 따라 注를 풀어내니 折衷할 것이 없다. 이로써 古今에 소송을 모으게 되었다. 이 莫翁丹子가 注한 것이 모두 《素問》《靈樞》를 根本하여 바로 잡으니, 《難經》에서 의심나게 된 것을 잡아서 그 치우침을 보존함에 구애받지 않고 《難經》에서 믿을 만한 것은 바로 옳히 그 쌓인 것을發하였다. 이는 그 말이 源流가 있어서 이해되고 통하고 깨닫고 베풀어서 곧바로 千百年以上을 거슬러 올라가니 功이 어찌 張李劉朱의 뒤에 있으리오! 丹子가 일찍이 말하되 醫師는 三指의 아래로써 사람의 生死를 결정하니 所任이 가장 重하기 때문에 모름지기 苦心하여 《內經》의 奧妙한 뜻을 窮究하여 三才의 道를 통하고 다하여야 한다고 말하니 이는 대개 神聖의 마음이 있는 뒤에야 可히 神聖의 道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黃帝가 깊은 연못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迎浮가 脈은 알기 어우니 오직 黃帝도 오히려 그렇게 여겼다 말하였다. 《難經》 〈四十一難〉에서 〈六十一難〉에 이르기까지 모두 診候 病能和 臟腑 積聚와 傷寒 雜症의 區別을 말하고 望聞問切로 이으니 可히 醫의 能事를 다 말하였다고 할 수 있다. 丹子가 다시 崔紫虛가 지은 《四言脈要》를 모아서 條目を 나누고 상세히 밝히니 大抵 《靈樞》《素問》《脈經》《難經》의 뜻을 根本하고 高陽生《脈訣》의 잘못된 것을 分辨하여 經에 合하는 것은 따르고 經에 어그러지는 것은 내쳐서 犀角을 태우

49) 刀圭(도규): ① 藥을 뜨는 숟가락, ② 轉하여 醫術

50) 孜孜(자): 힘쓰다, 급급하다, 부지런하다

51) 茫(망): 아득하다, 빠르다

52) 邸(저): 제후가 서울에 머무르는 宿舍, 집, 宿舍

48) 寄(기): 부치다, 맡기다, 위탁하다

는 것 같고 불을 보는 것과 같으니(밝으니) 이로써 病을 낮게 하고 痼疾病을 고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많게 되었다. 또한 李月池《脈學》을 編後에 기술하여 後學의 (연구하는) 다리역할을 삼으니 功이 돌이켜봄에 위대하지 않으리오! 내가 《靈樞》 《素問》의 책에 마음을 둔지 오래여서 우연히 알게 되면 기록만 해두고 감히 가벼히 醫術로 시험을 해보지 않았더니 이제 丹子の 말을 읽어 봄에 승하는 것이 있다. 范文正公이 어진 宰相이 되지 않으면 어진 의사가 되기를 배우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으니 내가 밥을 먹고 난 한가한 때에 오히려 《內經》一編에 부지런히 하여 그 會通 曉暢을 求하니 옛날의 神聖의 道가 아득히 그 끝이 있지 않음을 바라보아 알겠다. 丹子の 約理에 사람이 나이가 八十에 醫事를 비로소 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니 저이기 또한 道를 배우는데 免하지 않음을(나이가 너무 많아도 오히려 배울 수 있음을) 다행히 여기도다. 따라서 序를 하여 아울러 언급한다.

康熙 甲寅 立秋一日에 陶雲 錢捷은 燕邸에서 序하노라

【考察】

本編은 《難經》과 《內經》과의 관계, 歷代注釋家의 단점, 《難經》의 내용, 序文을 지은 동기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難經》은 《內經》의 傳함을 根源한 것으로 《內經》의 본보기 모범이 되는 것이다.

歷代注釋家의 단점은 注釋家의 수가 많으나 말이 많을수록 뜻이 어두워지고 《難經》의 글만 따라서 注釋하고 풀이하여 注釋家마다 반박이 더욱 많아지기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本注釋은 《內經》을 근본으로 하여 바로 잡고 《難經》에서 믿을 만한 것을 發明한다는 것이다.

醫師는 診脈으로 사람의 死生을 결정하니 《內經》의 深奧한 뜻을 연구하여 三才의 道에 通하여야만 하며 또한 黃帝도 오히려 脈을 어렵게 여긴 것처럼 《難經》의 內容도 脈法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여 診候 病能 藏府 積聚 傷寒 雜病 등을 말하고 望聞問切로 계속하여 醫道를 다했다는 것이다.

序文을 지은 동기로는 본주석가(丹子 즉 張景臯)가 崔紫虛의 《四言脈要》와 李月池의 《脈學》을 모으고 책뒤에 부친 것을 보고 序文을 지은 이(錢捷)가 평소에 《內經》을 공부하다가 깨우친

내용과 합하며, 良相이 되지 못하면 良醫가 되는 것이 낮고 나이가 팔십에야 비로소 醫業을 할 수 있다는 말로 인하여 序文을 지었다고 하였다.

10. 難經經釋 丹波元簡序

【原文】

難經이 爲秦越人所作은 歷世注家 | 無復異論焉이라 閩漢藝文志에 有扁鵲內外經하고 隋經籍志에 始載黃帝八十一難之目이라가 至舊唐志하야 據楊玄操序語 하야 遂云秦越人撰이라하니 并不可考라 要之 尙古대 文辭簡古하고 理趣深淵하니 出于戰國秦漢之間은 無疑矣오 而其爲書 | 一本內經之精要하야 以發其蘊奧로되 而較諸素問靈樞之義면 往往有相詭者는 是果何也오 素問靈樞은 舊稱古之內經이나 而取兩書較之면 亦往往有其義相乖者하니 內經中에 已如此하고 又取素問靈樞하야 而篇篇較之면 其言이 有前後相畔者하니 一書中에 亦復如此어늘 況難經은 雖原內經이나 而其實은 別是一家言이니 春秋三傳이 各異其辭하니 古之說經立言이 率皆爲然이니 亦何遽取彼而律此하고 舉此而廢彼하리오 所謂道并行而不悖者乎인저 吳江徐大椿靈胎는 著難經經釋二卷하야 疑其不可定爲秦越人作 하니 其見誠卓이나 而至取素問靈樞而辨駁之하얀 則似未允焉이라 然이나 其以經釋經하야 一於不襲舊注하야 參證互明하며 其詞簡而意豐⁵³⁾하야 使深文奧義로 燦然于片言只句하니 而于彼此合否異同之際에 掇⁵⁴⁾揀得失하고 勾⁵⁵⁾校錄⁵⁶⁾錙⁵⁷⁾하니 殆極其精微者 | 前無古人矣리니 豈引緯注禮로 以考解易之比乎리오 則其爲難經之指南이니 必有所發悟라 嗚呼라 其有功于醫學하니 不亦⁵⁸⁾乎아 余 | 已刊靈胎傷寒類方하니 則是書를 不宜無刻하야 遂⁵⁹⁾工入梓하야 弁數語하야 以⁶⁰⁾諗讀者云이라

寬政庚申秋七月望에 丹波元簡廉夫는 撰하노라

【解釋】

《難經》이 秦越人이 지었다는 것은 歷代의 注

53) 豐(창): 자라다, 성장하다, 鬱鬱酒
54) 掇(기): 끝다, 끌어당기다, 한쪽만 끝다, 의지하다
55) 勾(구): 굽다, 갈고리
56) 銖(수): 무게의 단위, 一兩의 二十四分之 一
57) 錙(치): 저울눈, 무게의 단위, 적은 양
58) 躉(위): 바르다
59) 葢(천): 경계하다, 바로잡다, 갖추다, 풀다
60) 諗(심): 고하다, 꾀하다, 생각하다

가 다시 異論이 없었다. 《漢·藝文志》에 《扁鵲內外經》이 있고 隋《經籍志》에 비로서 《黃帝八十一難》의 題目이 있다가 《舊唐志》에 이르러 楊玄操의 序文에 根據하여 마침내 秦越人 撰이라고 기재하였으니 아울러 살펴볼 수 없다. 요컨대 말과 글이 簡潔하고 古雅하고 理致의 향한 바가 깊고 멀으니 戰國秦漢의 사이에 나온 것은 疑心할 것이 없고 그 글됨이 한편으로 《內經》의 精要에 根本하여 그 쌓이고 奧妙한 것을 發하되 《素問》《靈樞》의 뜻에 比較하면 종종 서로 어긋나는 것이 있는 것은 이는 과연 어찌된 것인가? 《素問》《靈樞》은 옛날에 《內經》이라 稱하였으나 兩書를 取하여 比較해 보면 또한 종종 그 뜻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 있으니 《內經》中에 이미 이와 같고 또한 《素問》《靈樞》을 取하여 篇마다 比較하면 그 말이 前後가 서로 배반하는 것이 있으니 一書中에 또한 다시 이와 같거늘 하물며 《難經》은 비록 《內經》을 根源하였으나 그 實際로는 별도로 一家의 말이니 《春秋》三傳이 各各 그 말을 달리 하니 옛날의 說經과 立言이 모두 다 그러하니 또한 어찌 문득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법칙으로 삼고, 이것을 들고 저것을 廢하리오! 이른바 道가 并行하되 어그러지지 않는 것인저! 吳江 徐大椿 靈胎는 《難經經釋》二卷을 지어서 그 可히 秦越人이 지은 것으로 定하지 못하는 것을 의심하니 그 見解가 진실로 卓越하나 《素問》《靈樞》를 取하여 分辨하고 反駁하는데 이르러서는 믿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그 經으로써 經을 解釋하여 하나라도 舊注를 무조건 따르지는 않아서 서로 서로 證明하며 그 말이 簡潔하고 뜻이 퍼져서 깊은 글과 오묘한 뜻으로 하여금 斷片的인 말과 조금의 句節에 밝히니 彼此의 合하고 合하지 않고 같고 다름의 사이에 得失을 끌어 놓고 좁고 같고리질하고 校正하고 되질하고 저울질하여 거의 그 精微한 것을 다한 것이 前에 古人에는 없으리니 어찌 《緯》를 인용하여 《禮記》를 注하여 《易》을 살피고 解釋함에 比하리오! 즉 그 《難經》의 指南이 되니 반드시 發하고 깨달은 바가 있으리라. 아아! 그 醫學에 功이 있으니 또한 巴르지 않는가! 내가 이미 靈胎의 《傷寒類方》을 刊行하니 즉 이 글을 간행하지 않음이 마땅하지 않아서 마침내 公業을 바로 잡아 목수일에 들이니 두어 말을 머리에 써워서 독자에게 띄운다.

寬政 庚申 가을 七月 보름에 丹波元簡 廉夫는 짓노라.

【考察】

本編은 《難經》의 저자, 《難經》과 《內經》과의 관계, 本注釋의 장단점 등을 기술하고 있다.

《難經》의 저자는 흔히 秦越人으로 알고 있으나 《漢書藝文志》에는 《扁鵲內外經》이라고만 되어 있고, 《隋書經籍志》에는 《黃帝八十一難》이라는 제목만 있다가, 《舊唐志》에 이르러서야 楊玄操의 序文에 의하여 秦越人이 지었다고 하였으니 믿기는 어렵고, 丹波元簡이 《難經》의 글과 이치를 살펴보면 戰國과 秦漢時代에 나온 것은 틀림이 없다고 하였다.

《難經》과 《內經》과의 관계는 《內經》의 精要에 근본하여 蘊奧를 발취한 것이나, 《素問》과 《靈樞》의 뜻을 비교해 보면 모두 《內經》이지만 서로 어긋나는 것이 있고 《素問》과 《靈樞》를 취하여 篇마다 비교해 보면 그 말이 前後가 서로 반대되니 한 책에도 이와 같으니 《難經》은 비록 《內經》에 근본하였으나 그 실제로는 一家의 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本注釋의 장점은 秦越人이 지었다고는 확정할 수 없다고 의심한 것은 그 견해가 탁월하고 《內經》으로 《難經》을 해석하여 옛 注를 한결같이 따르지 않고 《難經》과 《內經》을 서로 證明하여 간략하고도 분명히 發明하였으며, 그 단점은 《素問》《靈樞》을 취하여 分辨하고 반박하였으나 진실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

11. 古本難經闡注 張基序

【原文】

難經者는 靈素之精華也라 靈素는 猶多假托이나 難經은 則扁鵲手著之書이니 繼往聖開來賢하니 允爲 醫臨之準의이라 奈古籍久涅하야 世傳多誤하니 由是로 解者 臆度하야 毒刺狐疑할새 難經晦하야 而 靈素不彰하고 靈素不彰하야 而 醫道 或幾乎息矣라 余問至 吳門하야 訪求 醫學하야 遇 歛⁶¹⁾友金子하야 贈古本難經할새 讀之則綱舉目張하고 脈通絡貫하야 視世傳之錯謬에 不啻拔雲霧而睹霄漢矣라 乃 遍考諸家하야 逐一校對하니 無如此卷之經明注釋者라 寶之篋中하야 携貴付棗梨하야 以公同志 幸得好古之士로 力贊斯役하야 不數月而書成하야 俾數千年隱晦之書로 一旦光昭宇內하니 是醫書之行은 亦即凡有疾苦者之厚幸也라 其功이 顯不偉歟아 故

61) 歛(좁): 줄이다, 거두다, 초목이 바람에 움직이는 소리

로 略序其梗概하야 以志不忘所自云이라
嘉莊五年歲次庚申仲春에 近溪張基는 序하노라

【解釋】

《難經》이란 것은 《靈樞》《素問》의 精華이다. 《靈樞》《素問》은 오히려 假托하는 이가 많으나 《難經》은 즉 扁鵲이 손으로 지은 글이니 지나간 聖人을 잇고 앞으로 올 賢人에게 열어주니 진실로 醫業에 臨하는 基準과 과녁이다. 어찌 옛 書籍이 오래도록 어지러워져서 代代로 傳하 것이 그릇되는 것이 많으니 이로 말미암아 解釋하는 者가 臆測으로 헤아려서 독가시와 같고 여우의 의심과 같아서 《難經》이 어두워져서 《靈樞》《素問》이 밝혀지지 않아서 醫道가 或 거의 그쳐지게 되었다. 내가 吳門에 이르러 물어서 醫學을 求하고 물어서 欽友金子를 만나서 《古本難經》을 주길래 읽어보았다니 綱目이 배풀어지고 脈絡이 貫通하여 世上에 傳해지는 錯謬를 봄에 雲霧를 헤치고 무지개와 은하수를 보는 것뿐만 아니었다. 이에 諸家를 두루 살펴보아 마침내 일일이 校正하고 比較하니 이 책처럼 經이 밝고 注가 풀어진 것이 없다. 상자에 넣어 貴히 보관하야 귀하게 가지고 있다가 간행을 부탁하야 公의 同志가 다행히 옛것을 좋아하는 선비를 얻어서 힘써 이 일에 도와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책이 이루어져서 數千年동안 숨어 어두운 글로 하여금 하루 아침에 宇宙에 빛나고 드러나니 이는 醫書가 行함이 또한 즉 모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두터운 다행이 있는 것이다. 그 공이 돌이켜보면 위대하지 않은가! 따라서 대략 그 大綱을 序하여 근원한 바를 기록하여 잊지 않게 한다.

嘉莊五年 歲次庚申仲春에 近溪 張基는 序하노라

【考察】

本編은 《難經》과 《內經》과의 관계, 《難經》의 저자, 本注釋의 장점 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難經》은 《內經》의 精華로서 《難經》에 어두우면 《內經》을 알지 못하고, 《內經》을 알지 못하면 醫道가 廢하게 된다고 하였다.

《難經》은 秦越人이 손으로 직접 쓴 책으로서 醫師가 臨하는 표준이 된다고 하였다.

本注釋의 장점은 綱目이 서고 脈絡이 貫通하여 세상에 전해오는 誤謬를 환히 알 수 있다는 것이

다.

12. 古本難經闡注 嚴茂源序

【原文】

余少學醫하야 從雲間嗣宗何夫子游라가 近僑⁶²⁾ 寓金閨⁶³⁾하야 常與上洋王修沈子로 究論醫典하니 農軒之訓은 猶之六經이니 扁鵲 仲景은 猶私淑尼父之孟氏라 是以로 內難傷寒은 實醫門鼎足之三經也라 自漢而下로 名賢繼出者 惟本此而已라 後代作者 非不各有發明 이나 然이나 日就褊⁶⁴⁾淺러니 致今之學者하야 樂淺而畏深하고 趨末而忘本이라 嗚呼라 經義不明 이면 醫術奚恃며 安得有好奇古之事를 尙論이리오 三經은 引宋仁宗朝嘉祐古事하야 上請聖天子하야 詔⁶⁵⁾儒臣及精通其事者하야 參古酌今하야 編纂全書하야 頒行宇內하니 爲萬世蒼生計乎인저 適有客告余호대 曰向之所謂難其人者를 今得之矣니 姓은 丁氏요 號는 適廬라 從茸城하야 携古難經하야 加以闡注하야 來吳就梓라하니 余聞子하고 始則異하고 旣則疑라가 因憶先師曾述宋時丁德用難經補注에 言華元化 得越人書하야 被執乃燼요 今之流傳者는 皆吳太醫令呂廣이 重編이니 文多錯簡하고 辭意難明하며 十七家之注는 如滑氏等 이 僅存疑義나 莫從考證하니 或有古本이나 惜未顯于世耳라 今子所聞은 莫非吳氏之古本歟아 客 曰 否라 因偕⁶⁶⁾沈子訪之하야 見其人하니 飄然⁶⁷⁾鶴髮⁶⁸⁾이니 非世俗之流요 讀其書하니 非素見之書라 方知難經은 本來辭明理貫하야 并無一字衍義 라 故로 東坡楞伽跋에 云如醫之難經은 句句皆理요 字字皆法하니 必有見而云然이며 益徵師言有自矣라 噫라 二千餘年若晦若滅之書 一旦復顯하야 使天下人로 知八十一難이 乃越人之注內經也요 而先生之文은 又疏越人之注義也이라 一若中天之日하야 織微畢照하니 將見此本一出면 則十七家之本은 可盡廢矣리라 先生이 已成不朽之功하니 豈常人所能及哉리오 丁子 避席曰河圖洛書는 因聖人而出이요 世秘之書는 俟聖朝而顯하니 此는 亦理數之使然也

62) 僑(교): 타관살이하다. 임시적인 거처, 높다

63) 閨(천): 天門, 門, 가을바람

64) 褊(편): 좁다

65) 詔(조): 고하다, 알리다, 조칙하다

66) 偕(해): 함께, 적합하다, 가지런하다

67) 飄然(표연): ① 定處없이 떠돌아 다니는 모양, ② 바람에 가볍게 날리는 모양

68) 鶴髮(학발): 노인의 白髮

라 我 | 何人斯하야 而敢與其功焉이리오하니라 余
因樂其遇하고 而紀其事하야 敬述于簡末이라

乾隆三年戊午陽월에 洞庭菊坡居士嚴茂源은 書하
노라

【解釋】

내가 어려서 醫를 배워서 雲間 嗣宗 何夫子를
좃아서 遊學하다가 요즈음에 金閨에 塔觀살이하어
항상 上洋 王修 沈子와 함께 醫典을 研究하고 論
하니 神農 軒轅(黃帝)의 가르침은 六經과 같으니
扁鵲과 仲景은 仲尼를 私淑한 孟子와 같다. 따라
서 《內經》《難經》《傷寒》은 실제로 醫門의 鼎
足에 해당하는 三經이다. 漢代 以下로부터 名賢이
계속 나오는 것이 오직 이에 근본했을 따름이다.
後代에 지은 者가 各各 發明한 것이 있지 않은 것
은 아니나 그러나 날로 좁아지고 알아지더니 지금
에 이르러서 알은 것을 좋아하고 깊은 것을 두려
워하고 끝을 좃고 根本을 잇는다. 아아! 經義가
밝지 않으면 醫術이 어찌 의지할 것이며 어찌 옛
것을 좋아하는 일이 있음을 오히려 論하리오! 三
經은 宋代 仁宗朝 嘉祐의 古事를 引用하여 위로
聖스런 天子께 請하여 儒를 익힌 臣下와 그 일에
精通한 者에게 詔勅하여 옛것을 參考하고 지금 것
을 斟酌하여 全書를 編纂하여 全國에 頒布하니 萬
世의 蒼生을 위한 計劃인지! 마침 客이 있어 나에
게 向이 말한 바 그 사람을 어렵게 여긴다 하는
자를 이제 알았으니 姓은 丁氏요 號는 適廬이라고
말하였다. 茸城을 따라서 《古難經》을 가지고 다
녀서 闡注를 더하여 吳에 와서 목수에게 맡겼다고
하니 내가 그에게 듣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다
고 이윽고 疑心하다가 先師가 일찍이 宋時의 丁德
用《難經》補注에 華元化가 越人의 書를 얻어서
가지고 있다가 이에 타버린 것이라고 하였고, 지
금에 전해오는 것은 모두 吳 太醫令 呂廣이 重編
한 것이니 글이 錯簡이 많고 글뜻이 밝히기 어려
우며, 十七家의 注는 예를 들어 滑氏 등이 겨우 의
심나는 뜻을 보존하였으나 좃아 고증할 것이 없으
니 혹 古本이 있는 것이나 애석하게도 世上에 나
타나지 않았을 뿐이라는(先師의 말을) 기억하였
다. 이제 자네가 들은 것은 吳氏의 古本이 아닌
가? 하였더니 客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沈
子와 함께 訪問하여 그 사람을 보니 飄然하고 白
髮이니 世俗의 사람이 아니고 그 글을 읽어보니
평소에 보던 글이 아니었다. 바야흐로 《難經》은
本來에 글이 명확하고 理致가 貫通하여 아울러 一

字도 衍義가 없음을 알았다. 따라서 東坡의 《楞
伽跋》에서 말한 醫의 《難經》은 句節마다 모두
理致이고 글자마다 모두 法이라 한 것과 같으니
반드시 (蘇東坡는 古本の 《難經》을) 보고 나서
그렇게 말한 것이며 더욱 스승의 말에 근거가 있
음을 徵驗하는 것이다. 아아! 二千餘年동안 어둠
고 없어졌던 것같은 책이 하루아침에 다시 나타나
서 天下의 사람으로 하여금 《八十一難》이 越人
이 《內經》을 注한 것이고 先生의 글은 또한 越
人의 注義를 疏한 것임을 알게 한다. 한번에 中天
의 해와 같아서 미세한 것까지 짜내고 밝은 것을
다해내니 장차 이 注本이 한번 나오면 十七家의
注本은 可히 다 廢할 것이다. 先生이 이미 不朽의
功을 이루니 어찌 보통사람이 능히 미칠 수 있는
바리오! 丁子(丁錦)가 자리를 피하면서 《河圖》
《洛書》는 聖人으로서 인하여 나온 것이고 世上의
秘書는 聖朝를 기다린 다음에 나타나니 이는 또한
理數로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敢
히 그 功에 참여하리오라고 하였다. 내가 그를
(丁錦을) 만난 것을 즐겨하고 그 일을 기록하여
簡末에 공경히 기술한다.

乾隆三年 戊午陽월에 洞庭 菊坡居士 嚴茂源은
쓰노라

【考察】

《難經》과 《難經》과 儒書와의 비교, 《古本
難經》의 습득 과정, 《難經》과 《內經》과의 관
계와 本注釋의 장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難經》과 儒書와의 비교에는 神農과 黃帝가
지은 것은 儒書의 六經과 같고 《難經》을 지은
扁鵲과 傷寒論을 지은 仲景은 仲尼(孔子)를 私淑
한 孟子和 같아서 《內經》 《難經》 《傷寒論》
이 함께 醫門의 三經이 된다고 하였다.

《古本難經》의 습득 과정은 序文의 지은이(嚴
茂源)가 우연히 客으로부터 丁錦이 古本에 闡注를
加하였다고 듣고 직접 그를 찾아가 그 책을 얻어
보았다고 하였다.

《難經》은 秦越人이 《內經》을 注한 것이고
本注釋은 《難經》을 注한 것이며, 그 장점은 글
이 분명하고 이치가 관통하고 一字도 衍文이 없
는 것이다.

13. 古本難經闡注 趙春普序

【原文】

蘇文忠公이 謂難經은 如佛之楞伽經이니 句句皆

理요 字字皆法이니 後世達者 | 神而明之하야 無不可者하니 若出新意而棄舊學하야 以爲無用이면 非愚則狂耳라 文忠은 蓬⁶⁹⁾于禪하고 而旁通于醫하니 其說이 必有卓識하고 且以宋上距春秋之末로 雖歷千五百餘年이나 而扁鵲之書規模當在하야 未遭俗手紊亂하니 文忠所見은 必皆古本이라 故로 議論이 著于文集者 | 如此러니 今世坊本은 傳寫失真하야 禪篇之先後顛倒하야 胎⁷⁰⁾誤良多하니 雖精博如靈胎先生이라도 尙未免承訛浴謬하니 他更無論矣라 乾隆初에 適廬老人이 始得古本이라가 至嘉莊庚申하야 張近溪이 梓之 하니 迄今甫六十年이여늘 而江南兵燹⁷¹⁾할새 書版罕存하니 此書 | 尤無從覓⁷²⁾購니 惜哉라 普는 學識이 淺薄이나 幼誦難經하고 先君子朝夕講授하야 且訓之曰 人生百年에 必有一二事하니 裨益天下後世라야 乃不負此生이라하시니 普 | 服膺庭訓하야 數十稔⁷³⁾不敢忘이라 先君子 | 嘗著醫學指歸一書하야 已付梓竣⁷⁴⁾工하고 而是經有益萬世하고 又系善本하야 尤當鐫刻하야 因努力授劔⁷⁵⁾刪⁷⁶⁾氏하야 以繼近溪之後하니 云友人有勉普著書立說者하니 自知簡陋不堪問世하고 且聞唐人許允宗이 云脈之候는 幽而難明하니 吾意所解는 口不能宣이라하니 旨哉라 斯言이여 可謂先得我心者라 東坡 | 戒人出新意而棄舊學이여늘 普 | 若蔑⁷⁷⁾古荒經하야 妄有著作하니 何異談禪者 | 不讀楞伽하고 但求捷效哉리요 抑鄙人 | 更有說焉이라 扁鵲撰八十一難은 所以發明內經之義하니 夫越人은 醫家神聖也요 而其書 | 不過述黃岐之旨하고 未敢別創新奇하야 以自夸⁷⁸⁾耀이여늘 況今人乎아 史記에 稱長桑君이 取禁方하야 授扁鵲이라하니 果爾면 則扁鵲은 當以禁方으로 傳弟子이여늘 乃難經以外에 不聞更有禁方하니 史太公言을 豈可盡信이리오 蘇文忠留候論에 謂圯⁷⁹⁾上老人은 蓋秦之隱君子이여늘 而世以爲鬼物하니 過矣라하니 普 | 亦竊疑越人之學은 非長桑所授요 乃其讀內經하야 能神而明之耳라 史所云 長桑君은 忽然不見하니 殆非人也라하고 又云扁鵲이 視見垣一方人이라하니 似齊東野人之語이니 未必實有其事요 司馬 | 好奇하야 采入列傳耳라 夫儒釋諸經은 其次第 | 多後學考定이여늘 惟盧醫此編은 自定하야 次第數目 | 秩然하니 蓋預防後人紊亂이여늘 乃紊亂竟不得免하니 甚矣로다 書籍傳世之難也여 今原本을 既獲하야 幸而鏤⁸⁰⁾諸棗梨언마는 又不幸而毀于寇賊하야 昔人濟世之書 | 顯而復晦하니 則重刻을 烏可已哉이오

同治三年歲次甲子仲秋에 高郵⁸¹⁾趙春普는 書于旌⁸²⁾孝堂하노라

【解釋】

蘇文忠公(蘇東坡)이 《難經》은 佛家の 《楞伽經》과 같으니 句節마다 모두 理致이고 글자마다 모두 法이니 後世의 達者가 神처럼 밝혀서 可한 것이 없지 않으니 만약 新意를 내고 舊學을 버려 無用하다고 여기면 어리석은 이가 아니면 미친 자일 뿐이라 하였다. 文忠은 禪에 深奧하고 醫에도 두루 通했으니 그 말이 반드시 卓見이 있고 또한 宋以上 春秋의 末까지 (시간적) 거리가 비록 千五百餘年을 지났으나 扁鵲의 글이 規模가 마땅히 있어서 俗人의 손에 紊亂됨을 만나지 않았으니 文忠이 본 것은 반드시 모두 古本이다. 따라서 議論이 文集에 드러난 것이 이와 같더니 今世의 坊本은 傳寫할 때 진본을 잃어서 篇의 先後로 하여금 顛倒되게 하여 그릇된 것을 남긴 것이 진실로 많으니 비록 精密하고 博識하기가 徐靈胎先生과 같더라도 오히려 그릇된 것을 繼承하고 잘못된 것에서 迷惑함을免하지 못하였으니 다른 이는 다시 논할 것도 없다. 乾隆初에 適廬老人이 비로소 古本을 얻었다가 嘉莊 庚申에 이르러서 張近溪가 목수질하니(刊行하니) 지금까지 겨우 六十年이거늘 江南에서 전쟁으로 불이 나서 책의 版本이 드물게 보존되니 이 책이 더욱 求하고 사볼 데가 없으니 애석하도다. 普는 學識이 淺薄하지만 어려서 《難經》을 외고 先君子께서 朝夕으로 講論하고 授業하여 또한 가르치기를 人生의 百年에 반드시 한두가지 일이 있으니 天下後世를 돕고 더하게 하여야 이에 이 생을 빛지지 않는다 하였으니 普가 家訓

70) 胎(이): 끼치다, 남기다, 전하다

71) 燹(선): 野火, 들불, 불, 그을려 타다, 난리로 타다

72) 覓(역): 찾다, 구하다, 결눈질

73) 稔(임): 해, 년, 곡식이 여물다

74) 竣(준): 마치다, 끝나다, 물러나다, 그치다

75) 劔(기): 새김칼, 노락질하다, 나라 이름

76) 刪(결): 새김칼, 조각칼

77) 蔑(멸): 업신여기다, 버리다, 없애다

78) 夸(과): 자랑하다, 아첨하다, 크다, 뻔다

79) 圯(비): 무너지다, 무너뜨리다

80) 鏤(계): 새기다, 낫, 꿰다, 모질다

81) 郵(우): 驛站(역참), 驛遞(역체), 역말을 갈아타는 곳

82) 旌(정): 깃발

69) 蓬(수): 깊다, 깊숙하다, 심오하다

을 服從하고 가슴에 새겨서 數十年 동안 敢히 잊지 않았다. 先君子께서 일찍이 《醫學指歸》一書を 지어서 이미 목수에게 부탁하여 工業을 마쳤고 이 經이 萬世에 利益이 있고 또한 善本에 속하여 더욱 마땅히 刊行해야 하기 때문에 인하여 努力하여 조각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張近溪의 뒤를 잇게 하니 벗이 普에게 著書立說하는데 힘쓰는 者라고 말하니, 疏略하고 鄙陋하여 감히 세상에 내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고 또한 唐人 許允宗이 脈의 證候는 그욕하여 밝히기 어려우니 내 뜻에 이해한 것은 입으로 꺼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뜻이 있도다. 이 말이여 可히 먼저 내 마음을 얻었다 말할 수 있도다. 東坡가 사람이 新意를 내어서 舊學을 버리는 것을 警戒하였거늘 普가 옛것을 멸시하고 經을 荒廢하게 하여 합부로 著作을 하는 것과 같으니, 禪을 말하는 者가 《楞伽》을 읽지 아니하고 다만 빠른 效과만을 구하는 것과 어찌 다르리오! 그렇지 않으면 미친한 사람이 다시 說이 있음이라. 扁鵲이 《八十一難》을 지음은 《內經》의 뜻을 發明한 것이니 무릇 越人은 醫家の 神聖이고 그 책은 黃帝와 岐伯의 뜻을 기술한 것에 不過하고 敢히 別途로 新奇한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랑하고 빛내지 않았거늘 하물며 지금 사람에게라! 《史記》에 長桑君이 禁方을 취하여 扁鵲에게 주었다고 稱하니 과연 그렇다면 扁鵲은 마땅히 禁方으로써 弟子에게 傳授했거늘 이에 《難經》以外에 다시 禁方이 있다고 듣지 않았으니 史太公의 말을 어찌 可히 다 믿으리오! 蘇文忠《留侯論》에 圯上老人은 대개 秦의 숨은 君子이거늘 세상에서 鬼物이라 여기니 지나치다고 말하였으니 普가 또한 저오기 越人의 學問은 長桑君이 授業한 것이 아니고 이에 그가 《內經》을 읽고 能히 神과 같이 밝힌 것일 뿐이라고 의심한다. 《史記》에서 長桑君은 忽然히 나타나지 않으니 거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였고 또한 扁鵲이 담장의 한쪽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고 말하니 齊東의 野人의 말과 같으니 반드시 실제로 그 일이 있는 것은 아니고 司馬遷이 奇異한 것을 좋아하여 《列傳》에 모아서 넣었을 뿐이다. 무릇 儒家와 釋家의 諸經은 그 次第가 後學이 살펴서 定한 것이 많거늘 오직 盧醫의 이 編(《難經》을 말한다)은 스스로 定해져서 次第와 여러 條目이 秩序整然하니 대개 後人이 紊亂하게 하는 것을 豫防한 것이거늘 이에 紊亂하게 됨을 마침내 免하지 못하니, 甚하다도! 書籍이 世上에 傳해지는 어려움이여. 이제 原本을 이미

얻어서 다행히 棗梨(木板)에 새기건마는 또한 不幸히 盜賊에게 毀損되어 옛사람의 濟世하는 글이 나타났다가 다시 어두워지니 거듭 刊行함을 어찌 可히 그만두리오!

同治三年 歲次甲子仲秋에 高郵趙春普는 書于旌孝堂하노라

【考察】

《難經》과 佛書와의 비교, 《古本難經》임을 확신하는 내용, 再版의 배경 설명, 歷代《難經》의 단점, 《難經》과 《內經》과의 관계, 《難經》의 저자에 관한 내용, 《難經》의 傳世의 어려움 등을 기술하고 있다.

《難經》과 佛書와의 비교에는 《難經》을 佛書의 《楞伽經》에 비유하여 句節마다 理致이고 글자마다 法이라고 하였다.

本注釋書는 禪과 醫에 通했던 蘇東坡가 설명한 《難經》은 《古本難經》으로 句節마다 理致이고 글자마다 法인데 비하여 歷代 注釋書는 先後가 顛倒되고 誤謬가 많다고 하였다.

《難經》은 《內經》의 뜻을 發明한 것으로 黃帝와 岐伯의 뜻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뜻을 내서 舊學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難經은 扁鵲이 저술한 것이지만 《史記》에 의하면 그가 長桑君에게 禁方을 傳授받았다고 하였으나 扁鵲이 그 제자에게 禁方을 전해 주었다는 말은 없는 것으로 보아 長桑君에게 師受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難經》이 編次가 整然하여 後人들이 어지럽히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결국 다른 書籍처럼 어지럽혀져서 古本을 보기가 어려우며 古本이 나타났으나 盜賊을 만나서 다시 사라지게 된 것을 이번 에 또다시 刊行한다고 기술하여 《難經》의 傳世의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14. 增輯難經本義 周學海序

【原文】

難經은 繼靈素而起하여 爲醫經之正宗은 前人久無異議이러니 至徐靈胎氏하야 乃摘其紕⁸³⁾繆 甚衆하고 丁履中氏는 乃移其篇第하야 托言古本하고 金山錢錫之는 又因脈經하야 而扁鵲語不見難經하고 因難經語不稱扁鵲하야 疑難經이 非越人書也라 其言이 皆新奇可喜나 而未察其實也라 夫難經은 非全

83) 紕(비): 어그러지다, 꾸미다, 가선

書也며 非因內經之難明하야 而有意詮釋之也라 古之習于內經者 | 心有所會하야 撮記旨要하야 以期無忘焉耳이라 故로 有直抒⁸⁴⁾所見이니 不必出于內經者요 有竟取經文爲問答하니 絕不參以已說者라 察其所言은 皆內經之精粹요 不易之定法이니 其于大義에 已無不合이니 而不必如內經之詳且備也라 讀內經者는 必及難經이니 非讀難經이면 即可廢內經이라 後世 | 厭內經之繁而難通하야 但取難經而索之 하니 無怪其窒而滋之惑也라 卽如一難은 爲全書開宗이니 作者 | 豈肯率爾爲之언마는 乃後人이 攻擊하야 逐句皆疵라 夫寸口獨取하니 豈曰三部不參이오하며 營衛相隨하니 詎⁸⁵⁾云晝夜同道오하거든 況難經之有功于軒岐하야 而大賚⁸⁶⁾于天下萬世也리오 在于發明命門하얀 猶程子 | 爲孟子之有功于聖門 | 在發明性善也라하건마는 而後人則以此爲詬⁸⁷⁾病하니 將亦謂性善之說이 不見于論語而斥之耶아 內經三部九候는 但言身之上中下이러니 至越人하야 始兼以寸關尺 浮中沈하야 言之하니 自是로 寸口診法이 始精而備니 乃世不能易矣라 前有岐伯하고 後有越人하니 皆醫中之開辟草昧者也라 自宋以來로 注難經者 | 二十餘家나 滑氏以前에 多不可見이요 僅見明王九思所輯이라 今讀其詞한대 多繁拙⁸⁸⁾하고 而少所發明이라가 至滑氏하야 始能曉暢하고 徐氏는 雖好索癩나 猶可引人以讀內經也라 張天成氏와 丁履中氏는 庸⁸⁹⁾庸이 極矣로되 丁氏 | 尤多臆說이라 今主滑氏本義하고 其諸家之議可互發者를 附之하고 偶⁹⁰⁾參鄙見하니 則加按以別之하니 夫豈敢謂能羽翼經旨也리오 以視夫庸詞臆說이 橫肆詆⁹¹⁾誣⁹²⁾者 | 當有問矣일새 請以質之海內之明于斯道者하노이다

光緒十七年歲次辛卯長夏에 建德 周學海 澂⁹³⁾之는 記하노라

【解釋】

《難經》은 《靈樞》《素問》을 이어서 일어나서 醫經의 正宗이 되는 것은 前人이 오래도록 異議가 없더니 徐靈胎氏에 이르러서 이에 그 어그러지고 그릇된 것을 지적한 것이甚히 많고 丁履中氏는 이에 그 篇의 次例를 옮겨서 古本에 依託하여 말하고 金山 錢錫之는 또한 《脈經》으로 인하여 扁鵲의 말에 《難經》이 보이지 않고 《難經》의 말에 扁鵲을 稱하지 아니하여 《難經》이 越人

의 책이 아님을 의심하였다. 그 말이 모두 新奇하여 可히 좋으나 그 실체를 살피지 않은 것이다. 무릇 《難經》은 全書가 아니며 《內經》의 밝히기 어려운 것으로 因하여 뜻을 두어 詮釋한 것이 아니다. 옛날에 《內經》을 익히던 者가 마음에 이해한 바가 있어서 뜻의 요점을 모으고 기록하여 잊지 않기를 期約한 것일뿐이다. 따라서 본 것을 곧바로 풀이한 것이 있으니 반드시 《內經》에서 나온 것이 있지 않고 마침내 經文을 취하여 問答을 만든 것이 있으니 절대로 자신의 說을 더하지 않았다. 그 말한 것을 살펴보면 모두 《內經》의 精粹이고 바뀌지 않는 定法이니 그 大義에 이미 舍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반드시 《內經》처럼 자세하고 구비되지는 않는 것이다. 《內經》을 읽는 者는 반드시 《難經》에 까지 미치지 《難經》을 읽지 않으면 《內經》을 可히 廢하는 것이다. 後世가 《內經》의 煩雜하여 通하기 어려운 것을 싫어하여 다만 《難經》을 取하여 찾으니 그 막혀서 疑惑을 불어나게 하는 것이 怪異할 것이 없다. 즉 예를 들어 〈一難〉은 全書의 머리를 여는 것이니 작자가 어찌 즐겨 소홀히 만들었겠마는 이에 後人이 攻擊하야 句節을 좇아서 모두 흠을 잡았다. 무릇 寸口를 홀로 取하니 어찌 三部를 參考하지 않는가 말하며 營衛가 相隨하니 어찌 晝夜에 (循環하는) 道를 같이하는가 이르거늘 하물며 《難經》이 軒岐에 功이 있어서 天下萬世에 下賜한(이익을 준) 것이리오! 命門을 發明한 것에 있어서는 程子가 孟子가 聖門에 功이 있는 것이 性善을 發明한 것에 있다고 여긴 것과 같건마는 後人이 이것으로 꾸짖고 병통으로 삼으니 장차 또한 性善의 說이 《論語》에 나오지 않아서 排斥해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內經》의 三部九候는 다만 人身의 上中

85) 詎(거): 어찌, 무엇, 이르다, 적어도, 진실로

86) 賚(되): 주다, 하사하다, 위로하다

87) 詬(후): 꾸짖다, 책망하다, 자랑하다

88) 拙(졸): 못생기다, 우물하다, 무디다, 서투르다

89) 庸(부): 얕다, 천박하다, 걸겁질, 아름답다, 크다

90) 偶(우): 짝, 우연히, 人形

91) 詆(저): 꾸짖다, 비난하다, 욕하다, 들추어내다

92) 誣(기): 속이다, 거짓말, 꾀하다, 모의하다

93) 澂(정): 맑다

84) 抒(서): 푸다, 퍼내다, 펴다, 띠내다, 토로하다

下를 말하는 것이었더니 越人에 이르러서 비로소 寸關尺 浮中沈으로써 兼하여 말하니 이로부터 寸口의 診法이 비로소 精密하고 갖추어져 있으니 이에 代代로 能히 바꿀 수 없는 것이다. 前에는 岐伯이 있고 後에는 越人이 있으니 모두 醫中의 開辟이며 草昧인 것이다. 宋 以來부터 《難經》을 注하는 者가 二十餘家이나 滑氏以前에는 可히 볼 수 없는 것이 많고 다만 明의 王九思가 모은 것에서 볼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읽어 보니 번잡하고 갈뭇된 것이 많고 發明한 것이 적다가 滑氏에 이르러서 비로소 能히 깨닫고 펴지고 徐氏는 비록 恧을 찾기를 좋아하나 오히려 可히 사람을 이끌어서 《內經》을 읽게 하였다. 張天成氏와 丁履中氏는 淺薄하고 庸劣한 것이 至極하되 丁氏가 더욱 臆測한 說이 많다. 이제 滑氏의 《難經本義》를 主로 하고 그 諸家의 議論에서 可히 서로 發明한 것을 부치고 鄙陋한 (나의) 見解를 짝하고 參與시키니 즉 더욱 살피서 分別하니 무릇 어찌 능히 經旨를 羽翼한(도운) 것이라고 敢히 말하리오! 무릇 淺薄한 말과 臆測하는 說이 빗겨나가고 방자하고 비난하고 속인 것이 마땅히 사이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請以質之海內的 이 道(醫道)에 밝은 者에게 訂正하기를 請하나이다.

光緒十七年 歲次 辛卯 長夏에 建德 周學海 徵之가 記錄하노라

【考察】

本編에서는 《難經》과 《內經》과의 관계, 《難經》의 저자, 《難經》의 독특한 學說, 歷代 注釋의 장단점 및 本注釋의 장점을 기술하였다.

《難經》은 옛날에 《內經》을 익히던 者가 이해한 것을 요점을 기록하여 잊지 않게 한 것이므로 혹은 《內經》에서 인용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難經》은 全書가 아니며, 《內經》의 밝히기 어려운 것으로 인하여 해석한 것은 아니고, 《內經》의 精粹이며 바뀌지 않는 定法이므로 그 大義에는 舍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內經》과 같이 자세하고 반드시 갖추지 않았으며, 《內經》을 읽는 자는 반드시 《難經》까지 읽어야 하니 《難經》을 읽지 않으면 《內經》이 廢해진다고 하였다.

《難經》의 저자에 대해서는 錢錫之는 《脈經》으로 因하여 扁鵲의 말이 《難經》에 보이지 않고 《難經》의 말에 扁鵲이라 칭하지 않아서 《難經》이 越人의 책이 아니라고 의심한 것에 그르다고 하였다.

《難經》의 독특한 學說은 《內經》의 三部九候가 인체의 上中下를 말한 것이지만, 《難經》의 三部九候는 寸關尺 浮中沈을 兼하여 말하여 寸口 診法이 비로소 精密하고 갖추어 졌다고 하였고, 命門 學說을 發明한 것은 孟子가 聖門에 功이 있어서 性善을 發明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難經》의 의의는 獨取寸口와 命門 學說을 發明함으로써 岐伯以後로 醫의 황무지를 개척하였다고 하였다.

歷代 注釋의 단점은 難經의 注釋家가 이십여명이지만 滑壽以前에는 注釋한 자가 드물고, 王九思의 集注는 그 말이 煩雜 粗雜하며 發明한 것이 없고, 장점으로는 滑壽는 비로소 밝게 證明하고 徐靈胎는 恧을 잡기를 좋아하나 사람들이 《內經》을 읽게 하였고, 張天成과 丁履中은 所見이 같고 庸劣하되 丁氏가 더욱 臆測이 많다고 하였다.

本注釋의 장점은 滑壽의 《難經本義》를 위주로 하고 諸家의 뜻에서 發明한 것을 덧붙이고 자신의 說을 가하여 《難經》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15. 難經經釋 四庫全書提要^[1]

【原文】

國朝徐大椿이 撰이라 大椿有神農本草經百種錄이 已著錄이라 是書는 以秦越人八十一難經 有不合內經之旨者일새^[2] 據引經文하야 以駁正⁹⁴⁾之라 考難經컨대 漢藝文志에 不載라가 隋註에 始著於錄하니^[3] 雖未必越人之書라도 然이나 三國已有呂博望註本하고^[4] 而張機傷寒論의 平脈篇中에 所稱註說이 今在第五難中하니 則亦後漢良醫之所爲라^[5] 歷代以來로 與靈樞素問으로 並尊하야 絕無異論이러니^[6] 大椿이 雖研究內經이나 未必學出古人上언마는 遽相排斥하니 未見其然이어늘^[7] 況大椿所据者內經而素問全元起本이 已佚하고 其第七篇은^[8] 唐王冰始稱得舊本補之라하나 宋林億等校正은 已稱其天元紀大論以下 與素問餘篇로 絕不相通이라하니 疑冰取陰陽大論以補所亡이요^[9] 至刺法本病二篇하얀 則冰本亦闕하며 其間에 字句異同하고 其間에 又互有校改하며 註中에 題曰新校正하니 皆是면 則素問이 已爲後人所亂이요^[10] 而難經이 反爲古本이며^[11] 又滑壽難經本義에 列是書所引內經호대 而經本無之者 不止一條하니 則當時所

94) 駁正: 시비를 가려서 그릇된 것을 바로 잡음

見之本이 與今으로 亦不甚同이니^[12] 卽有舛⁹⁵誤
| 亦宜兩存이어늘^[13] 遽致以駁難經之誤하니 是何
異談六經者 | 執開元隸之本하야 以駁漢博士耶아^[14]

經學은 分大經小經하니 小經習者多어니와 大經
習者少라 靈素之與難經은 其大小之分이 至爲懸絶
하니 喜易惡難할새 小讀難經하고 便足以抵抗靈素
하니 宜其黨羽⁹⁶之衆이라 然이나 魑魅魍魎⁹⁷은
不能顯於光天하니 光日之下에 其亦稍衰歎乎인저

楊氏太素에 亦引八十一問하고 亦引呂注이라 然
이나 其文이 多爲後人認識하야 誤入正文하니 非楊
氏原文이오 如甲乙亦引難經者는 乃宋校語라 故로
太素有引難經하야 乃問於靈素之中者하니 亦如史
記⁹⁸本紀 世家中之有僞요 尙書⁹⁹百篇序는 非古
所有하니 丹波素問識에 屢言靈素爲宋人校改者 |
是也라

丹波脈學輯要에 不用寸關尺하고 而又疏證此書에
不知此書專爲寸關尺而作하고 辨部位立脈名하니 是
는 其兩大罪狀이어니와 餘皆小過하야 不足深咎라
後人喜之를 亦如備旨一說曉할새 自然通行村塾이라

【解釋】

難經經釋 二卷이다.

國朝(清代)의 徐大椿이 編纂하였다. 徐大椿은
《神農本草經百種錄》을 이미 지었다. 이 책(《難
經經釋》)은 秦越人의 《八十一難經》이 《內經》
의 뜻과 附合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經文에 근거
하고 引用하여 바로잡은 것이다. 《難經》을 살펴
보면 《漢書·藝文志》에 기재되지 않다가 《隋註
》에 비로소 記錄되니, 비록 (難經이) 반드시 越
人의 書가 아니라 하더라도, 三國에 이미 呂博望
의 註本이 있고 張機의 《傷寒論》의 〈平脈篇〉中
에서 稱한 註說이 이제 第五難中에 있으니 또한
後漢의 良醫가 지은 것이다. 歷代以來로 《靈樞
》, 《素問》과 함께 아울러 崇尚되어 결코 異論
이 없더니, 大椿이 비록 內經을 연구했으나 반드시
學問이 古人보다 뛰어난지 않건마는 갑자기
(《內經》으로 《難經》을) 서로 排斥하니, 그 과
연 그러한지는 보지 못했거늘, 하물며 大椿이 근
거로 한 《內經》은, 《素問》의 全元起本은 이미
佚失하고 그 第七篇은 唐代의 王氷이 비로소 舊本
을 얻어서 補充하였다고 稱하였으나 宋林億等의
校正은 이미 그 〈天元紀大論〉以下가 《素問》의

나머지 篇과 결코 相通하지 않는다고 稱하였으니,
王氷이 〈陰陽大論〉을 취하여 없어진 것을 補充하
였다고 疑心한 것이고, 〈刺法論〉〈本病論〉의 二篇
에 이르러서는 王氷本에도 또한 빠져있으며 그 사
이에 字句가 서로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며 그
사이에 또한 서로 校正 改正한 것이 있으며 註中
에 新校正이라고 題한 것이 있으니, 모두 이와 같
으면 《素問》이 이미 後人이 어지럽혀 놓은 것이
고 《難經》이 도리어 古本이 되며, 또한 滑壽의
《難經本義》에 이 책(《難經》)에서 《內經》을
인용한 것을 열거하되 《內經》에 본래 없는 것이
一條에 그치지 아니하니 當時에 본 板本이 今本과
또한 甚히 같지 아니하니 卽 어그러지고 그릇된
것이 있어 또한 마땅히 兩存하거늘 갑자기 難經의
그릇된 것을 反駁하는데 이르니 이는 六經을 말하
는 者가 開元間에 죄수들이 간행한 板本을 가지고
漢博士를 反駁하는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經學은 大經 小經으로 나뉘니 小經은 익히는 者
가 많거니와 大經은 익히는 者가 적다. 《靈樞》
《素問》과 《難經》은 大小의 구분이 지극히 다
르니, 쉬운 것은 좋아하고 어려운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難經》을 적게 읽고서 문득 《靈樞》와
《素問》에 抵抗하니 黨羽의 무리에 해당한다. 그
러나 도깨비들은 밝은 낮에는 나타나지 못하니 밝
은 太陽의 아래에 그 또한 조금씩 衰하고 드물어
질 것인저!

楊氏의 《黃帝內經太素》에 또한 八十一問을 引
用하고 또한 呂注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그 글이
흔히 後人이 기록하여 잘못해서 正文에 넣으니 楊
氏의 原文이 아니고 《甲乙經》에서 또한 《難經
》을 인용한 것과 같은 것은 宋代에 校正한 글이
다. 따라서 《黃帝內經太素》에 《難經》을 引用
하여 《靈樞》와 《素問》中에 삽입한 것이 있
니 또한 《史記》의 本紀와 世家中에 僞書가 있는

96) 黨羽: 무리, 黨徒, 일반적으로 貶義에 쓰
인다

97) 魑魅魍魎(리매망량) 도깨비

98) 史記: 漢代 사마천이 黃帝로부터 漢代 武
帝에 이르기까지의 三千餘年의 일을 적은
紀傳體의 史書로 모두 百三十卷이다. 十二
本紀, 十表, 八書, 三十世家, 七十列傳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 註解書로는 宋代 裴
駟(배인)의 集解, 唐代 司馬貞의 索隱, 張守
節의 正義가 있다.

99) 尙書(상서): 書經의 別稱

95) 舛(천): 어그러지다, 배반하다

것과 《尙書》 百篇序가 옛부터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으니 丹波元簡의 《素問識》에 여러번 《靈樞》와 《素問》이 宋人이 校正 改正한 것이라고 여러번 말한 것이 이것이다.

丹波元簡의 《脈學輯要》에 寸關尺을 사용하지 않고 또한 이 책을 疏證함에 不知此書이 오로지 寸關尺을 써서 지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部位를 辨別하고 脈名을 세웠으니 이는 그 兩大 罪狀이거니와 나머지는 모두 적은 허물이라서 깊이 책망하기에는 부족하다. 後人이 좋아하기를 또한 備旨一說이 밝은 것과 같이 여겨서 自然히 村塾에 通行하게 되었다.

【廖平注】

[1] 江蘇巡撫探進本이라 ○ 四庫全書一百五卷 醫家類에 存目이라

[2] 不止於此하니 詳見徐氏原敍라

[3] 由新唐書하야 乃題秦越人著하니 錢氏脈經跋에 駁之하니 是也라

[4] 呂註 乃僞託隋志호대 云已亡이라하거늘 今王氏集註本에 乃有之니 疑又後人所僞託이라

[5] 以平脈으로 爲仲景眞書하니 眞屬誤妄이라 其首七百餘字은 千金에 本稱爲脈法하야 贊之四字 句하고 亦出仲景矣라

[6] 宋元以後에 攻脈訣者 卽以攻難經하니 特未指實耳라

[7] 眞古는 可也라 据古經하야 攻僞書하면 明證 具在이어나와 但論是非는 不必以此較量이라

[8] 八十一篇中之一篇耳라

[9] 王注所補는 爲五行家의 政治學說하야 別爲一門이니 其說已明이라

[10] 不過篇章文字 小有異同은 經傳且不能免이어늘 何論醫書오 若如所謂孔門六經이면 孰爲至聖의 親寫定本을 亦可弁髦¹⁰⁰視之耶아

[11] 此 何異以申培詩序로 子夏傳 爲古書 리오

[12] 難經은 專爲創造兩寸診法而作은 當初自我作이라 古如彭氏 太素는 以脈으로 占休咎하니 經外別傳을 未嘗不可入이라하니 作者之林이 乃假託佛名하야 實行魔術이라 且其人이 粗識文義하고

不知著作體例하야 直錄經文하야 以爲問答하니 誤謬顛倒하야 動成差錯하니 如徐氏既攻其謬¹⁰¹는 乃囿¹⁰²於診兩寸法하야 曲爲排解하야 以爲別有師傳하고 丹波氏는 既屏寸關尺三部診法하니 其疏證이 又爲之回護라 今攷訂九種古診法컨대 則其書 出齊梁後하니 不惟仲景叔和 無一法相同이라 千金外台도 亦且屏絕弗道矣라

[13] 足以自立然後에 議兩存이니 若淺陋違反이면 自當加之하니 誅絶之法이라

[14] 提要는 醫學門이 最淺陋하니 撰此門者 大約與作難經者로 程度相等이니 如以靈樞로 爲僞作하니 使稍知醫學者면 何敢爲此狂悖之言이리오 以靈樞爲僞하면 自然以難經爲眞이리니 東海를 逐臭之에 夫搏蜣糞하고 以自樂하니 固不足語以膏梁之味也라

【考察】

本編의 內容은 《難經》의 저자, 本注釋書의 단점, 大小經의 分類, 《甲乙經》과 《難經》, 丹波元簡의 脈法의 오류 등으로 구성되었다.

《難經》은 《漢書·藝文志》에 실리지 않고 隋注에 비로소 기록되었고, 그 저자는 秦越人이 아니라 하더라도, 三國時代에 呂博望의 注釋書가 있고 張機의 《傷寒論》의 內容이 《難經》에 있으므로 後漢의 良醫가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本注釋書의 단점은 《內經》은 後人이 어지럽힌 것이나 《難經》은 오히려 어지럽혀지지 않았으며, 예전의 《難經》이 지금의 《難經》과 매우 같지 않은데도, 《內經》으로 《難經》의 잘못을 반박한 本注釋書는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大經 小經으로 分類하여 《內經》이 大經이며 《難經》이 小經이고 쉬운 것을 좋아하고 어려운 것을 좋아하여 《難經》만을 조금 읽고 《內經》에 저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甲乙經》에서 인용한 《難經》은 宋代의 校正으로 인한 것이므로 《太素》에도 《難經》을 인용한 것이 있다고 하였다.

丹波元簡의 脈法은 寸關尺을 사용하지 않고 《難經》이 寸關尺을 전문으로 하여 지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部位를 分別하고 脈名을 세운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100) 弁髦(변모): 弁(변)은 緇布冠(치포관)으로서 冠禮를 행하기 전에 잠시 쓰는 것이고, 髦(모)는 총각의 더털머리인데, 冠禮가 끝나면 모두 소용 없게 되므로 無用之物의 比喻로 쓰임

101) 謬(류): 그릇되다, 어긋나다

102) 囿(유): 얽매이다, 구속받다

16. 醫學源流論難經論 徐靈胎撰

【原文】

難經은 非經也라 以經文之難解者로 設爲問難以明之라 故로 曰難經이니 言以經文爲難而釋之者也라 是書之旨는 蓋欲推本經旨하야 發擇至道하야 剖斷疑義하야 垂示後學하니 眞讀內經之津梁也라^[1] 但其中에 亦有未盡善者라 其問答之辭에 有卽引經文以釋之者하니^[2] 經文本自明顯어늘 引之호대 或反遺其要하야 以至經語反晦하며 或則無所發揮하며 或則與兩經相背하니 或則以此誤彼하니 此는 其所短也라^[3] 其中에 有自出機杼^[103]하야 發揮妙道하야 未嘗見於內經이나 而實能顯內經之奧義하며 補內經之所未發하니 此는 蓋別有師承하야 足與內經으로 並垂千古하니^[4] 不知創自越人乎아^[5] 抑上古에 亦有此書어늘 而越人引以爲證乎인저^[6] 自隋唐以來로^[7] 其書盛著尊崇之者 固多而無能駁正之者하니^[8] 蓋業醫之輩 讀難經而識其大義하야 以爲醫道中傑出之流하니^[9] 安能更深考內經하야 求其異同得失乎아^[10] 古今流傳之載籍이 凡有舛誤언마는 後人無敢議者 比比^[104]然也어늘 獨難經乎哉아^[11] 餘詳余所著難經經釋中이라

中西匯通 醫經精義는 天彭唐容川先生所著라 其書盛行하니 其診脈精要門이라

脈有三部九候하니^[12] 三部者는 寸關尺也오^[13] 九候者는 浮中沈也라^[14]

唐注에 云 此는 與內經三部九候之法으로 不同이라 然이나 頭足遍診之法은^[15] 其廢 已久라^[16] 故로 卽從難經하야 以寸關尺로 爲三部하고 三部에 各有浮中沈하니 是爲九候라^[17]

病順逆也條下에

唐注에 云 此診法은 全從難經하니 蓋內經遍診頭足이 自越人으로 變法하야 群趨簡易할새^[18] 後世脈法은 託始於此라^[19]

脈圖下에

唐注에 云 西醫는 不信脈法하야 謂人周身脈이 皆生於心中血管하니나 心跳動 不休하야 脈卽因之而動어늘 人身五藏을 何得只據血管爲斷이리오 하며 又言手脈 只是一條이니 何得又分出寸關尺이리오하니라^[20]

姜伊人先生의 內經脈訣에^[21] 以診兩手로 爲定位하고 以三部九候로 爲活^[105]法하니

案姜先生之說컨대 以兩手로 爲後世通行法하니

不能驟改라 故로 以定爲活法하야 調停之하야 既診定位하고 尤取決於三部九候하니 可以知其心苦矣라 案姜氏說컨대 今坵^[106]刊入三部九候篇中하노라

【解釋】

《難經》은 經書가 아니다. 經文의 難解한 것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밝힌 것이므로 難經이라 하였으니 經文으로 문제를 삼아서 풀이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책의 뜻은 대개 經書의 뜻을 미루고 근본하며 지극한 道를 펴고 가려서 의심나는 뜻을 解剖하고 밝혀서 後學에세 드리워 보여주고자 함이니 진실로 《內經》을 읽기 위한 橋梁과 같은 책이다. 그러나 그 중에 또한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다. 그 問答하는 말에 곧 經文을 引用하여 풀이한 것이 있으며, 經文이 본래 明顯하거늘 引用하되 혹 도리어 그 要點만을 남겨서 經書의 말이 도리어 어둡게 되는데 이르며 或은 發揮한 것이 없으며 或은 兩經(《內經》과 《難經》)이 서로 배치되고 或은 이것으로 저것을 그릇되게 하니 이는 그 短點인 바이다. 그 중에 스스로 機杼를 내어서 妙道를 發揮하여 일찌기 《內經》에는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는 능히 《內經》의 奧義를 드러내며 《內經》에서 밝히지 않은 것을 보충하였으니 이는 대개 별도로 스승에게 전수받은 것이 있어서 족히 《內經》과 더불어 함께 千古에 드리우니 越人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아니면 上古에 또한 이 책이 있었거늘 越人이 引用하여 證明한 것인저! 隋唐以來로부터 그 책을 茂盛히 지어내고 높이고 崇尚하는 자가 진실로 많으나 능히 바로잡는 자가 있지 않으니 대개 醫를 일삼는 우리들이 《難經》을 읽어 그 大義만을 알아서 (《難經》의 大義만을) 醫道中の 傑出한 흐름으로 생각하니 어찌 능히 다시 깊이 《內經》을 살펴서 그 다르고 같음과 얻고 잃음을 구하겠는가? 古수에 流傳하는 서적들이 모두 어그러지고 그릇된 것이 있건마는 後人이 감히 의논하는 자가 없는 것이 빈번하거늘 홀로 《難經》만 그러하는가(어그러지고 그릇된 것을 의논하는가)? 나머지는 내가 지은 《難經經釋》中에 자세하다.

《中西匯通·醫經精義》는 天彭 唐容川先生이 지은 것이다. 그 책이 盛行하니 그 診脈精要門이

104) 比比(비비): 자주, 빈번히

105) 活(고) 팔다, 사다, 매매하다, 술을 팔다, 술장수

106) 坵(부): 더하다, 붙이다, 흰 차들, 뗏목

103) 機杼(기저): ① 베들의 북, 轉하여 ② 文辭의 結句

다.

脈에 三部九候가 있으니 三部라는 것은 寸關尺이고 九候라는 것은 浮中沈이다.

唐容川의 注에 이는 <內經>의 三部九候의 法과 같지 않다. 그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루 진찰하는 법은 그廢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따라서 곧 <難經>을 따라서 寸關尺으로 三部를 삼고 三部에 각각 浮中沈이 있으니 이것이 九候가 된다고 하였다.

“病順逆也”의 條의 아래에

唐容川의 注에 이 診法은 모두 <難經>을 따르니 대개 <內經>에서 목(人迎脈)에서 다리까지 두루 진찰하는 것이 秦越人으로부터 法을 變化하여 모든 사람들이 簡易한 것을 따랐기 때문에 後世의 脈法은 여기에서 시작을 依託하였다고 하였다.

脈圖의 아래에

唐注에 西洋의 醫師는 脈法을 믿지 않아서 “사람의 全身 血脈이 모두 心中의 血管에서 生하니 心臟이 뛰는 것이 쉬지 않아서 脈이 곧 그로 인하여 움직이거늘 人身의 五藏을 여찌 다만 血管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리오”라고 말하며 또한 “手脈이 단지 一條인데 여찌 또한 寸關尺으로 나눌 수 있으리오”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姜伊人先生의 內經脈訣에^[21] 兩手を 診斷하는 것으로 定位를 삼고 三部九候로 活法을 삼았다.

姜先生의 말을 살피건대 兩手로 後世의 通行法을 삼으니 갑자기 고칠 수 없으므로 定法으로 活法으로 삼아서 調停하여 이미 定位를 진단하고 더욱이 三部九候에서 취하여 決定하니 그의 고심함을 가히 알 수 있다.

姜氏의 說을 살피건대 이제 三部九候篇中에 부쳐서 刊行하노라.

【廖平注】

[1] 專爲寸關尺而作이요 餘皆聞文이니 特以湊數이라 故로 有以下諸謬라

[2] 此는 不知著書體例者之所爲라

[3] 詳見難經釋各條下라

[4] 此는 則徐氏誤說誤解이니 其書晚出하야 既不見仲景叔和하고 又不爲千金外台所齒니 何從得有經外別傳하야 以爲眞越人書이리오 所以有此種誤하니 知爲粗通文義과 井市醫流所輟이면 則知其誤矣라

[5] 何處有越人來오

[6] 徐靈胎 丹波元簡이 皆囿於難經診法이라 故로 有取舍二義라

[7] 千金外台以來로

[8] 以爲眞越人書하니 誰敢攻之리오 僞厥經與脈訣는 皆祖難經이어늘 後人이 乃移禍於叔和하야 攻叔和者 | 指不勝屈避越人하고 而攻叔和하니 實則難經受其咎라

[9] 醫道之所以沈淪은 遠不及日本하니 以其有醫官世傳其業이라 故로 多深蓬¹⁰⁷⁾之學이라

[10] 亦如經學劉歆以後로 古文家 | 獨行하야 無人不以經爲史라

[11] 何以攻叔和者 | 如此之多어늘 特醫家高崇之書 | 世亦少傳하니 亦如大全匯參이 少人이 研究備旨味根錄이니 則家置一編矣라

[12] 按此素問篇名이라

[13] 按四字 | 爲難經所改이니 屬今千金方診候하니 亦同이라

[14] 按此四字 | 爲難經所改이니 今本千金方診候論에 用素問原文이라

[15] 按此專指三部之人迎寸口少陰而言이라

[16] 按今已發明하고 當復古法이라

[17] 按時醫之寸關尺은 爲難經所獨創이요 內經別有三部九候者 | 寡矣라

[18] 按唐云自高陽生輩로 因婦女頸足不便診하야 乃創獨診兩寸法이라 若爲此書는 新唐書藝文志에 乃題爲越人耳이라

[19] 按唐宋後에 惟龐安時는 發明人寸診法이라 諸脈書 | 皆祖難經하고 內經仲景과 黃甫千金外台 古診法은 無人過問하니 豈不痛哉아

[20] 唐은 据脈書하야 駁之하니 是也라 惟脈은 只一條之說이니 非獨西人言之라 醫宗金鑑四診心法에 駁前人하야 引脈要精微論하되 尺內兩旁一段은 定寸關尺하야 分配藏府하고 已云脈非兩條라 하고 又云脈非兩截라하니 考藏府分配兩寸컨대 難經已有二三說不動이니 至於後來醫家하야 各自立異하니 今目力所及者 | 已近二十家요 所不見者 | 不知更凡幾許이라 故로 丹波元簡 脈學輯要 | 雖主獨診寸口이나 然이나 已刪去寸關尺三部法하야 以一指診之矣라

[21] 成都有刊本이라

【考察】

本編은 <難經>과 <內經>과의 관계, <難經

107) 蓬(수): 깊다, 깊숙하다, 심오하다

》의 장단점, 《難經》의 저자 등을 기술하였다.

《難經》과 《內經》과의 관계로는 《難經》이 經書가 아니라 《內經》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질문을 삼아서 밝힌 것이니, 《內經》의 뜻을 미루고 근본하여 지극한 道를 發揮하고 의심나는 뜻을 分析하여 後學에게 드리우니 《內經》의 다리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다.

《難經》의 단점은 《內經》의 글이 분명한 것을 인용하여 그 요점만을 남기거나 심지어는 《內經》의 말을 어둡게 하거나 혹은 발취한 것이 없거나 혹은 《內經》과 《難經》이 서로 어긋나며 혹은 《難經》으로 《內經》을 그릇되었다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難經》의 장점은 별도로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있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서 奧妙한 道를 發揮하여, 《內經》에는 보이지 않는 글이 있지만 《內經》의 심오한 뜻을 나타내고 《內經》에서 發明하지 못한 것을 보충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難經》의 저자는 秦越人이 分明하고 아니라면 上古에 《難經》이 있었는데 秦越人이 引用하여 證明한 것이라고 하였다.

17. 難經本義 四庫全書提要 兩淮鹽政采進本^[1]

【原文】

周의^[2] 秦越人이 撰하고^[3] 元의 滑壽ㅣ 注하니라 越人은 卽 扁鵲이니 事迹이 具史記本傳하고 壽는 字ㅣ 伯仁이니 明史方技傳에 稱爲許州人하고 寄居鄆¹⁰⁸縣라하니 案朱右掇寧生傳컨대 曰世乃許州襄¹⁰⁹成大家라가 元初에 祖父ㅣ 官江南하야 自許로 徙儀眞하야 而壽生焉이라하고 又曰在淮南이라하고 曰滑壽在吳라하고 曰伯仁氏在鄆越이라하고 曰 掇寧生이라하니 然則許乃祖貫이요 鄆乃寄居이니 實則儀眞人也라 壽ㅣ 卒于明洪武中이라 故로 明史에 列之方技傳호대 壽亦抱節之遺老¹¹⁰니 託于醫하야 以自晦者也라 是書首에 有張翥序에 稱호대 壽家ㅣ 去東原近할새 早傳李杲之學이라하고 掇寧生傳에 則稱호대 學醫于京口王居中하고 學鍼法于東平高洞陽이라하니 考李杲足跡컨대 未至江南하고 與壽時代로 亦不相及하니 翥所云은 殆因許近東垣하야 坵會其說歟인저 難經八十一篇은^[4] 漢藝文志에 不載러니 隋唐에^[5] 始載難經二卷 秦越人著하고 吳太醫令 呂廣이 嘗註之하니^[6] 則其文當出三國前이나^[7] 廣書ㅣ 今不傳할새^[8] 未審卽此本否

108) 鄆(은): 땅 이름, 고을 이름

라 然이나 唐의 張守節註의 史記扁鵲列傳에 所引 難經이 悉與今合하니 則今書猶古本矣라^[9] 其曰 難經者는 謂經文有疑를 各設問難以明之라 其中에 有此稱經云이어늘 素問靈樞에 無之者는 則今本內經이 傳寫脫簡也새라 其文이 辯析精微하고^[10] 詞致簡遠하야 讀者ㅣ 不能遠曉이라^[11] 故로 歷代醫家ㅣ 多有註釋하니 壽所采摭ㅣ 凡十一家 라 今惟壽書ㅣ 傳于世하니^[12] 其書에 首列彙考一篇하야 論書之名義源流하고 次列闕誤總類一篇하야 記脫文誤字하고 又次圖說一篇하니 皆不入卷數하고 其註則融會諸家之說하고 而以己意로 折衷之하야 辯論精核하고 考證亦極詳審이라^[13] 掇寧生傳에 稱難經은 本靈樞素問之旨하야^[14] 設難釋義이라 其間에 營衛部位藏府脈法과^[15] 與夫經絡腧穴을 辯之博矣하고 而闕誤或多라하니 愚將本其旨之義하야 註而讀之케 하니 卽此本也라 壽ㅣ 本儒者니 能通古書文義라 故로 其所註ㅣ 視他家所得에 爲多云이라^[16]

【解釋】

周의 秦越人이 撰하고 元의 滑壽가 注하였다. 越人은 卽 扁鵲이니 事迹이 《史記·本傳》에 갖추어져 있고 滑壽는 字가 伯仁이니 《明史·方技傳》에 許州人이라고 稱하고 鄆縣에 잠시 살았다고 하니 《朱右掇寧生傳》을 살피건대 代代로 許州에서 大家를 이루다가 元初에 祖父가 江南에서 벼슬을 하여 許州에서 儀眞으로 이사하여 滑壽가 태어났다고 하고 또한 淮南에 있었다하고 滑壽가 吳에 있었다하고 伯仁氏는 鄆越에 있었다하고 掇寧生이라고 한다하니 그렇다면 許란 할아버지의 本貫이고 鄆은 잠시 산 곳이니 실제로는 儀眞의 사람이다. 滑壽가 明代 洪武中에 別世하였으므로 《明史》에 〈方技傳〉에 열거하되 滑壽는 또한 節概를 지닌 前 王朝의 臣下이니 醫에 依託하여 스스로 行蹟을 감춘 자이다. 이 책의 머리에 張翥의 序에서 滑壽의 집이 東原에서 가까워서 일찌기 李杲의 學問을 傳하였다 稱하였고, 〈掇寧生傳〉에는 醫學을 京口 王居中에게서 배우고 鍼法을 東平 高洞陽에게서 배웠다고 稱하였으니, 李杲의 行蹟을 살펴보면 江南에까지 이르지 않고 滑壽의 時代와도 또한 서로 미치지 않으니 張翥가 말한 바는 거의 許氏의 家가 東垣에 가까움으로 因하야 그 說을 傳會

109) 襄(양): 돕다, 오르다, 조력하다, 높은 곳으로 가다

110) 遺老(유로): ① 나이가 들어 老鍊한 사람, 前 王朝의 臣下, ② 前 皇帝의 臣下

한 것일진저! 《難經》 八十一篇은 《漢書·藝文志》에 기재되지 않더니 隋唐에 비로소 《難經》 二卷 秦越人 著라하고 吳太醫令 呂廣이 일찌기 註하였다고 기재하였으니 즉 그 글이 마땅히 三國前에 나왔으나 呂廣의 책이 傳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이 板本인지 아닌지는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唐의 張守節註의 《史記·扁鵲列傳》에 인용한 의 《難經》이 모두 지금의 것과 같으니 즉 지금의 책이 옛 판본과 같다. 그 《難經》이라고 한 것은 經文에 의심이 있는 것을 각각 질문하여 밝힌 것이다. 그 中에 여기에서 經이라고 稱한 것이 있거늘 《素問》, 《靈樞》에 없는 것은 즉 지금의 판본 《內經》이 傳寫하면서 脫簡했기 때문이다. 그 文章이 辯析이 精微하고 말이 簡潔하고 深遠하야 讀者가 능히 잡자기 깨우칠 수가 없다. 따라서 歷代의 醫家가 흔히 註釋을 하였으니 滑壽가 모으고 습득한 것이 모두 十一家이다. 이제 오직 滑壽의 책이 세상에 전하니 그 책에 머리에 〈彙考〉一篇을 열거하여 책의 名義와 源流를 論하고 다음에 〈闕誤總類〉一篇을 열거하여 脫文과 誤字를 記錄하고 또한 〈圖說〉一篇을 차례하니 모두 卷數에 넣지 않았고 그 註는 諸家의 學說을 融會하고 자신의 意見으로 折衷하여 辯論이 精核하고 考證이 또한 지극히 자세하고 살폈다. 〈攬寧生傳〉에 “《難經》은 《靈樞》, 《素問》의 뜻에 근본하여 질문을 베풀어서 뜻을 설명하였다. 그 사이에 營衛部位 藏府 脈法과 모든 經絡 脈穴을 分變함이 該博하고 闕誤함이 或 많다”고 稱하였으니, 나는 장차 그 가르침의 뜻을 根本하여 註하여 읽게 하노니 즉 이 板本이다. 滑壽가 본래 儒學者이니 能히 古書의 文義를 通하였으므로 그가 註한 것이 다른 註家에 比하여 얻는 것이 많다.

【廖平註】

- [1] ○ 四庫提要卷一百三이라
- [2] 當有舊題二字라
- [3] 以靈樞爲僞하고 難經爲眞하니 正與事實로 相反하니 最爲無識이라
- [4] 明人攻難經者 | 已不可數數요 古人攻脈訣者 | 尤多하니 其實攻脈訣은 卽以攻難經이라
- [5] 六朝人所僞託이라
- [6] 呂註 | 實出僞託이라 大抵難經 與高陽生 脈訣로 實相去不遠이라
- [7] 誤彼時診兩手に 不分三部云이라
- [8] 錢氏有集註本이라

[9] 當時曰 黃帝八十一問에 無經名이라 其書 | 盛行于當初라 故로 張不引內經하야 專引難經이라

[10] 徐氏所駁 | 是也라 其書 | 粗議文義者는 所編 | 并無條例하야 以精微加之하니 有同夢嚙¹¹¹⁾라

[11] 誤說呂註與經文하니 當出一手라

[12] 錢刊集註共五家라

[13] 著僞書라야 乃能得此虛譽라

[14] 俞氏以爲專改古書라하니 是也라

[15] 全與經反이라

[16] 滑註는 今日本丹波元胤疏證에 已詳이라 引載呂二楊丁虞紀滑하니 共七家라 ○ 大抵難經은 專爲診兩寸而作이어늘 當時文人이 喜言之나 若干金外台則不用其僞法이라

【考察】

本註釋家에 대한 內容, 古本難經의 證明, 《難經》과 《內經》과의 關係, 本註釋書의 장점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本註釋家(滑壽)에 대한 內容은 그는 祖父의 本貫이 許州이며 鄞縣에 잠깐 살았고 실제로는 儀眞人이다. 《明史·方技傳》에 의하면 李東垣의 집과 가까워서 일찍이 東垣의 學問을 傳授받았다고 하였으나 《攬寧生傳》에는 王居中에게 배우고 鍼術을 高洞陽에게 배웠다고 하였는데 이동원의 사적을 살펴보면 강남에까지 이르지 않았고 시대도 서로 미치지 않으므로 《明史·方技傳》의 記錄은 牽強附會인 것 같다고 하였다.

《難經》은 《漢書·藝文志》에는 기재되지 않다가 隋唐에 이르러 비로소 저자와 그 제목이 실렸고 吳나라 呂廣이 注한 것이 傳하지 않으나, 唐代 張守節의 注에 《史記·扁鵲列傳》에 《難經》을 인용한 것이 今本과 같으므로 지금의 책이 古本이라고 하였다.

《難經》은 《內經》의 뜻에 근본하여 그 글에서 의심나는 것을 각각 질문을 만들어서 밝힌 것이고, 그 中에 經이라고 稱하였으나 《內經》에 없는 이유는 今本の 《內經》이 脫簡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本註釋書의 장점은 十一名의 註釋書를 모아서 世上에 傳하고 그 책의 처음에 〈彙考〉를 배열하여 名義와 源流를 論하고 다음에 〈闕誤總類〉를 배열

111) 嚙(예): 잠꼬대, 웃다

하여 脫文 誤字를 기록하고 다음에 〈圖說〉을 배열하여 卷數에는 넣지 않고, 그의 注는 諸家의 說을 融會貫通하고 자신의 說로 折衷하여 辯論이 精確하고 考證이 자세하다고 하였다.

18. 難經集註跋 錢熙祚撰^[1]

【原文】

先秦醫學之存于今者 | 素問靈樞 | 竝爲後人竄^[112]亂이라^[2] 吳의 呂廣과^[3] 唐의 楊元操와 宋의 丁德用과 虞庶와 楊康候 | 竝有註釋하고^[4] 元의 滑伯仁이 採諸家之說하야 而以己意로 折衷之하야 爲難經本義二卷이라 然이나 所採 | 甚略이 어늘 惟王九思等集註 | 備錄諸說하되 不下一語하고 有核語數十條하니 深得故人撰述之體라 今去明季에 僅二百載하야 而諸家之註 | 亡佚殆盡하고 獨此書 | 以流入日本하야 佚而復存하니 若有神物呵護^[113]라 今爲校正하야 刊入叢書하니 是書 | 存而呂楊丁虞五家之註 | 俱存이라 於에 以考其異同하야 而究其得失하니 亦醫家所當盡心者也라^[5] 首載楊元操序에 稱難經爲秦越人作하니 蓋唐以前에 已有此說이라^[6] 故로 醫家 | 重之라 惟其以有命門爲右腎之說하고^[7] 以兩寸으로 候大小腸하야^[8] 與內經으로 不合하야 遂起後入難端하니^[9] 則二書診法이 本自不同일새라^[10] 諸家 | 疑大小腸在下焦어늘 不當候之兩寸하니 不知兩手六府 | 皆非藏府定位이요 不過借手太陰肺一動脈하야 以候五藏之有餘不足이라 吳草廬와 李瀕湖 | 已有定論하니^[11] 卽難經所言之 脈位 | 乃是라 因五行之氣而推하면^[12] 十八難에 云 金生水하하니 水流下行而不能上이라 故로 爲下部요 木生火하하니 火炎上行而不能下라 故로 爲上部요 土主中宮이라 故로 爲中部라하니 其說이 尤屬堅固라^[13] 觀靈樞권대 十二經脈이 雖各有起止하고 各有支別나 而實一氣貫注 | 如環無端이라 故로 兩手六部 | 如陰殺難平어늘 今謂二腸之氣 | 不得隨經일진대 而至于兩寸하야 豈其然乎리오^[14] 素問刺禁論에 七節之旁에 中有小心이라한대^[15] 楊上善은 以爲腎이라하고^[16] 馬元臺는 以爲心包하고 以內腎爲心包이라하니^[17] 亦無命門之說이 어늘^[18] 乃後人이 謂命門在兩腎中間하야 形如胡桃라^[19] 難經之意는 不過以腎爲一身之根本이니 人身은 左血右氣하야^[20] 血爲陰이요 氣爲陽하니 兩腎之中에 以右腎爲尤重이라 故로 名之曰命門이라^[21] 自古로 命門治法도 亦維溫補腎陽이 어늘^[22]

而謂兩腎外에 別有命門하니 豈非欲求勝于古人하고 而不顧其理之所安者乎아 近世에 周省吾 | 謂不有越人이던 何從有命門之說이리오하니^[23] 至哉라 斯言이여 如呼寐者而使之覺乎인저^[24] 此書所集諸家之註 | 未必盡是라 然이나 尙循文釋義하야 不爲新奇可喜之談이라 由是로 以講求蘊奧하야 俾古人之意로 晦而復明하고 而妄議古人者로 亦得以關其口而奪之氣하노니 詎^[114]不足重也與리오

庚子春仲錫之錢熙祚는 識하노라

按錢氏刻脈經跋에 云 考脈經권대 所引扁鵲諸條는 不見難經하고 所引難經之文도 又不稱扁鵲하니 曰 足見其書 | 不出扁鵲이요 後人以爲越人作者 | 誤也라하니라 其跋이 刻于守山閣叢書하고 脈經後에 乃跋難經호대 又以爲實越人作이라하니 一人之書 | 彼此矛盾하고 同刊于一叢書中하니 亦甚可怪矣로다

【解釋】

先秦의 醫學이 지금에 전해지는 것이 《素問》 《靈樞》가 모두 後人이 고치고 어지럽힌 것이다. 吳의 呂廣과 唐의 楊元操와 宋의 丁德用과 虞庶와 楊康候가 함께 註釋하였고 元의 滑伯仁이 諸家의 學說을 採集하여 자신의 意見으로 折衷하여 《難經本義》 二卷을 만들었다. 그러나 採集한 것이 甚히 大略하였는데 오직 王九思等의 集註가 모든 說을 갖추어 기재하되 한 말도 빼놓지 않았고 핵심이 되는 말이 數十條가 있으니 故人이 撰述한 要體를 깊이 얻은 것이다. 이제 明末로부터 (시간적) 거리가 거의 二百年이 되어서 諸家의 註가 亡佚하여 거의 없어지고 오직 이 책이 日本으로 흘러 들어가 없어졌다가 다시 보존되니 神物이 呵護한 것이다. 이제 校正하야 叢書에 간행하여 넣으니 이 책이 보존됨에 呂廣 楊玄操 丁德用 虞庶等의 五家의 註가 모두 保存되게 되었다. 이에 그 異同을 살펴서 그 得失을 연구하니 또한 醫家가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첫머리에 楊元操의 序에 難經은 秦越人이 지은 것이라 기재되어 있으니 대개 唐以前에 이미 이 說이 있었으므로 醫家가 重視하였다. 오직 그 命門으로 右腎을 삼은 學說이 있고 兩寸으로 大小腸을 살펴서 內經과 더불어 附合하지 않으므로 드디어 後世人이 堯

112) 竄(찬): 고치다, 도망하다, 귀양보내다

113) 呵(가): 꾸짖다, 헐뜯다)護는 밖의 방해되는 자를 꾸짖어 안을 지킴을 말한다

114) 詎(거): 어찌, 진실로, 적어도, 이르다

난하는 실마리를 여는 계기를 일으키니 二書의 診法이 본래 스스로 같지 않기 때문이다. 諸家가 大小腸이 下焦에 있거늘 兩寸에서 살피는 것은 不當하다고 疑心하니 兩手의 六府가 모두 藏府의 定位가 아니고 手太陰肺의 一動脈을 빌어서 五藏의 有餘와 不足을 살핀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吳草廬와 李瀕湖가 이미 定論이 있으니 즉 《難經》에서 말한 바의 脈位가 이에 옳다. 五行의 氣로 因하여 推論하면 〈十八難〉에 金生水하나니 水가 흘러서 下行하고 上行하지 못하므로 下部가 되고, 木生火하나니 火는 炎하여 上行하고 下行하지 못하므로 上部가 되고 土는 中宮을 主하므로 中部가 된다고 하니 그 說이 더욱 堅固한 편에 속한다. 《靈樞》를 살펴보면 十二經脈이 비록 各各 起始와 終止가 있고 各各支絡과 別絡이 있으나 실제로는 一氣가 貫注하여 고리가 끊어 없는 것과 같으므로 兩手의 六部가 陰殺을 平定하기 어려운 것과 같거늘 이제 二腸의 氣가 그 經을 따르지 않을진대 兩寸에 이르러서 어찌 그(二腸의 氣가) 그러하겠는가(經을 따르겠는가)! 《素問·刺禁論》에 七節의 옆에 가운데에 小心이 있다 하는데 楊上善은 腎이라고 여기고 馬元臺는 心包라고 여기고 內腎이 心包가 된다고 하니 또한 命門의 說이 없었거늘 이에 後人이 命門이 兩腎의 中間에 있어서 形體가 胡桃와 같다고 말한다. 《難經》의 뜻은 腎으로 一身의 根本을 삼은 것에 不過하니 人身은 左는 血이고 右는 氣가 되어 血은 陰이 되고 氣는 陽이 되니 兩腎中에 右腎이 더욱 貴重하므로 이름하여 命門이라한 것이다. 옛부터 命門의 治法도 또한 溫補腎陽하였거늘 兩腎外에 별도로 命門이 있다고 말하니 어찌 고인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니 그 理致의 편안한(정당한) 바 를 돌아보지 않는가! 近世에 周省吾이 越人이 있지 않았으면 어디에서 命門의 說이 나왔으리오하고 말하였으니^[23] 지극하도다. 이 말이여! 잠든자를 불러서 깨우게 한 것과 같구나! 이 책이 諸家의 注를 모은 것이 반드시 다 옳지는 않다. 그러나 여전히 글을 따라서 뜻을 해석하여 新奇하여 좋아할 만한 말은 아니다. 이럼으로써 蘊奧를 講求하여 古人의 뜻으로 하여금 어두웠던 것이 다시 밝아지게 하고 古人을 함부로 議論한 者로 하여금 또한 그 입을 막아서 氣運을 礙하게 하노니 重視하기에 不足하리오!

庚子春에 仲錫之錢熙祚는 기록하노라.

(廖平注) 錢氏의 《脈經》에 새긴 跋을 살펴보면, “《脈經》을 살피건대 인용한 바의 扁鵲의 諸

條는 《難經》에 나타나지 않고 인용한 《難經》의 글도 또한 扁鵲이라 칭하지 않으니 그 책이 扁鵲에게서 나오지 않았음을 족히 알 수 있겠다고 말하고 後人이 越人이 지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르다”고 하였다. 그 跋이 守山閣叢書에 새겨져 있고 《脈經》의 뒤에 이에 《難經》을 跋 하되 또한 진실로 越人이 지은 것이라고 하였으니 一人의 책이 彼此가 矛盾이 있고 同一한 叢書中에 刊行하였으니 또한 甚이 可히 怪異하도다.

【廖平註】

- [1] 守山閣本이라
- [2] 俞理初 | 云 難經은 崑¹¹⁵⁾ 改古籍하니 六朝以後人所作이니 在王叔和以後라
- [3] 考楊氏內經太素註컨대 已引呂註하니 則其文은 爲後人校語라
- [4] 大抵淺人所附會라
- [5] 本書 | 既誤諸家 | 盲人瞎¹¹⁶⁾馬이니 其說이 雖多나 全無根據하니 不足取也라
- [6] 與錢氏脈經跋로 自相矛盾이라
- [7] 左右無異名이라
- [8] 寸口不候府하고 不分部位이라
- [9] 今按素問三部九候論에 以頭而諸動脈爲上三部하고 以兩手動脈爲中三部하고 兩足動脈爲下三部이라 此古法을 今已考明하여 可以施行이 어늘 而 難經而寸關尺爲三部하고 浮中沈爲九候하여 專診兩手하고 縮頭足診法하여 于方寸之間에 爲難經獨創이라 與王叔和所引扁鵲은 仲景不同하니 大約出于齊梁以後하니 高陽生脈訣로 同하니 或卽一手所作이라
- [10] 天仙과 鬼魔을 混同一視하니 誤라
- [11] 皆屬誤解라
- [12] 糾¹¹⁷⁾纏五行하여 誤說流行하니 其害大矣라
- [13] 如畫鬼神이라
- [14] 本原 | 既誤하니 支節家는 不必爭執이라 命門二字는 內經無明文하고 其餘篇에 三見命門者는 乃以命門으로 爲目이요 非藏府라
- [15] 本用七政法하여 以皇居中하여 統上下四方하니 非說醫事也라

115) 崑(단): 처음, 시초, 실마리, 비로소, 바르다

116) 瞎(할): 애꾸눈, 소경, 어둡다, 오랑캐 이름

117) 糾(糾): 꼬다, 드리다, 거두다

[16] 此는 楊氏之誤라

[17] 此說이 是라

[18] 命門이 出于難經하니 乃丹訣說難經하야 專責腎은 在魏伯陽後라

[19] 腎崙司生化하니 如闍¹¹⁸⁾牛驢¹¹⁹⁾馬石女 闍夫는 害腎不生育이나 而生命自若하니 內經은 不重腎하니 上古天眞論에 詳矣어늘 自丹經出로 乃重腎하야 乃有命門元關等說하니 則難經이 固出魏伯陽葛洪景後라 故로 有命門重腎하야 以腎絶則人死 하니 此는 眞無稽之談이요 而俗醫 莫不靡然¹²⁰⁾終之라

[20] 劈分兩片하니 近於泰西說이라

[21] 藏府無左右異名하니 誤中又誤라

[22] 今從馬氏以腰로爲肉¹²¹⁾包絡하고 膈爲少陰하고 外腎爲少陽하니 所有丹家命門說은 一切皆歸衝任藏府하야 內經已定이니 豈容私造命門一藏이 리오 大抵俗醫 以腰與辜로 同名腎하야 辜 遂爲坵庸하야 缺一藏하니 宜後人이 新造命門以補之라

[23] 此는 可作議論之하고 詞讀之라

[24] 左腎右命門은 卽如左人迎右寸口 同爲巨謬하니 乃以爲奇獲이나 眞屬夢이라 ○率宋元以來로 說經者 好爲臆解而餘波所漸이 乃併及于醫書라 故로 創爲命門之說하고 而不知外腎이 入十二經하야 爲少陽膈也라

【考察】

本編의 內容은 歷代 注釋의 단점, 本注釋의 장점, 《難經》의 傳世의 어려움, 《難經》의 독특한 學說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歷代 注釋의 단점으로 滑壽가 諸家의 說을 모으고 자신의 뜻으로 折衷하였으나 너무 간단하다고 하였다.

本注釋의 장점은 모든 說을 갖추어 기록하여 한 말도 빠뜨리지 않고 여러 條의 핵심되는 말을 남기니 古人이 撰述한 뜻을 깊이 얻었다고 하였다.

《難經》의 傳世의 어려움으로 明末까지 약 200년간에 諸家의 注가 모두 佚失하고 本注釋書만 日本에 流入하여 없어졌던 것이 다시 世上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 것이다.

《難經》의 독특한 學說로는 命門이 右腎이며 兩寸으로 小大腸을 살핀다고 한 것이 《內經》과 附合하지 않는데, 命門이 右腎이라는 것은 人身은

左血右氣로 兩腎中에 右腎을 중시하기 위하여 命門이라고 말한 것이며 治法 역시 腎陽을 溫補하는데 그쳤으니 兩腎외에 命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兩寸으로 大小腸을 살피는 것은 兩手의 六腑가 臟腑의 定位가 아니고 手太陰肺經의 動脈으로 五臟의 有餘 不足을 살피는 것이니 《難經》의 說이 옳다고 하였다.

19. 難經舊注考 德清傅氏撰

19-1. 吳呂廣黃帝衆難經集注 隋志注一卷^[1]

【原文】

傅氏 按唐의 楊玄操序컨대 吳太醫令 呂廣이 爲之注라하고 隋志注에 梁有黃帝衆難經一卷하고 呂博望注亡이라하니 所云梁有者는 乃謂梁王儉七錄有是書요 所云衆難經은 爲八十一難經之文이라 就字義推測컨대 所云博望은 自係廣字 當因隋避煬帝諱하야 而以字著錄하니 御覽七百二十四에 呂博이 吳의 赤烏二年에 爲太醫令하야 注八十一難經이라하니 殆因錄刊脫一望字라

【解釋】

傅氏가 唐의 楊玄操의 序文을 살피건대 吳의 太醫令 呂廣이 注하였다고 하고 隋志注에 梁에 《黃帝衆難經一卷》이 있고 呂博望注는 없어졌다고 하니 梁에 있다고 말한 것은 이에 梁의 王儉의 七錄에 이 책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衆難經》이라고 말한 것은 《八十一難經》의 글이다. 字義에 나아가서 推測하면 말한 바의 博望은 廣字가 마땅히 隋에서 煬帝의 諱를 피함으로 因하여 그 글자(廣)로 짓고 記錄함으로부터 緣由하니 御覽七百二十四에 呂博이 吳의 赤烏二年에 太醫令이 되어 《八十一難經》을 注하였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刊行할 때에 '望'一字를 빠뜨림으로 因한 것이다.

【廖平註】

[1] 通考二卷이라

[2] 此誤는 當爲唐末人 譌託어어늘 書錄解題 從之나 但有扁鵲內外經하고 隋志에 始有難經하고 唐志에 遂題云秦越人하니 皆不可考라 難當作去聲讀이라

119) 驢(선): 불을 까다. 거세하다. 접붙이다

120) 靡然(미연): 草木이 바람에 나부끼어 쓰러지듯이 쓸리는 모양

121) 肉(창): 천장, 굴뚝

118) 闍(엄): 내시, 고자, 술녀

【考察】

本編에서는 《黃帝衆難經》과 本注釋家の 考證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隋志注에 실린 《黃帝衆難經》은 《黃帝八十一難經》이라고 하였다.

本注釋家(呂博望)은 隋楊帝의 諱를 피하여 廣이라 썼고 望字는 脫落되어 呂廣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考證하였다.

19-2. 呂楊注八十一難經 讀書志通攷五卷^[1]

【原文】

晁公武 | 曰 吳의 呂廣 | 注하고 唐의 楊元操 | 演이라 歙縣의 楊元操序에 黃帝八十一難經者는 斯乃渤海秦越人之所作也라 越人이 受桑君之秘術하야 遂洞明醫道하야 至能徹視臟腑하고 剗¹²²⁾腸剔心하야 以其與軒轅時扁鵲으로 相類라 乃號之爲扁鵲이라 又家於盧國하야 因名之曰盧醫라하니 世或以盧扁鵲으로 爲二人者는 斯實謬矣라 按黃帝有內經二帙하고 帙各九卷 而其義幽蹟하야 殆難窮覽이어늘 越人이 乃採摘英華하고 抄撮精要하야 二部經內¹²⁾ 凡八十一章을 勅成卷軸하야 伸演其道할새 探微索隱하고 傳示後昆¹²³⁾하야 名爲八十一難하니 以其理趣深遠하야 非卒易了故也라 既宏暢聖言이라 故首稱黃帝하니 斯乃醫經之心髓요 救疾之樞機니 所謂脫牙角於象犀하고 收羽毛於翡翠者矣라 逮於吳太醫令呂廣이 爲之注解한대 亦會合玄宗¹²⁴⁾하야 足可垂訓로대 而所釋未半하고 餘皆見闕이라 余性好醫方하야 問道無倦하고 斯經章句는 特承師授라 既而耽¹²⁵⁾然無斃하야 十載於茲에 雖未達其本源이나 蓋亦舉其綱目이라 此教所興은 多歷年代하니 非唯文句桀錯¹²⁶⁾이요 抑亦事緒參差하야 後人傳覽에 良難領會¹²⁷⁾일새 今輒條貫編次하야 使類例相從하야 凡爲一十三篇하야 仍舊八十一首라 呂氏未解는 今并注釋하고 呂氏注不盡도 因亦申之하야 并別爲音義하야 以暢厥旨라^[3]

【廖平註】

[1] 林天瀑跋一卷이라

[2] 傅氏 | 按史記正義所引은 卽此文이라

[3] 傅氏 | 按此序는 在明王九思等の 難經集註卷首라

【解釋】

122) 剗(고) ① 가르다 ② 도려내다

《黃帝八十一難經》은 이는 渤海의 秦越人이 지은 것이다. 越人은 長桑君의 秘術을 傳수받아 드디어 醫道에 환히 밝아서 臟腑를 꿰뚫어 보고 腸을 도려내고 心臟을 꺼내기까지 하였으니 그는 軒轅 시대의 扁鵲이라는 名醫와 서로 비슷하였기 때문에 이에 扁鵲이라고 불렀다. 또한 盧나라에서 집짓고 살아서 따라서 盧醫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니 세상사람들이 혹 盧, 扁鵲을 두사람이라고 여긴 것은 이는 실로 틀린 것이다. 살펴보면 黃帝에게는 《內經》 二帙이 있고 各帙이 九卷으로 그 의미가 그윽하고 심오하여 다 살펴보기가 거의 어려운데 越人이 이에 그 英華를 뽑고 따내고 精要를 훑치고 취하여 《難經》 二部 八十一章 모두를 책으로 만들어 그 醫道를 넓히고 부연함에 隱微한 것을 탐색하고 후세에게 전하고 보여주어 《八十一難》이라고 이름하니 그 이치가 심원하여 마침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聖言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므로 黃帝라고 책머리에 稱하니 이는 醫經의 핵심이고 질병을 구제하는 樞機이니 이른바 코끼리와 코뿔소에서 象牙와 犀角을 뽑아 내고 비취에서 그 깃털과 털을 거두어 냈과 같다. 吳나라 太醫令인 呂廣이 그것을 注解함에 이르러 또한 불교와 會合하여 垂訓할 만하나 그 注釋이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그 나머지도 모두 闕略한 것이 보인다. 나는 성품이 醫方을 좋아하여 道를 듣는데 게으르지 않고 이 經(《難經》)의 章句는 특별히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이윽고 즐겨서 싫어하지 않아서 이거기를 십년에 비록 그 本義에 도달하지는 못하나 대개 또한 그 綱目을 들어 보일수 있게 되었다. 이 가르침이 가능하게 되는 데는 많은 년수와 시간이 걸리니 (그 이유는) 비단 文句가 섞이고 혼돈되어서 그러할 뿐 아니라 일의 실마리가 가지런하지 않아서 후세사람들이 전하여 볼 때 진실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문득 條目을 꿰고 編次하여 비슷한 예를 相從케 하여 모두 十三篇으로 만들어서 옛날의 八十一首를 여전히 따랐다. 呂氏가 註釋하지 않은 것을 이제

123) 後昆 후세 자손

124) 玄宗 불교의 다른 이름

125) 원문에는 耽으로 되어 있으나 耽의 俗字이므로 바꾼다.

126) 桀錯 혼란하고 섞이다 桀 ① 교활하다

② 흉폭하다, 사납다 ③ 책 ④ 들어올리다

127) 領會 깨달음. 이해가 감 領 ① 깨닫다

② 다스리다 ③ 거느리다 ④ 목 ⑤ 옷깃

아울러 注釋하고 呂氏의 注釋이 부진한 것도 인하여 또 부연하며 아울러 별도로 音義를 달아서 그 뜻을 펼쳐내었다.

【考察】

《難經》의 저자, 《難經》과 《內經》과의 관계, 《難經》의 의의, 本注釋의 장점 등을 기술하였다.

《難經》의 저자는 渤海 秦越人이 지었으니 長桑君의 秘術을 받아서 醫道에 밝아서 黃帝時代의 扁鵲과 서로 같아서 號가 扁鵲이 되었고 虛나라에서 집을 짓고 살아서 虛醫라고 하였으니 虛醫와 扁鵲이二人이라고 한 것을 그르다고 하였다.

《難經》은 《內經》의 精華를 뽑아서 精要를 간추려서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難經》의 의의는 醫經의 心髓이고 疾病을 救濟하는 기틀이라고 하였다.

本注釋의 장점은 條目을 貫通시키고 編次를 排列하여 비슷한 例로 서로 分類하여 十三編으로 만들었다.

19-3. 宋丁德用註難經 讀志通文五卷^[1]

【原文】

晁公武 | 曰 德用은 以楊元操所演이 甚失大義일새 因改正之하여 經文隱奧者를 爲圖라 德用은 濟陽人이니 嘉祐末에 其書 | 始成이라

陳振孫曰 序에 言太醫令呂廣이 重編此經하고 而楊元操 | 復爲之註라하니라 覽其難明이라 故로 爲補之하고 且間에 爲之圖라 首編은 爲診候最詳하니^[2] 凡二十四^[3] 難이니 蓋脈學이 自扁鵲이 是也라^[4]

【解釋】

晁公武이 丁德用은 楊元操가 演釋한 것이 甚히 大義를 잃었기 때문에 因하여 고치고 바로 잡아 經文에서 隱微하고 深奧한 것을 그림을 그렸다. 丁德用은 濟陽人이니 嘉祐末에 그 책이 비로소 완성되었다하였다.

陳振孫이 序에 太醫令 呂廣이 이 經을 거듭 編纂하고 楊元操가 다시 註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밝히기 어려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補充하고 또한 그 사이에 그림을 그렸다. 首編은 診候가 가장 자세하니 모두 二十四難이니 大개 脈學이 扁鵲으로 부터 하니 이것이라 하였다.

【廖平註】

- [1] 書錄解題通志二卷이라
- [2] 案此書 | 大抵爲兩寸診法而作이라
- [3] 當作爲三이라
- [4] 案此說은 出鄭周禮注이라

【考察】

本編에서 기술한 本注釋의 장점은 楊玄操가 연역한 것이 대의를 잃어서 그것을 고치고 經文에서 숨고 은미한 것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되어 있다.

19-4. 宋虞庶注難經 讀書志通攷五卷

【原文】

晁公武 | 曰 皇朝虞庶는 仁壽人이요 寓居漢嘉이라 少爲儒라가 已而棄其業하고 習醫爲此書하야 以補呂楊所未盡이라 黎泰辰 | 治平間^[128]爲之序라^[1]

【解釋】

晁公武가 皇朝(宋代) 虞庶는 仁壽人이고 漢嘉에 잠깐 살았다. 어려서 儒學을 하다가 이윽고 그 業을 버리고 醫學을 익혀서 이 책을 만들어서 呂廣과 楊玄操의 未盡한 것을 補充하였다고 하였다. 黎泰辰이 治平間에 序를 지었다.

【廖平註】

- [1] 此爲川人舊作이라

【考察】

本編은 本注釋家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19-5. 楊康侯注難經 見林天瀑跋

【原文】

傅氏 | 按天瀑跋敘康侯注는 在虞庶後라

【解釋】

傅氏가 살피건대 天瀑跋敘와 康侯注는 虞庶의 뒤에 있다.

19-6. 侯自然難經疏^[1] 崇文總目通志十三卷

【廖平註】

- [1] 宋志不著撰人이라

128) 問은 “問”字의 誤인 듯하다.

19-7. 宋周興權八十一難經辨正條例一卷^[1]

【原文】

經籍訪古志補遺에 樸窗先生跋畧에 曰 摠寧生은 著難經本義하니 其凡例首條는 譏周氏之擅이라 予 謂韓愈¹²⁹⁾之於魯論¹³⁰⁾과 郭京之於周易에 皆有所 釐¹³¹⁾正이니 雖不知竹簡漆書 果如其言也否나 視之於拘泥舊文之差誤와 左傳右會¹³²⁾以爲說者 컨대 非無所聞發이니 蓋此辨正釋疑之條例也라^[2]

【解釋】

《經籍訪古志補遺》〈樸窗先生跋畧〉에 摠寧生은 《難經本義》를 지으니 그 凡例의 首條는 周氏의 멋대로 한 것을 기롱하였다. 나는 韓愈가 《魯論》에 있어서와 郭京이 《周易》에 있어서에 모두 고치고 바로 잡은 것이 있으니 비록 竹簡과 漆書가 과연 그 말과 같은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옛문장의 어긋나고 잘못된 것과 좌우로 傳會하여 說한 것을 (비교하여) 보건대 천발한 것이 없지 않으니 대개 이것이 辨正釋疑의(옳음을 분변하고 의심나는 것을 풀어내는) 條例이다라고 하였다.

【廖平註】

[1] 經籍訪古志라

[2] 四庫提要에 譏黃坤載하되 以脫簡으로 說難經이언마는 觀此跋면 則提要之誤 明矣라

【考察】

本編은 本注釋의 장점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本注釋의 장점은 옛글의 그릇된 것과 牽強附會한 것을 보아서 發明하여 바름을 分別하고 疑心을 풀었다고 하였다.

19-8. 宋龐安時難經辨

【原文】

宋史方技傳에 安時는 字 安常이요 蘄¹³³⁾州蘄水人이라 嘗曰世所謂醫書를 予皆見之어늘 惟扁鵲之言 深矣라 蓋所謂難經者는 扁鵲 寓術於其書

129) 韓愈(한유): 唐中期的 儒者이며 文章家로서 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이다. 字는 退之이고 鄆州(등주) 南陽사람이다. 벼슬은 國子監四門博士 國子博士 등을 거쳐 吏部侍郎에 이르렀음. 그의 문장은 古文을 모범으로 삼아 雄偉宏深하여 후세의 宗이 됨. 著書에 는 韓昌黎集 五十卷이 있음

로되 而言之不詳은 意者컨대 使人自求之歟아 予參以內經諸書하야 考究而得其說하노니 審而用之하고 順而治之하면 病不得逃矣리라 又欲以術로 告之後世라 故로 著難經辨의 數萬言하노라^[1]

【解釋】

《宋史·方技傳》에 安時는 字가 安常이고 蘄州蘄水의 사람이라 하였다. 그는 일찍이 世上에서 말하는 醫書를 내가 모두 보았거늘 오직 扁鵲의 말이 깊다고 하였다. 대개 所謂 難經이라는 것은 扁鵲이 그의 醫術을 그 책에 부쳐놓은 것이로되 말이 자세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건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구하게 한 것인가! 내가 《內經》등의 諸書를 參考하여 살피고 연구하여 그 說을 얻었노니 살피서 쓰고 順히 하여 다스리면 病이 逃亡하지 못하리라. 또한 그 醫術으로써 後世에게 알리고자 하므로 《難經辨》의 數萬言을 짓노라.

【廖平註】

[1] 案安時 發明人寸診法하야 駁兩手誤說하니 此書 當出爲撰이라

【考察】

本編은 本注釋家와 本注釋書의 장점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19-9. 宋李駒難經纂圖句解 七卷^[1]

【原文】

經籍訪古志補遺에 黃帝八十一難經撰圖句解 七卷이라 宋의 臨川 晞葉 李駒 子野 句解하나라 序에 稱大宋의 咸淳五年歲次己巳라하니 考國史經籍志四卷컨대 此本七卷은 亦道藏所析也라

【解釋】

《經籍訪古志補遺》에 黃帝八十一難經撰圖句解

130) 魯論(노론): 漢代에 魯나라에 傳한 論語. 現存하는 論語는 이 계통의 책이라 함.

131) 釐(리): 다스리다, 고치다

132) 左傳右會(좌우회): 좌우로 傳會한다는 의미인데, 傳會란 ① 억지로 이치에 맞춤, 즉 牽強附會 ② 붙임, 부착시킴 ③ 文章의 首尾가 一貫되게 완성함의 세가지 뜻이 있다. 여기에서는 의미상 ①의 뜻으로 쓰였다.

133) 蘄(기): 풀이름, 궁궁이 싹, 풍년들기를 기원하다, 재갈

七卷이라고 되어 있다. 宋의 臨川 晁堯 李駟 子野가 句解하였다. 序에 大宋의 咸淳五年歲次己巳라고 稱하였으니 《國史經籍志》 四卷을 살피건대 此本の 七卷은 또한 道藏本에서 나누어 놓은 것이다.

【廖平註】

[1] 經籍訪古志이라

【考察】

本編은 本注釋家에 대해 기술하였다.

19-10. 金紀天錫難經集注 金史五卷

【原文】

金史方技傳에 紀天錫은 字 齊卿이요 泰安人이라 早棄進士하고 業學醫하야 精於其技하야 遂以醫로 鳴世하나라 集註難經五卷하야 大定十五年에 上其書하야 授醫學博士라

【解釋】

《金史·方技傳》에 紀天錫은 字가 齊卿이고 泰安人이다. 일찍이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버리고 醫를 일삼고 배워서 그 技術에 精通하여 마침내 醫로써 世上에 이름을 떨쳤다고 하였다. 《難經》 五卷을 集注하여 大定十五年에 그 책을 (朝廷에) 올려서 醫學博士를 받았다.

【考察】

本編은 本注釋家에 대해 기술하였다.

19-11. 明^[1] 輯難經集注五卷^[2]

【原文】

經籍訪古志補遺에 王翰林 集注八十一難經 五卷이라하니 此本은 依明板하야 鑿刻者이니 其板이 往罹祝融¹³⁴일새 今世希有러니 林天瀑 祭酒¹³⁵ | 活字擺¹³⁶印하야 收入佚存叢書中이언마는 而阮元 四庫에 未收書하고 提要에 舉有其本할새 寬政中에 醫官千百과 子敬 | 亦有重刊하니 其功 | 不可沒矣라 林天瀑跋에 難經集注 五卷은 明王九思等이 集錄하니 呂廣과 唐의 楊元操와 宋의 丁德用과 虞庶와 楊康侯 | 注解者라하니 按晁公武의 郡齋讀書志 건대 載呂楊匡一卷 丁注五卷 虞注五卷하고 陳振孫

書錄解題에 載丁注二卷하고 馬端 經籍考에 引晁氏하야 作呂楊注五卷하니 蓋當時各家 | 別行이어늘 王九思等 | 摺輯하야 以便觀覽耳라 葉盛篆竹當書目에 載難經集注一冊 不著撰人名氏하니 此則書名 偶同이요 非九思所集이니 按王圻¹³⁷의 續經籍攷에 載金紀天錫의 難經集注五卷은 盛之所收라하니 恐此耳라 盛은 正統進士요 九思는 宏治進士이니 則其非是編也 | 明矣라 其他諸家藏棄¹³⁸書目과 及乾隆四庫全書總目도 並未收入하니 若殷仲春¹³⁹의 醫藏目錄이면 宜稟¹⁴⁰蒐¹⁴¹無遺어늘 而亦遺之 하니 蓋似失傳者然이니 不餘不涉醫家로대 但知據 目錄考之耳라 因質諸醫家廉夫¹⁴²한대 廉夫 | 醫

135) 祭酒(채주): ① 옛날에 會同饗饌에 尊長者가 먼저 술로 땅에 제사지내던 일, 後에 轉하여 ② 學政의 장관을 일컫음

136) 擺(파): 열리다, 벌리다, 헤치다, 벌여 놓다, 배열하다

137) 圻(기): 京畿, 지경, 끝

138) 藏棄는 '棄'의 略字와 '棄'(거: 감추다) 字가 비슷하기 때문에 誤植한 듯하니, 藏弃(장거)의 誤字이다. 藏弃는 書畫 등을 간직 하는 것을 말한다

139) 殷仲春: 字는 方叔이고 號는 東臯子이다. 明代 浙江 秀水縣 사람이다. 博學多識하고 더욱 醫理에 정밀하여 治病에 奇效가 많았다. 평생토록 대담하고 솔직하여 가난에 合하고 權勢에 不부하지 않았다. 晩年에는 城南에 隱居하여 비록 茅屋草舍에 죽을 겨우 구하여 먹더라도 淡泊하고 自適하였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사립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문밖에서 진찰받기를 기다리는 자가 이미 가득하였다. 殷仲春은 貴賤을 가리지 않고 일일이 진찰하여 危重한 疾病이라도 應手할 때마다 모두 나았다. 일찌기 그 아들에게 "醫爲司命 若藥用兵 寧以儒貧 勿以醫戲"이라 말하였다. 어려서는 일찌기 寧郡에서 遊學하여 朱純字 饒道遵과 諸家의 所藏 醫書를 얻어 보아서, 마침내 그 書名 卷數 作者를 기록하여 二十類로 나누어 《醫藏書目》(《醫藏目錄》이라고도 한다) 一書를 編纂하여 세상에 刊行하였다. 별도로 《疹子心法》 一卷이 있는데 또한 刊行되었다. 그의 아들 殷志伊와 손자 殷觀國과 曾孫 殷銘은 모두 醫術에 정밀하였다.

140) 稟(부): 모으다, 모이다, 줄다, 달다

141) 蒐(수): 모으다, 사냥하다, 꼭두서니

142) 廉夫: 盧和와 葛蔭春의 字가 모두 廉夫

134) 祝融(축융): 불을 맡은 神, 轉하여 火災를 의미함

書を 絶無援引하니 久疑散佚일새니 廉夫 | 於醫家에 雅稱¹⁴³ 治이언마는 而其言 | 如此하니 則知其果失傳이라 擘¹⁴⁴經室外集提要에 明의 王九思는 字 | 敬夫요 鄆¹⁴⁵縣人이니 宏治 十才子之一 丙辰에 進士하야 由庶吉士授檢討와 調吏部主事하야 陞¹⁴⁶郎中하고 坐劉瑾黨하고 降壽州同知하야 尋勅致士하니 事迹은 附明史李夢陽傳어니와 餘則未詳이라 九思 | 因書吳의 呂廣과 唐의 楊玄操와 宋의 丁德用과 虞庶와 楊康侯의 各家之說하야 彙爲一書하야 以便觀者라하니 按宋의 晁公武讀志컨대 云德用은 以楊玄操所演 | 甚失大義일새 因改正之하고 經文隱奧者를 繪爲圖以明之라하니 然則圖說은 殆德用所爲라 是編은 日本이 用活字版擺印하니 呂楊各注를 今皆未見이언마는 傳本은 亦藉此以存矣라

【解釋】

《經籍訪古志補遺》에 王翰林이 八十一難經 五卷을 集注하였다하니 이 版本은 明代의 板本에 依하여 刊行한 것이니 그 板本이 전에 火災를 만났기 때문에 今世에 드물게 있더니 林天瀑 祭酒가 活字하고 印刷하여 《佚存叢書》中에 收入했건마는 阮元의 四庫에 책이 실리지 않고 提要에만 그

이다. 葛蔭春은 近代 江蘇 江都縣의 사람으로 元代 名醫 葛乾孫의 후예이다. 葛蔭春 역시 醫術에 通하여 일찌기 “爲人子者 不可不知醫 非通儒不能爲醫”라고 말하였다. 庸醫가 배우지 아니하고 醫術이 없이 人命을 경시하는 것에 느낀 바가 있어서 이러한 頹敗한 風潮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므로 이십년동안 蒐集한 노력을 모아서 《古今名醫言行錄》一書を 編輯하여 1927년에 刊行하였다. 또한 《肺病論》三卷을 지었는데 또한 간행되었다. 한편 盧和는 明代 浙江 東陽縣의 사람이다. 知醫로서 일찌기 本草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을 취하여 《食物本草》二卷을 編纂하였다. 또한 朱震亨의 門人이 編纂한 朱氏諸書를 취하여 刪正하고 裁取하여 《丹溪纂要》四卷(一說에 八卷)을 編輯하여 두 책이 세상에 함께 刊行되었다. 여기에서는 廖平이 清代의 사람이므로 그와 同時代人 사람에게 물어보았을 것이므로 ‘廉夫’는 葛蔭春을 지적하는 것이며, 葛蔭春의 著書인 《古今名醫言行錄》이란 뜻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여러 醫家에 대해서 博學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으니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板本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에 寬政中에 醫官 千百餘名과 子敬가 또한 重刊한 일이 있으니 그 功이 可히 없어질 수 없다. 林天瀑跋에 難經集注 五卷은 明代의 王九思 등이 集錄하였으니 呂廣과 唐의 楊元操와 宋의 丁德用과 虞庶와 楊康侯 | 注解한 것이다 하였으니 晁公武의 《郡齋讀書志》를 살펴 보면 呂楊匡一卷 丁注五卷 虞注五卷이라 기재하였고, 陳振孫의 《書錄解題》에 丁注二卷이라고 기재하였고, 馬端의 《經籍考》에 晁氏의 說을 引用하여 呂楊注五卷이라 지으니 대개 當時의 各家(의注)가 별도로 行하였거늘 王九思 등이 撮고 모아서 찾아보기에 편리하게 하였을 뿐이다. 《葉盛篆竹當書目》에 難經集注一冊 不著撰人名氏이라 기재하였으니 이는 書名이 우연히 같은 것이고 王九思가 모은 것이 아니니 살펴건대 王圻의 《續經籍攷》에 金代의 紀天錫의 難經集注 五卷은 盛이 收錄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니 아마도 이것일 뿐이다. 盛은 正統間의 進士이고 九思는 宏治間의 進士이니 즉 그 이 編이 아님이 明確하다. 그 다른 諸家의 藏葉書目 및 乾隆間의 《四庫全書總目》에도 아울러 收入되지 않았으니 예를 들어 殷仲春의 《醫藏目錄》같으면 마땅히 모으고 蒐輯하여 빠뜨린 것이 없거늘 또한 빠뜨리니 대개 실전된 것 같고 여긴 것이니 나머지 醫家에 대해 涉獵하지 않음이 없으나 다만 目錄에 根據하여 살폈을 뿐이다. 因하여 醫家인 廉夫에게 물어보니 廉夫가 (그) 醫書를 결코 끌어서 인용하지 않았다 하니 오래도록 散佚되었음을 의심하였기 때문이니 廉夫가 醫家에 대해서 (知識이) 알맞고 상당하고 넉넉하고 洽足하건마는 그의 말이 이와 같으니 그 果연 失傳된 줄로 안 것이다. 《擘經室外集提要》에 明의 王九思는 字가 敬夫이고 鄆縣人이니 宏治의 十才子의 한 사람이다. 丙辰에 벼슬에 올라 庶吉士授檢討와 調吏部主事를 거쳐서 郎中에 오르고 劉瑾黨을 지내고 降壽州同知에 降等되어 詔勅을 받아 벼슬을 그만두니 事迹은 《明史·李夢陽傳》에 부쳐져 있거나와 나머지는 자세하지 않다. 王九思가 因하여 吳의 呂廣과 唐의 楊玄操와 宋의 丁德用과 虞庶와 楊康侯의 各家의 說을 써서하야

143) 眩(해): 즉하다, 넉넉하다, 이상하다, 재물

144) 擘(연): 연마하다, 문지르다, 깨치다, 갈다

145) 鄆(호): 땅이름, 夏나라의 扈國(호국)

146) 陞(승): 어르다, 나아가다, 전진하다

모아서 一書를 만들어서 찾아 보는데 편리하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宋의 《晁公武讀志》를 살펴보면 德用은 楊玄操가 演釋한 것이 甚히 大義를 잃었으므로 因하여 고치고 바로 잡고 經文에서 隱微하고 深奧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밝혔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圖說은 거의 德用이 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編은 日本이 活字를 사용하여 版에 印을 排列한 것이니 呂楊의 各注를 이제 모두 볼 수는 없지만 그 板本이 傳해지는 것은 또한 이것에 의하여 保存되었다.

【廖平註】

- [1] 王九思 石友諒 王鼎象 王維一이라
- [2] 守山閣叢書刊本이라

【考察】

本編은 《難經》의 傳世의 어려움, 本注釋書의 長點, 本注釋家 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難經》의 傳世의 어려움은 本注釋書는 明版이 火災로 없어진 것을 林天澤이 活字 組版하여 《佚存叢書》중에 收入하였으나 阮元의 四庫와 提要에도 그 책이 없다고 竟政中에 子敬이 重刊하여 전해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本注釋書의 長點은 당시에 各 注釋書가 별도로 行해져 오던 것을 王九思가 모아서 보기에 便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本注釋家는 王圻의 《續經籍考》에 《難經集注》가 이름이 盛인 사람이 모은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盛은 正統間의 進士이고 王九思는 宏治間의 進士이니 시대상으로 보아 분명히 王九思가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19-12. 明張世賢圖注難經 四庫存目八卷

【原文】

四庫提要에 賢은 字| 天成이요 寧派人이니 正德中의 名醫也라 難經| 舊有吳의 呂廣과 唐의 楊元操諸家注러니 宋嘉祐中에 丁德用이 始於文義隱奧者를 各爲之圖하고 元滑壽| 作本義에 亦有數圖라 然이나 皆不備라 世賢| 是編於八十一編하야 編編有圖하니 凡注所累言不盡者를 可以按圖而解라 惟其中에 有文義顯然者는 不必待圖始解者어늘 亦強足其數하니 稍爲冗贅하고 其注| 亦循文敷衍하니 未造深微라^[1]

(陸敬安 冷廬雜識八에 徐靈胎難經經釋은 辨正誤謬하야 有功醫學하니 其釋에 分寸爲尺하고 分寸爲

寸하되 云關上分去一寸하면 則餘者| 爲尺이요 關下分去一尺하면 則餘者| 爲寸이라하니 詮解明晰하니 可謂要言不煩이라^[2]

傅氏| 按坊刻徐氏六種은 爲本草經百種과 蘭臺軌範과 傷寒類方과 醫學源流論과 難經經釋과 醫貫砭이니 皆已收入四庫者어늘 其未收入而別行者| 尙有하니 涇溪醫案과 慎疾芻言兩種이라 近有十三種之刻하니 則又附益他書하야 不盡醫籍이라 徐氏醫學| 博大深厚하야 言足爲法하니 實爲國朝太醫之冠요 其用力最深이 端在難經經釋一書하니 正如爾疋^[147]는 本爲詁^[148]經而作이언마는 而注釋에 不能不以轉引衆經詮^[149]釋하니 爾疋| 爲第一要義라 徐氏經釋도 取義正同이라)

【解釋】

《四庫提要》에 張世賢은 字가 天成이고 寧派人이니 正德中의 名醫이다. 難經이 옛부터 吳의 呂廣과 唐의 楊元操의 諸家의 注가 있더니 宋代 嘉祐中에 丁德用이 비로소 文義에 隱微하고 深奧한 것을 各各 그림을 그리고 元代의 滑壽가 《本義》를 지을 때에 또한 여러 그림이 있었다. 그러나 모두 (완전히) 갖추어 지지 않았다. 世賢이 이에 八十一編을 지어서 하라 編마다 그림이 있으니 모든 注에서 여러번 말했으나 未盡한 것을 可히 그림을 살펴서 解釋하였다. 오직 그 中에 글 뜻이 分明한 것은 그림을 기다리지 않아고 비로소 解釋되는 것이 있거늘 또한 억지고 그 數만을 채웠으니 약간 庸劣하고 군더더기가 되고 그 注가 또한 글을 따라서 敷衍만 하였으니 甚고 玄微한 곳에 이르지는 못했다.

陸敬安의 《冷廬雜識》八에 徐靈胎의 《難經經釋》은 誤謬를 分別하고 바로 잡아서 醫學에 功이

147) ① 疋(소): 기록하다, 짝, 끝, 발, 낮은 벼슬아치, 바르다, ② 疋은 正 또는 雅의 寸字이므로 《爾雅》를 지칭한다. 《爾雅》는 十三經의 하나로서 가장 오래된 字書이며, 天文 地理 音樂 器財 草木 鳥獸 등에 대한 古今의 文字를 설명한 책으로 十九卷으로 되어 있고 作者는 未詳이나 內容으로 보아서 宋代의 學者들이 集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內容으로 보아 冊名인 《爾雅》를 지칭하는 듯하다.

148) 詁(고): 주내다, 문자의 뜻 및 고어의 해석

149) 詮(진): 설명하다, 평론하다

있으니 그 寸을 나누면 尺이 되고 尺을 나누면 寸이 됨을 解釋하되 關上에서 나누어 一寸을 가면 그 나머지가 尺이 되고 關下에서 나누어 一尺을 가면 그 나머지가 寸이 된다고 하였으니 詮解가 明昕하니 可히 말을 요약하되 번잡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傅氏가 살피건대 坊刻本の 徐氏六種은 《本草經百種》과 《蘭臺軌範》과 《傷寒類方》과 《醫學源流論》과 《難經經釋》과 《醫貫砭》이니 모두 이미 四庫에 收入되었거늘 그 아직 收入되지 않고 별도로 行하는 것이 여전히 있으니 《洄溪醫案》과 《慎疾芻言》의 兩種이다. 거의 十三種의 판본이 있으니 또한 다른 책을 덧붙여서 모두 醫書는 아니다. 徐氏의 醫學이 博大하고 深厚하여 그의 말이 足히 (본받을 만한) 法이 되니 하니 實로 國朝(清代)의 太醫의 벼슬이고 그가 힘을 쓴 것 중에 가장 깊은 것이 그 실마리가 《難經經釋》 一書에 있으니 바로 《爾雅》는 본래 經을 解釋하기 위하여 지어진 것이건마는 注釋할 때에 能히 모든 經의 詮釋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爾雅》가 第一의 要義가 된 것과 같다. 徐氏의 《經釋》도 뜻을 取한 것이 바로 이와 같다.

【廖平註】

[1] 此書 最陋劣하니 不足言坊間通行本也라

[2] 身寸法은 從腕至肘尺澤穴으로 爲尺이요 非一尺一寸이니 分去一寸이면 餘九分이요 分去一尺이면 則至腕矣이니 大誤라 此等僞說은 如何可通이리오

【考察】

陸敬安의 내용과 傅氏의 내용은 《難經經釋》에 관한 것으로 本編과는 무관한데 아마도 錯簡인 것 같다.

歷代 注釋과 本注釋書의 장단점, 本注釋書의 장점.

歷代 注釋에서 丁德用가 비로소 그림으로 설명하고 滑壽 또한 여러 그림을 그렸으나 本注釋書는 편마다 그림을 그려서 말로다 표현하지 못한 것을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19-13. 國朝黃元御難經懸解^[1]

【原文】

四庫提要에 難經之出이 在素問之後요 靈樞之前이라^[2] 故로 其中所引經文이 有今本所不載者라^[3]

然이나 其文 自三國以來로^[4] 不聞有所竄亂어늘^[5] 元御 亦謂舊本有譌^[50] 하고 復多所更定하니^[6] 均所謂我用我法也라하니라^[7] 傅氏 案李瀕湖脈學하야 考證書目컨대 所載 尙有陳瑞孫 王宗正 張元素 熊宗立 宋廷臣 謝晉翁이라하나 未見傳本이라^[8]

【解釋】

《四庫提要》에 《難經》이 나온 것이 《素問》의 뒤이고 《靈樞》의 앞이므로 그 中에 經文을 引用한 것이 今本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나 그 글이 三國으로부터 고쳐지고 어지럽혀진 것이 있다고 듣지 못했거늘 黃元御가 또한 舊本에 바뀐 것이 있고 다시 고쳐서 定한 것이 많다고 말하였으니 모두 이른바 나는 나(나름대로)의 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傅氏가 《李瀕湖脈學》을 살펴서 書目을 考證하건대 기재한 것에 오히려 陳瑞孫 王宗正 張元素 熊宗立 宋廷臣 謝晉翁이 있다고 하였으나 傳해진 版本을 보지 못하였다.

【廖平註】

[1] 四庫存目二卷이라

[2] 提要에 醫部 最淺陋如此說하니 眞乃目不識이라 丁雖村學究이나 亦不足言矣이라

[3] 原注는 滑壽難經本義라

[4] 信呂注 爲眞이라

[5] 齊梁以後에 乃出之하니 書自無古本之異同이라

[6] 注難經諸本에 無人不有更定하니 何獨怪黃氏리오 是其原本은 全未寓目이니 無怪其以爲眞古書라

[7] 苟細考漢晉至隋唐 古診法컨대 其書之眞僞를 自見이라

[8] 按丹波氏 於諸家에 有引用者하니라

20. 難經懸解提要駁義 廖平撰^[1]

【原文】

國朝의 黃元御 撰이라 難經之出 在素問之後요 靈樞之前이라^[2] 故로 其中所引經文有 今本所不載者라^[3] 然이나 其文自三國以來로 不聞有所竄亂어어늘^[4] 元御亦謂舊本有譌하고 復多所更定하니 均所謂我用我法也라^[5]

靈樞 爲經이요 素問 爲傳은 素問所引經曰이

150) 譌(와): 거짓말, 바뀌다, 변화하다

多出靈樞일새니 此는 醫家之通論이라 元明以來로 莫之或易者러니 提要에 乃以難經 | 爲在內經之前이라하니 不知難經所引經曰이 出於靈樞者多하고 素問에 竝無其文이니 何以謂經이 反在問難之後리오 甲乙은 從靈樞하야 鈔輯而成하니 靈樞는 爲原書요 甲乙은 爲類輯之本이라 甲乙原書에 不著篇名이러니¹⁵¹⁾ 今靈樞에 各有篇名하고 首尾完具하니 如前清이 開四庫館하야 修書에 從永樂大典의 輯出之書 數百種이면 而原本尙存者는 其篇目次序의 完缺이 各不相同이라 甲乙은 爲大典輯本이요 靈樞는 爲佚存原書이러니 今乃謂原本完善이면 爲由大典本하야 採綴而成이니 眞爲悖繆라 前人疑靈素者는 因以爲黃帝時眞書 | 必有異於戰國以後文字이니 試問古今에 究以何書爲眞黃帝時手筆耶아 以今本靈樞로 爲僞하면 則必以甲乙所錄之本으로 爲眞矣리라 試問甲乙之所以勝於今本者는 何在오 杭大宗이 疑心生하야 暗鬼所指的 靈樞爲僞之諸條件을 靈樞有之하고 甲乙遂無之耶아 凡古今僞書 | 皆衍空言하야 不能徵實하니 如僞古文尙書之類 | 是也라 靈樞所載의 臟腑經絡筋骨은 較素問에 尤爲徵實이니 與攷工이 記之鉤心¹⁵¹⁾ 門角¹⁵²⁾ 比寸較尺으로 相同이라 後人이 不能僞造一節二節이어늘 何況繁重 | 至於八十一篇之巨帙乎아 試問僞書攷中에 除一篇一卷의 空言理數外에 再有如此하야 徵實僞書之巨部者乎아 蓋六書之文은 出於孔子하야 黃帝古書 | 全屬依託하니 不止靈素爲然이라 若以雜有後世事實로 書原託祖하야 記錄在後면 春秋以上에 有何六書古書 | 相傳이리오 今以儒法의 經記傳問說解로 攷之六門之書컨대 至少必更六傳하니 如孔子 | 作經하고 弟子門人이 作記與大傳이라가 下至漢初에 乃以問說名書니 今傳公穀은 定於武宣之代하고 釋書道藏도 其例 | 相同이라 今靈素具有六種書體하고 全書同稱黃岐釋迦하니 卽著經하고 又作論說語錄은 此 | 必無之事니 本書所以不避雷同之嫌은 蓋藉以明依託之旨 | 如盜跖斥仲尼하고 卞¹⁵³⁾和愧文仲作者이니 非不知時代 不符特留라 此破綻以啓人領悟耳라 黃岐作經에 必不能再作이니 卽已據經問難이면 則必在數傳以後이어늘 況靈素以解評名篇이 至六七見하니 此 | 豈一人所爲이며 而皆託於黃岐이리오 此 | 如本草之於神農과 湯液之於伊尹이 託始寓言이니 非眞有古書不然이라 試就全上古三代文中 하야 攷之컨대 所有堯舜以前之文字는 與戰國로 有

何分別고 藉此하면 可以自悟孔子以前에 竝無古文之書傳이리라 凡託古人書는 皆出孔後이니 實則靈素 | 全出孔門하야 以人合天하니 大而九野十二水는 爲平天下之大法이요 小而毛髮支絡은 爲治一身之疾病이라 先知前知하야 理無違異하니 不假於解剖하고 無待於試라 嘗弟子撰述하야 初作經篇에 素問問難 | 半成이라가 於扁鵲倉公以後에 書雖晚出이나 不改師傅이라 故로 同目이라 黃岐 | 以端로 趨向이라 故로 二經은 凡屬陰陽五行者 | 爲九流專家之書이니 乃尙書之師說이 非專於治病이라 若治病之書이면 以經絡臟府로 爲要요 不徒陳五行이라 今爲分出國病二門과 相醫二法하니 經學은 得以光明이요 醫學도 亦不岐道亡羊¹⁵⁴⁾矣라

提要에 以難經爲眞하고 越人已可怪러니 至以呂注爲眞出三國이라하니 則尤爲無識이라 考難經컨대 新唐書에 乃題秦越人은 原不足據어나와 呂注 | 亦必出依託은 無疑라 隋志注中에 雖有七錄에 有呂注이나 明言已亡이라하니 是呂注를 隋志 | 已不著錄이어늘 今復有傳本은 必後人假託爲之니 僞中之僞니 此 | 有實據요 非空言也라 考呂稱吳太醫令컨대 其人이 與鄭康成과 仲景으로 相先後요 叔和와 士安之前이니 仲景書幾亡하고 而賴叔和以存呂書하니 乃能附難經하야 以獨傳經 이라 至宋하야 始題撰名이언마는 而注則早在千載以上하니 一也라 康成과 仲景은 篤守古法이요 叔和와 士安은 不參異學이요 雖下至千金外台라도 亦然이어늘 呂氏一人이 乃於三國時에 已創專診兩手之法하니 經晚而注先은 萬無此理이니 二也라 靈素二經之主¹⁵⁵⁾ | 今存書는 以隋楊氏로 爲最古요 單素問注는 始唐王氏요 單靈樞注는 至明에야 乃有之어늘 而呂氏時代는 乃與仲景으로 同하야 遠在隋明千載以上이어늘 使果眞書 | 豈非醫門至寶와 扁鵲遺法이면 必多存留이리오 今攷呂注컨대 空疏譚¹⁵⁶⁾漏하고 順文敷衍하야 與紀滑의 晚出之書로 有何分別이리오 以此爲眞古書이면 則申¹⁵⁷⁾培 詩傳에 子夏詩序도 亦眞三代漢初

151) 鉤心(구심): 수레의 굴대 또는 지붕의 중심

152) 門角(투각): 闕角과 全字, 지붕의 모서리가 모여 합치는 것

153) 卞(변): 조금하다, 법, 맨손으로 치다

154) 亡羊(망양): '亡羊之歎'의 준말로, 도망한 羊을 쫓는데 갈림길이 많아서 마침내 잃어버리고 탄식하였다는 뜻으로, 學問의 길이 多方面이어서 眞理를 깨닫기가 어려움을 恨歎하는 것을 比喩한 말이다.

155) '主'字는 '注'字의 誤植인 듯하다.

156) 譚(전): 알다, 천박하다

之書矣이니 三也라 三國時에 吳人注書 | 今所存이 國語章注와 陸氏易說은 與兩漢로 不甚相遠이라 今以呂注로 比章陸면 何啻霄壤之別이리오 四也라 專診兩寸이 創於難經은 丹波元簡과 唐容川이 言之詳矣니 唐君이⁷⁾ 康成之寸口 陽明九藏으로 同法하고 內經仲景이 於婦女에 亦診趺陽少陰이라 呂氏生長에 其時에 何能突改古法 하야 創診兩手이리오 此는 齊梁以後에 婦女不便診喉足할새 乃立此法하야 以求食이니 經在叔和以後하고 注出叔和以前하니 五也라 大抵今本呂注는 因隋志之文하야 而補撰이요 隋志 | 卽爲此本이라하니 尤僞中之僞라 紀熊號 | 爲博極群書하야 善於甄¹⁵⁸⁾鑿어언마는 以靈樞爲僞하고 呂注爲眞하니 其與三家村學究로 相去幾何오 此는 則不能曲爲之諱者也라 (違異 | 不假於解剖하고 無待於試어늘 嘗弟子撰述하야 初作經篇에 素問問難이 半成이라가 於扁鵲倉公以後에 書雖晚出이나 不改師傅이라 故로 同目이라 黃岐 | 以端로 趨向이라 故로 二經은 凡屬陰陽五行者 | 爲九流專家之書이니 乃尙書之師說이 非專於治病이요 若治病之書이면 以經絡臟腑爲要요 不從¹⁵⁹⁾陳五行이라 今爲分出國病二門과 相醫二法하야 經學는 得以光明하고 醫學亦不岐道亡羊矣라)¹⁶⁰⁾

【解釋】

國朝(清代)의 黃元御가 지었다. 《難經》이 나온 것이 《素問》의 뒤이고 《靈樞》의 앞에 있다. 따라서 그 中에 經文을 인용한 것에 今本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나 그 글이 三國以來로 부터 고치고 어지럽혔다는 것을 듣지 못했거늘 黃元御가 또한 舊本에 거짓이 있고 다시 고쳐서 定한 것이 많으니 모두 이른바 나는 나의 법을 쓴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靈樞》가 經이 되고 《素問》이 傳이 됨은 素問에서 引用한 經曰이 《靈樞》에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이니 此는 醫家의 通論이다. 元明以來로 或 바꾸는 者가 없더니 提要에 이에 《難經》이 《內經》의 前에 있었다고 하니 《難經》에서 引用한 經曰이 《靈樞》에 나오는 것이 많고 《素問》에 아울러 그 글이 없으니 어찌 經이 도리어 問難(《難經》)한 뒤에 있다고 말하리오! 甲乙은 《靈樞》를 따라서 베끼고 모아서 이루었으니 《靈樞》는 原書가 되고 《甲乙》은 類別로 모은 本이다. 《甲乙》의 原書에 篇名이 없더니 이제 《靈

樞》에 各各 篇名이 있고 首尾가 완전히 갖추어졌으니 예를 들어 前에 淸나라가 四庫館을 열어서 책을 정리할 때에 永樂大典의 모아낸 책 數百種을 따랐다면 原本이 아직도 있는 것은 그 篇目的 次序가 (永樂大典本과) 完全함과 缺損된 것이 各各 서로 같지 않을 것이다. 《甲乙》은 《大典》의 輯本이고 《靈樞》는 《佚存》의 原書이니 지금에 이에 原本이 完善하다고 말하는 것은 《大典》本으로 말미암아 모으고 꺾어서 이루었으니 진실로 어그러지고 그릇되었다. 前人이 《靈》《素》를 의심하는 것은 黃帝時의 眞書에 반드시 戰國以後의 文字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니 시험삼아 물어 보건대 古수에 어떤 책이 진실로 黃帝時의 손으로 쓴 것이라고 研究하였는가? 今本의 《靈樞》로 僞書라고 하면 반드시 《甲乙》에 기록된 本으로 眞本을 삼을 것이리라. 시험삼아 묻건대 《甲乙》이 今本보다 나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杭大宗이 疑心이 생하여 暗鬼로 지적한 《靈樞》이 僞書가 되는 諸條件을 《靈樞》에 있고 《甲乙》에 드디어 없어서인가? 무릇 古수에 僞書가 모두 빈 말을 敷衍하여 能히 眞實을 徵驗하지 못하니 僞古文인 尙書와 같은 類가 이것이다. 《靈樞》에 기재된 臟腑 經絡 筋骨은 《素問》와 비교해 보면 더욱 眞實을 徵驗할 만하니 攷工이 이 지봉의 중심과 지봉의 모서리가 모인 곳에 기록함에 寸으로 비교하고 尺으로 비교함과 서로 같다. 後人이 能히 一節 二節도 僞造하지 못하거늘 어찌 하물며 繁多하고 많기가 八十一篇인 巨帙(《難經》)에 이르겠는가! 시험삼아 묻건대 《僞書攷》中에 一篇一卷에서 理數를 헛되히 말한 것 이외에 다시 이와 같이 眞實을 徵驗한 巨部(《難經》)가 있겠는가! 대개 六書의 글은 孔子에서 나와서 黃帝의 古書가 모두 依託한 것에 속하니 《靈樞》와 《素問》만 그러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잠된 後世에 있는 事實로 근원을 쓰고 始祖를 依託하여 記錄한 것이 뒤에 있으면 春秋時代 以上에 어찌 六書의 古書가 相傳한 것이 있으리오! 이제 儒法의 經에 記錄 傳問 說解로 六門의 글을 살펴건대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반드시 六傳을 고쳤으니 예를 들어 孔子가 經을 짓고 弟子門人이 記와 大傳을 짓다가

158) 甄(견): 살피다, 나타내다, 밝히다, 교화하다, 질그릇을 굽다.

159) '從'字는 '徒'자로 되어 있으니 文脈上 徒가 맞는 듯하다.

160) 上文에 거듭 나왔다

157) 申(신): 거듭하다

아래로 漢初에 이르기까지 이에 說을 묻고 글에 이름을 지으니 이제 春秋의 公羊傳과 穀梁傳은 武宣의 代에 定해지고 佛書 道藏도 그 例가 서로 같다. 이제 《靈樞》와 《素問》에 모두 六種의 書體가 있고 全書에도 한가지로 黃帝 岐伯 釋迦를 稱하니 卽 經을 짓고 또한 論說 語錄을 짓는 것은 이는 반드시 없는 일이니 本書가 附和雷同하는 嫌疑를 피하지 못하는 까닭은 대개 藉賴하여 依託한 뜻을 밝힌 것이 如盜跖이 斥仲尼를 排斥하고 卞(161)和가 文仲을 모욕하려고 지은 것과 같으니 時代를 알지 못하고 특별히 머무르는데 符合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는 破綻하여 사람을 깨우쳐서 要領을 깨우치게 할 따름이다. 黃帝 岐伯이 經을 지음에 반드시 能히 다시 짓지 못하니 卽 이미 經에 근거하여 질문을 하니 즉 반드시 여러번 傳한 以後에 있거늘 하물며 《靈樞》 《素問》이 評을 解釋하고 篇을 이름하는 것이 六七번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니 이는 어찌 一人이 한 것이며 모두 《黃帝》와 《岐伯》에게 依託하리오! 이는 本草의 神農에 있어서와 湯液의 伊尹에 있어서가 始作을 依託하고 말을 부치니 진실로 古書가 그렇지 않음이 있음이 아니다. 시험삼아 모든 上古三代의 글중에 나아가서 살펴건대 堯舜以前에 있던 文字는 戰國의 文字와 어떻게 分別하는가? 이에 의하면 可히 저절로 孔子以前에 아울러 古文의 書傳이 없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무릇 古人에게 의탁한 책은 모두 後에 나오니 실제인 즉 《靈樞》 《素問》이 모두 孔門에서 나와서 사람으로 하늘에 승하니, 크게는 九野 十二水是 天下를 平正하는 大法이고 적게는 毛髮과 支絡이 一身의 疾病을 다스리는 것이 된다. 먼저 알고 미리 알아서 理致가 어긋나고 다름이 없으니 解剖함을 빌리지 않고 試驗함을 기다리지 않는다. 일찍이 弟子가 짓고 記述하여 처음에 經篇을 지을 때에 《素問》의 질문이 반정도 이루어 졌다가 扁鵲倉公以後에 글이 비록 늦게 나왔으나 스승의 전함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題目을 같게 하였다. 黃帝 岐伯이 실마리로 달려가고 나아갔으므로 二經은 모두 陰陽五行에 속하는 것이 九流專家的 글이 되니 이에 尙書의 스승의 말이 治病에만 專門한 것이 아니다. 만약 病을 治療하는 글이면 經絡臟府로써 要領을 삼지 한것 五行을 배풀지는 않았다. 이제 國과 病의 二門과 相과 醫의 二法으로 나뉘어 나왔으니 經學은

언어 빛나고 밝으나 醫學도 또한 갈림길로 하여 羊을 잃지 않는다.

提要에 《難經》으로 진짜로 삼고 越人을 이미 可히 怪異하게 여기더니 呂注로 진실로 三國에서 나온 것이라고까지 하는데 이르니 더욱 無識하다. 《難經》을 살펴보건대 《新唐書》에 이에 秦越人으로 題目한 것은 원래 根據하기에 不足하거나와 呂注가 또한 반드시 依託에서 나온 것은 疑心할 것이 없다. 《隋志》注중에 비록 《七錄》에 呂注에 있으나 분명히 이미 없어졌다고 하였으니 이는 呂注를 隋志에서 이미 記錄하지 않았거늘 이제 다시 전해지는 本이 있는 것은 반드시 後人이 假託하여 만든 것이니 거짓중의 거짓이니 이는 실제의 근거가 있는 것이고 빈 말이 아니다. 呂注에서 稱한 吳의 太醫令을 살펴보건대 그 사람이 鄭康成과 仲景과 서로 先後이고 叔和와 士安의 前이니 仲景의 글에는 거의 없어지고 叔和에 의하여 呂廣의 글이 있으니 이에 能히 《難經》에 부쳐서 홀로 經을 전한 것이다. 宋代에 이르러서 비로소 지은 이의 이름을 題目하였건다는 注는 일찍이 千年以上에 있으니 (偽書의 證據中) 하나이다. 康成과 仲景은 古法을 돈독히 지켰고 叔和와 士安은 다른 學問에 참여하지 않았고 비록 아래로 《千金方》 《外臺秘要》에 이르더라 또한 그러하였거늘 呂氏一人이 이에 三國時에 이미 兩手를 오로지 診脈하는 法을 만드니 經은 늦고 注가 먼저 함은 萬에 하나라도 이런 理致가 없으니 (偽書의 證據中) 둘이다. 《靈樞》 《素問》 二經의 注가 이제 글이 보존된 것은 隋代의 楊氏가 最古이고 《素問》만의 注는 唐代의 王氏에서 시작하였고 《靈樞》만의 注는 明代에 이르러서야 이에 있거늘 呂氏의 時代는 이에 仲景과 같아서 멀기가 隋明에 千年以上이 있거늘 가령 과연 眞書가 어찌 醫門의 至寶와 扁鵲의 遺法이 아니라면 반드시 보존되고 남은 것이 많으리오! 이제 呂注를 살펴보건대 비었고 疏略하고 알고 빠뜨리고 글을 따라서 敷衍하여 紀氏 滑氏의 나중에서 나온 글과 어떻게 分別할 수 있으리오! 이로써 진짜의 古書로 삼으면 詩傳를 거둬두고 더함에 子夏의 詩序도 또한 진짜의 三代 漢初의 글일 것이리니 (偽書의 證據中) 셋이다. 三國時에 吳人이 글을 注한 것이 지금 있는 것과 國語 韋注와 陸氏 易說은 兩漢과 甚히 서로 멀지 않다. 이제 呂注로써 韋注와 陸氏에 비교하면 어찌 하늘과 땅의 차이일 뿐이리오 (偽書의 證據中) 넷이다. 兩寸을 오로지 診脈하는 것이 《難經》에

161) 卞(변): 조금하다, 법, 맨손으로 치다

서 創始한 것은 丹波元簡과 唐容川이 말한 것이 자세하니 唐君이 康成의 寸口와 陽明 九藏과 同法이고 《內經》 仲景이 婦女에 또한 趺陽 少陰을 診脈하였다. 呂氏가 生長함에 그 때에 어찌 能히 古法을 갑자기 고쳐서 兩手를 診脈하는 것을 시작 하리오! 이는 齊梁以後에 婦女가 診喉와 足을 診脈하기에 不便하기 때문에 이에 이 法을 새워서 먹을 것을 求하니 經이 叔和의 以後에 있고 注가 叔和의 以前에 나오니 (僞書의 證據中) 다섯이다. 大抵 今本の 呂注는 隋志의 글을 因하여 補充하여 지은 것이고 隋志가 즉 이 本을 僞書라고 하니 더욱 僞書中の 僞書이다. 紀綱號가 群書에 넓고 지극하여 살피고 생각하는데 잘하였건마는 《靈樞》로서 거짓이라고 여기고 呂注로 진짜로 여겼으니 그 三家村學究와 서로 거리가 얼마인가? 이는 能히 구석구석 避할 수 없는 것이다. 어긋나고 다른 것이 어긋나서 (解剖함을 빌리지 않고 試驗함을 기다리지 않는다. 일찍이 弟子가 짓고 記述하여 처음에 經篇을 지을 때에 《素問》의 질문이 반정도 이루어 졌다가 扁鵲倉公以後에 글이 비록 늦게 나왔으나 스승의 전함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題目을 같게 하였다. 黃帝 岐伯이 실마리로 달려가고 나아갔으므로 二經은 모두 陰陽五行에 속하는 것이 九流專家的 글이 되니 이에 尙書의 스승의 말이 治病에만 專門한 것이 아니다. 만약 病을 治療하는 글이면 經絡臟府로써 要領을 삼지 한갓 五行을 배풀지는 않았다. 이제 國과 病의 二門과 相과 醫의 二法으로 나뉘어 나왔으니 經學은 얻어 빛나고 밝으나 醫學도 또한 갈림길로 하여 羊을 잃지 않는다.)¹⁶²⁾

【廖平註】

- [1] 四庫全書存目一百五卷이라
 [2] 誤駁詳下라
 [3] 原注 | 見滑壽難經本義라
 [4] 誤駁詳下라
 [5] 以難經으로 爲有脫簡者하니 諸本 | 皆然이요 非獨黃氏라
 [6] 今有篇名하니 皆宋校所加補證이라
 [7] 彭縣人이라

21. 俞曲園脈虛篇駁義 廖平撰^[1]

【原文】

162) 上文에 거듭 나왔다

夫醫之可廢는 何也오 曰醫無所以治病也일새라 醫之治病은 其要在脈이언마는 考之周官疾醫之職컨대 曰參之以九藏之動이라하니^[2] 此는 卽所謂脈也어늘 乃九藏之動은 迄¹⁶³⁾無正解하니 鄭康成은 謂五藏五하고 又有胃膀胱大腸小腸하니 是以肺心肝脾腎之外에 取六之四하야 而爲九也라하니 吾不知何以舍膽與三焦하고 而不數也라 韋昭之說은 鄭語九紀也라 以正藏及胃膀胱腸膽로 爲九하니 蓋合大小腸而一之라 故로 膽은 得列於九者之中이나 而三焦는 則仍不數也라 夫人有五藏六府하니 豈可以意爲去取乎아^[3] 然則醫師所謂參之以九藏之動者는 漢以後에 固不得其說矣하니 尙可與言脈乎아^[4] 以素問三部九候論로 考之컨대 則知古人診脈은 實有九處하야 分^[5] 上中下三部하니^[6] 上部天은 兩額之動脈이요 上部地는 兩額之動脈이요 上部人은 耳前之動脈이니 天以候頭角之氣하고 地以候口齒之氣하고 人以候耳目之氣하니 此는 上部之三候也라 中部天은 手太陰也오 中部地는 手陽明也오 中部人은 手少陰也니 天以候肺하고 地以候胸中之氣하고 人以候心하니 此는 中部之三候也라 下部天은 足厥陰也오 下部地는 足少陰也오 下部人은 太陰也니 天以候肝하고 地以候腎하고 人以候脾胃之氣하니 此는 下部之三候也라^[7] 依此言之컨대 則所謂參以九藏之動者는 庶可得其梗概¹⁶⁴⁾라 然이나 其文이 亦不能無誤하니 夫下三部는 旣爲足厥陰足少陰足太陰이면^[8] 則中三部者는 當爲手太陰手厥陰手少陰이어늘 何以中部地로 爲手陽明乎아^[9] 至於三部之所在하야도 亦莫能質言하니 王冰解下部天則有男女之分하고 解下部人에 又有候脾候胃之別하야 下之三部 | 化爲五部하니 恐非古法也라^[10] 古法之變壞 | 蓋始於扁鵲하니^[11] 太史公曰 至今天下言脈者 | 由扁鵲也라하고^[12] 其上文에 言扁鵲이 飲長桑君藥하야 視見垣一方하야 以此視病하야 盡見五藏藏結이요 特以診脈爲名耳라하니 此는 於手¹⁶⁵⁾라^[13] 蓋扁鵲治病에 初不以脈이라 故로 厥古法之煩重하야 而專取之니^[14] 此는 在古法則中三部也라^[15] 扁鵲이 以中部로 包上下兩部하니^[16] 今醫家寸關尺三部所由始也라 扁鵲이 本以此爲名而後에 人乃奉爲定法하니 不亦僞¹⁶⁶⁾歟아^[17] 鄭康成이 頗知此意라^[18] 故로 其注에 醫師 | 以五氣五聲五色으로

163) 迄(홀): 마침내, 이르다, 도달하다

164) 梗概(경개): 概要, 大略

165) '手'字는 文脈上 '乎'字의 誤植인 듯하다.

즉 於乎(오호)의 感歎詞로 보아야 할 것이다.

166) 僞(전): 거꾸로 되다.

脈其死生하니 則云審用此者는 莫若扁鵲倉公이라 하고^[19] 而於兩之以九竅之變에 參之以九藏之動則 曰能專是者 | 其惟秦和乎라하니 是鄭君之意는 固 謂扁鵲不知脈也언마는^[20] 而言脈者 | 率由扁鵲하 니 則扁鵲之功在一時요 罪在萬世矣라^[21] 嗚呼라 世之醫者 | 莫不曰吾之所以治病也라하고 問其所以 治病者한대 曰脈也라하나 然而今之三部 |^[22] 豈古 之所謂三部乎며^[23] 今之九候 |^[24] 豈古之所謂九 候乎아 吾不知其所以治病者 | 何오 以昔에 王充作 論衡에 有龍虛雷虛諸篇일새 曲園先生이 本此而作 脈虛之篇하니 脈虛之篇이 成而廢醫之論이 決이라^[25]

【解釋】

대법 醫를 可히 廢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오? 醫師가 治療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醫師가 治病할 수 있는 것은 그 要點이 脈에 있건언마는 周官의 疾醫의 職責을 살펴보건대 九藏의 動으로 參考한다고 하니 이는 즉 이른바 脈이거늘 이에 九藏의 動은 마침내 正解가 없더니 鄭康成은 五藏이다섯이고 또한 胃 膀胱 大腸 小腸이 있으니 이로써 肺 心 肝 脾 腎의 外에 六府의 넷을 취하여 아홉이 된다고 말하니 나는 어찌 膽과 三焦를 놓고 세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겠다. 韋昭의 說은 鄭이 말한 九紀이다. 正藏과 胃 膀胱 腸 膽으로 아홉을 삼으니 대개 大小腸을 合하여 하나로 한 것이다. 따라서 膽은 아홉의 하나에 列舉될 수 있었으나 三焦는 여전히 세지 않았다. 무릇 사람에게 五藏 六府가 있으니 어찌 可히 意로서 빼고 取할 수 있겠는가! 그러하면 醫師의 이른바 九藏의 動으로써 參考한다는 것은 漢以後에 진실로 그 說을 얻지 못하니 오히려 可히 더불어 脈을 말할 수 있는가! 素問三部九候論으로써 살펴보건대 古人의 診脈은 실제로 아홉 곳이 있어서 上中下 三部로 나눔을 아 니 上部 天은 兩額의 動脈이고 上部 地는 兩額의 動脈이요 上部 人은 耳前의 動脈이니 天으로써 頭角의 氣를 살피고 地으로써 口齒의 氣를 살피고 人으로써 耳目의 氣를 살피나니 이는 上部의 三候이다. 中部 天은 手太陰이고 中部 地는 手陽明이고 中部 人은 手少陰이니 天으로써 肺를 살피고 地로써 胸中의 氣를 살피고 人으로써 心을 살피나니 이는 中部의 三候이다. 下部 天은 足厥陰이고 下部 地는 足少陰이고 下部 人은 太陰이니 天으로써 肝을 살피고 地로써 腎을 살피고 人으로써 脾胃의 氣를 살피나니 이는 下部의 三候이다. 이것에 依

하여 말하면 所謂 參以九藏의 動을 참고한다는 것은 거의 可히 그 대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글이 또한 能히 誤解가 없지 않으니 무릇 下三部는 이미 足厥陰 足少陰 足太陰이라면 中三部라는 것은 마땅히 手太陰 手厥陰 手少陰이어늘 어찌 中部地로써 手陽明으로 여기겠는가! 三部의 所在에 있어서도 또한 能히 質言하지 못하니 王冰이 下部 天을 해석한 것인즉 男女의 區分이 있고 下部人을 解釋함에 또한 候脾胃腎의 區別이 있어서 下의 三部가 五部로 化하였으니 古法이 아닌가 두렵다. 古法의 變壞가 대개 扁鵲에서 시작하니 太史公이 지금까지 天下에 脈을 말하는 者가 扁鵲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그 上文에 扁鵲이 長桑君의 藥을 얻어서 담의 한편을 보아서 이로써 病을 보아서 五藏의 癥結을 다 보고 特히 診脈으로써 이름을 얻었을 뿐이다라고 말하니 이는 아아! 대개 扁鵲이 治病에 처음에는 脈으로서 하지 않았다. 따라서 古法의 煩重함을 싫어하여 오로지 取하니 이는 古法에 있어서는 中三部이다. 扁鵲이 中部로써 上下兩部를 포함하니 이제 醫家의 寸關尺三部가 말미암아 시작한 것이다. 扁鵲이 본디 이로서 이름이 난 後에 사람이 이에 받들어 定法을 삼으니 또 한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鄭康成이 자못 이 뜻을 알았다. 따라서 그 注에 醫師가 五氣五聲五色으로 그 死生을 보니 이것을 잘 살피는 者는 扁鵲倉公만 한 이가 없다고 하고 九竅의 變으로써 參考함에 九藏의 動으로써 참고하니 能히 이에 專門하는 者가 그 오직 秦和인저라고 하니 이 鄭君의 뜻은 진실로 扁鵲이 脈을 알지 못하건마는 脈을 말하는 者가 모두 扁鵲으로 말미암으니 扁鵲의 功이 한때에 있고 罪는 萬世에 있다고 한 것이다. 아아! 世上의 醫者가 내가 病을 治療하는 것이다 하고 하지 않음이 없다하고 그 病을 치료한 까닭을 물어보면 脈이라 하나 그러하되 지금의 三部가 어찌 옛의 이른바 三部이며 지금의 九候가 어찌 옛의 이른바 九候인가! 내가 그 病을 치료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옛적에 王充이 《論衡》을 지음에 龍虛 雷虛의 諸篇이 있기 때문에 曲園先生이 이에 근본하여 脈虛의 篇을 지으니 脈虛의 篇이 이루어져서 醫師를 廢해야 한다는 論이 決定이 되게 된 것이다.

【廖平註】

- [1] 俞曲園廢醫學論第四이라
- [2] 此九候이라

- [3] 說詳十二經動脈表이라
- [4] 不得因噎廢食이라
- [5] 以上九候이라
- [6] 以下三部이라
- [7] 以九候으로 混三部誤說하니 詳三部診補證이라
- [8] 以頭上三部는 爲陽이요 手三陰는 爲中이요 足三陰는 爲下이니 乃俞氏之誤라
- [9] 此俞氏之誤라
- [10] 此亦俞氏之誤라
- [11] 此指難經하니 不知其爲僞書라
- [12] 其書 | 漢以下로 無傳本이라
- [13] 厚誣古人이라
- [14] 在望聞問以後之說이라
- [15] 寸口止爲一部요 又非三部라
- [16] 此難經之說이라
- [17] 駁難經하니 甚是이라
- [18] 此說은 是晉唐大醫 | 皆同有하니 何扁鵲亂法하리오
- [19] 出史記二傳이라
- [20] 誤讀鄭注이라
- [21] 自有作僞之人로 當之하니 非眞扁鵲이라
- [22] 寸關尺이라
- [23] 駁이 是라
- [24] 浮中沈이라
- [25] 此說은 未確하니 醫何可廢리오 特由此可見이면 難經之罪 | 詳耳라

【考察】

本編의 內容은 周官의 疾醫의 職에 九臟의 動을 參考한다고 하였는데 《內經》에 말한 三部九候가 그것이다. 그러나 漢代以後로 그 說을 얻지 못하여 혹자는 九臟에 대해서 五臟과 胃膀胱大小腸을 포함시키고 혹자는 五臟에 胃膀胱腸膽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扁鵲이 長桑君의 藥을 먹고 五臟의 癥結을 보았고 특히 診脈으로 유명해졌을 따름이어서, 扁鵲은 脈을 잘 알지 못하고 古法의 煩雜함을 싫어하여 中部만을 取하고 上下 兩部를 포괄하였는데, 後世 醫家들이 寸關尺을 三部로 삼게 되었다. 따라서 脈으로 더 이상 病을 알아내지 못하니 醫 역시 廢하게 되었다고 評하였다.

22. 黃帝八十一難經解題 日本 丹波元胤撰

【注釋原文】

難經解題一篇은 先君子之所作也라 元胤이 今謹

以過庭所受之說로 并著於錄하고 舉衆說而證之하야 若其臆¹⁶⁷⁾義는 竊又補之하야 冠乎拙著之首하노라

【注釋解釋】

難經解題 一篇은 先君子(丹波元簡)이 지은 것이다. 元胤이 이제 삼가 뜰을 지나다가 얻은 설로써 아울러 記錄에 짓고 여러 說을 들어서 證據하여 그 남는 뜻과 같은 것은 저르기 또한 補充하여 拙著의 처음에 씌우노라.

【原文】

八十一難之名은 昉¹⁶⁸⁾見於漢張仲景傷寒論自序하고 ⁽¹⁾而梁의 阮孝緒의 七錄에 有黃帝衆難之目하고

隋書經籍志에 曰 黃帝八十一難經二卷이라하고 ⁽²⁾註에 梁有黃帝衆難經一卷 呂博望注亡이라하니라 ⁽³⁾

【原文解釋】

八十一難의 이름은 마침내 漢代의 張仲景 《傷寒論》 自序에 보이고 梁의 阮孝緒의 七錄에 黃帝衆難의 제목이 있고 《隋書·經籍志》에 黃帝八十一難經 二卷이라 하고 註에 梁에 黃帝衆難經一卷 呂博望注亡이라고 하였다.

【原文】

蓋衆은 乃八十一之謂니 集注에 題曰黃帝八十一難經이라하나 本義에 無黃帝八十一字하니 非其舊也라 其以黃帝冠者는 正與內經으로 同이라

【原文解釋】

대개 衆은 이에 八十一을 말하는 것이니 集注에 黃帝八十一難經이라고 題目하나 《本義》에 黃帝八十一字가 있으니 그 옛것이 아니다. 그 黃帝로써 씌운 것은 바로 《內經》과 함께 같다.

淮南子에 世俗의 사람이 옛것을 따르고 지금 것을 賤하게 여기는 것이 많다. 따라서 道를 하는 者가 반드시 神農 黃帝에 依託한 後에 能히 說에 들어갈 수 있다. 자세한 것은 先子의 《素問解題》에 보이니 卽 이른바 말을 부치고 依託한 것이다.

167) 臆(영): 나머지, 남다, 보태다, 더하다, 버금

168) 昉(방): 마침내, 때마침, 바야흐로, 처음으로

【注釋原文】

淮南子에 曰世俗之人이 多尊古而賤今이라 故로 爲道者 | 必托之於神農黃帝而後에 能入說이라 詳見於先子의 素問解題이니 卽所謂寓言依託이라

素問離合眞邪論에 曰 九九八十一篇은 ^[4] 以起黃鐘數爲이라하니 古書 | 多以此爲數하니 ^[5] 素靈老子 | 皆然也라

虞伯圭 | 曰 古人이 引經設難하야 或與門人弟子로 問答할새 偶得此八十一章耳라하니 ^[6] 未必經之當難者 | 止此八十一條也니 ^[7] 此說은 不可從이라 ^[8]

陳祥道의 禮記講義에 曰 太玄八十一家 | 象八十一元士하니 少則制衆하고 無則制有라하니 蓋太玄은 取諸太極而已라 故로 其數 | 如此하니 ^[9] 老子之書 | 終於八十一하고 ^[10] 難經은 止於八十一이니 皆此義歟아 ^[11] 王伯厚의 困學紀問에 曰 石林이 謂太玄은 皆老子書餘이니 老氏 | 道生一하고 一生二하고 二生三이라하니 三之爲九라 故로 九而九之하야 爲八十一章하니 ^[12] 太玄은 以一玄爲三方하야 自是爲九하고 而積之爲八十一首라하니라 ^[13]

【注釋解釋】

《素問·離合眞邪論》에 九九八十一篇은 黃鐘의 數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하니 古書가 이로써 數를 삼은 것이 많으니 《素問》 《靈樞》 《老子》가 모두 그러하다.

虞伯圭가 古人이 經을 引用하여 難을 베풀어서 或 門人弟子와 함께 問答하였기 때문에 우연히 이 八十一章을 얻었을 뿐이라고 말하였으니 반드시 經의 어려운 것에 해당하는 것이 이 八十一條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 說은 可히 따를 수 없다.

陳祥道의 《禮記·講義》에 太玄 八十一家가 八十一元士를 본받으니 적으면 衆을 製制하고 없으면 있음을 製制한다고 하니 대개 太玄은 太極에서 取했을 따름이다. 따라서 그 數가 이와 같으니 老子의 글이 八十一에서 끝나고 《難經》은 八十一에 그치니 모두 이 뜻인가! 伯厚의 《困學紀問》에 石林이 太玄은 모두 老子의 글의 나머지이니 老氏가 道生一하고 一生二하고 二生三이라하니 셋으로 하여 아홉이 된다. 따라서 아홉을 아홉으로 하여 八十一章을 만들었다고 하니 太玄은 一玄으로 삼아서 九를 삼고 쌓아서 八十一首가 되었다 하였다.

【原文】

難은 是問難之義니 帝王世紀에 云黃帝雷公岐伯이 論經脈에 旁通 ^[14] 問難하니 八十一爲難經이라 하고 ^[15] 隋蕭吉의 五行大義와 唐李善의 文選七發註에 并引此經文하되 曰黃帝八十一文云이라하니 可以證焉이요 ^[16] 唐藝文志에 有耆婆八十四問과 ^[17] 許脈六十四問하니 ^[18] 蓋本此니라 ^[19]

【原文解釋】

難은 이는 묻는다는 뜻이니 《帝王世紀》에 黃帝 雷公 岐伯이 經脈을 論함에 두루 통하고 질문하니 八十一이 《難經》이 되었다하고 隋蕭吉의 《五行大義》와 唐李善의 《文選》七發註에 아울러 이 經文을 인용하되 黃帝八十一文이라하니 可히 證據할 수 있고 《唐藝文志》에 耆婆八十四問과 許脈六十四問이 있으니 대개 이에 근본한다.

【注釋原文】

陳振孫의 書錄解題에 載難經二卷하되 曰 難은 當作去聲讀이라하고 歐陽圭齋 | 曰 難經은 先秦古文이니 漢以來로 答客難等作은 皆出其後이요 ^[20] 又文字相質難之祖也라하니라 ^[21] 元胤이 按史記컨대 黃帝本紀에 云死生之說과 存亡之難을 索隱이라 하니 難은 猶說也라 凡事是非未盡을 假以往來之詞하니 則曰難이요 又上文에 有死生之說이라 故로 此云存亡之難은 所以韓非著書 | 有說林說難也니 八十一難之難은 得之其義益明이라 ^[22]

【注釋解釋】

陳振孫의 《書錄解題》에 《難經》 二卷을 기재하되 難은 마땅히 去聲으로 읽어야 한다고하고 歐陽圭齋가 《難經》은 先秦의 古文이니 漢以來로 客이 묻는 것에 答하는 등을 지은 것은 모두 그 뒤에 나왔고 또한 文字로 서로 질문하는 시조가 된다하였다. 丹波元胤이 史記를 살피건대 《黃帝本紀》에 死生의 說과 存亡의 難이 숨은 것을 찾는다고 하니 難은 說과 같다. 무릇 事의 是非가 다하지 않은 것을 주고 받는 말을 빌어서 하니 難이라고 하고 또한 上文에 死生의 說이 있으므로 이에 存亡의 難이라고 말한 것은 韓非子의 著書가 說林과 說難이 있는 것이니 八十一難의 '難'은 그 뜻을 얻음이 더욱 분명하다.

【原文】

或讀爲平聲이라하니 非也라

【原文解釋】

或者平聲으로 읽는다 하니 아니다.

【注釋原文】

楊玄操序에 曰名爲八十一難하니 以其理趣深遠하야 非卒易了故也일새라하니라 僧幻雲의 史記附標에 載楊玄操音義호대 曰 難은 音乃丹切이라하고 黎泰辰序의 虞庶難經註에 曰世傳黃帝八十一難經에 謂之難者^[23] 得非以人之五臟六府隱於內하야 爲邪所干이던 不可測知라 惟以脈理로 究其彷彿邪인저^[24] 若脈有重十二菽者하고^[25] 又有如按車蓋하 고^[26] 而若循鷄羽者하니 復考內外之證하야 以參校之하니라 難乎인저하니라 紀天錫의 進難經集註表에 曰秦越人이 將黃帝素問疑難之義하야 八十一篇을 重而明之라 故로 曰八十一難經이라하니라^[27] ○滑壽 曰 按歐虞說컨대 則難字는 當爲去聲이요 餘는 皆奴丹切이라하니라

【注釋解釋】

楊玄操 序에 八十一難이라 이름하니 그 理趣가 심고 멀어서 마침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다. 僧幻雲의 《史記附標》에 楊玄操의 音義를 기재하되 難은 音이 乃丹切(난)이라하고 黎泰辰 序의 虞庶 難經註에 世傳 黃帝八十一難經에서 難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의 五臟六府가 안에 숨어서 邪氣가 범하지 않으면 可히 측량하여 알 수 없다. 오직 脈理로써 그 彷彿를 연구하는 것인저! 가령 脈이 十二菽의 무게가 있고 또한 수레의 덮개를 누르는 것과 같은 것이 있고 닭의 깃을 문지르는 것과 같은 것이 있으니 다시 內外의 證을 살펴서 參考하고 校定하니라 어려운저! 라고 하였다. 紀天錫의 《進難經集註表》에 秦越人이 黃帝素問의 의심나고 어려운 뜻을 가지고 八十一篇을 거듭하여 밝혔으므로 '八十一難經'이라 하였다. ○滑壽가 歐虞의 說을 살피건대 難字는 마땅히 去聲이고 나머지는 모두 奴丹切(난)이라고 하였다.

【原文】

此經은 不詳何人作이니^[28] 隋以上則附之於黃帝 이라^[29] 唐而降則屬之於秦越人이라^[30] 隋經籍 志에 云黃帝八十一難二卷이라하니 蓋原於帝王世紀之學也^[31] 楊玄操 以爲秦越人之所作也라하니라^[32]

【原文解釋】

이 經은 어떤 사람이 지은 지 자세하지 않으니 隋以前에는 黃帝에게 부쳤다가 唐以後에는 秦越人에게 속하였다. 《隋經籍志》에 黃帝八十一難 二卷이라 하니 대개 《帝王世紀》의 學問에 근본한 것이고 楊玄操가 秦越人이 지은 것이라고 여겼다.

【注釋原文】

楊玄操序에 曰黃帝八十一難經者는 斯乃勃海秦越人所作也라^[33] 越人이 受桑君之秘術하야 遂洞明醫道하야 至能視徹藏府하고 剗腸剔心하야 以其與軒轅時扁鵲相類할새 乃號之爲扁鵲이라하고^[34] 又家於盧國하야 因命之曰盧醫하니 世或以盧扁爲二人者는 斯實謬矣라 按黃帝有內經二帙하고 帙各九卷이 어늘 而其義 幽蹟하야 殆難窮覽할새^[35] 越人이 採摘英華하고 抄撮精要하니^[36] 二部經內에 凡八十一章이라^[37] 勅成卷軸하야^[38] 既弘暢聖言이라^[39] 故로 首稱黃帝云이라^[40] 元胤 按王維一集註本에 亦題曰盧國의 秦越人撰이라하니 蓋據楊玄操之言者이라 楊子法言에 曰 扁鵲은 盧人也니 而醫多盧라하니라

【注釋解釋】

楊玄操의 序文에 《黃帝八十一難經》은 이는 渤海의 秦越人이 지은 것이다. 越人은 長桑君의 秘術을 전수받아 드디어 醫道에 환히 밝아서 臟腑를 꿰뚫어 보고 腸을 도려내고 心臟을 꺼내기까지 하였으니 그는 軒轅 시대의 扁鵲이라는 名醫와 서로 비슷하였기 때문에 이에 扁鵲이라고 불렀다. 또한 盧나라에서 집짓고 살아서 따라서 盧醫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니 세상사람들이 혹 盧, 扁鵲을 두사람이라고 여긴 것은 이는 실로 틀린 것이다. 살펴 보건대 黃帝에게는 《內經》 二帙이 있고 各帙이 九卷으로 그 의미가 그윽하고 심오하여 다 살펴보기가 거의 어려운데 越人이 이에 그 英華를 뽑고 따내고 精要를 훑치고 취하여 《難經》 二部 八十一章 모두를 책으로 만들어 그 醫道를 넓히고 부연함에 隱微한 것을 탐색하고 후세에게 전하고 보여주어 《八十一難》이라고 이름하니 그 이치가 심원하여 마침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聖言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므로 黃帝라고 책머리에 稱하였다. 元胤이 살펴보건대 王維一集註本에 또한 盧國의 秦越人撰이라고 題目하니 대개 楊玄操의 말에 근거한 것이다. 楊子法言에 扁鵲은 盧나라 사람이니 醫師가 盧에 많다 하였다.

【原文】

王勃이 云 秦越人이 始定章句라하니라^[41]

【解釋】

王勃이 秦越人이 비로소 章句를 定하였다 하였다

【注釋原文】

王勃序에 曰 黃帝八十一難은 是醫經之秘錄也라 昔者에 岐伯이 以授黃帝하고^[42] 黃帝 | 歷九師하야 以授伊尹하고 伊尹이 以授湯하고 湯이 歷六師하야 以授太公하고 太公이 授文王하고 文王이 歷九師하야 以授醫和하고 醫和 | 歷九師하야 以授秦越人할새^[43] 秦越人이 始定章句하야 歷九師하야 以授華陀하고 陀 | 歷六師하야 以授黃公하고 黃公이 以授曹夫子하니나 夫子는 諱 | 元이요 字 | 眞道요 自云京北人也라하니라^[44]

【注釋解釋】

王勃序에 曰 《黃帝八十一難》은 이는 醫經의 秘錄이다. 옛날에 岐伯이 黃帝에게 주고 黃帝가 九師를 지내서 伊尹에게 주고 伊尹이 湯에게 주고 湯이 六師를 지내서 太公에게 주고 太公이 文王에게 주고 文王이 九師를 지내서 醫和에게 주고 醫和가 九師를 지나서 秦越人에게 주어서 秦越人이 비로소 章句를 定하여 九師를 지내서 華陀에게 주고 華陀가 六師를 지나서 黃公에게 주고 黃公이 曹夫子에게 주니 曹夫子는 諱가 元이고 字가 眞道며 스스로 京北의 사람이다 하였다.

【原文】

舊唐經籍志에 云 黃帝八十一難經一卷은 秦越人撰이라하니 按開元中에 張守節이 作史記正義할새 於扁鵲傳首에 引楊玄操難經序하니 則玄操는 開元以前人이어늘 而其屬諸越人者 | 豈創於玄操歟아^[45] 司馬遷이 云天下至今言脈者 | 由扁鵲이라하니^[46] 蓋論脈이 莫精於難經이니 則其說之所以起也라^[47] 然이나 謂之扁鵲所作은^[48] 唐而上에 無說이니 實爲可疑矣라^[49] 八十一難之目은 已見於仲景自序요^[50] 而叔和脈經과^[51] 士安甲乙에 往往引其文하니^[52] 則漢人所撰이라^[53] 要之컨대 不失爲古醫經이 면 亦何必論其作者리오^[54]

【原文解釋】

《舊唐·經籍志》에 《黃帝八十一難經》一卷은

秦越人이 지은 것이라 하니 살피건대 開元中에 張守節이 《史記正義》를 지을 때 扁鵲傳의 첫머리에 楊玄操의 難經序를 인용하니 楊玄操는 開元以前의 사람이거늘 그 越人에 속하게 한 者가 어찌 楊玄操에서 시작한 것인가! 司馬遷이 天下에 지금까지 脈을 말하는 者가 扁鵲으로 말미암는다 말하였으니 대개 論脈이 難經보다 정밀한 것이 없으니 그 說이 따라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扁鵲이 지은 것이라 말한 것은 唐以前에 說이 없으니 실로 可히 의심스럽다. 八十一難의 題目은 이미 仲景의 自序에 나타나고 叔和의 《脈經》과 士安의 《甲乙》에 종종 그 글을 引用하니 漢人이 지은 것이다. 요컨대 古醫經이 되는 것을 잃지 않음은 또한 어찌 그 지은 이를 반드시 論하리오!

【注釋原文】

本義에 曰 史記越人傳에 無著難經之說이라가^[55] 隋書經籍志와 唐書例文志에 俱有秦越人^[56] 黃帝八十一難二卷之目하고 又唐의 諸王侍讀인 張守節이 作史記正義할새 于扁鵲倉公傳에 則全引難經文하야 以釋其義하고 後에 附載四十二難과 與第一難과 三十七難全文하니^[57] 由此면 則知古傳以爲越人所作者 | 不誣也라^[58] 詳其設問之辭컨대 稱經言者는 出於素問靈樞二經이로되^[59] 而見於靈樞者 | 尤多하고^[60] 亦有二經無所見者하니^[61] 豈越人別有 據於古經耶아^[62] 經釋에 曰 云秦越人著者는 始見于新唐書藝文志하니 蓋不可定이라하니라 然이나 實兩漢以前書也라 元胤이 嘗考素問컨대 其言이 雅奧하고 其理 | 亦精하니 雖有漢人之所補綴이나^[63] 其實은 多周秦古書之文이라 若靈樞則朱子 | 稱爲淺易하야^[64] 較之素問에 殆爲雁行^[65]이요^[65] 而 八十一難은 則又其亞也라^[66] 然而所說은 亦多與東京諸書로 相出入者하니^[67] 若元氣之稱은 始見於董仲舒의 春秋繁露하야 楊雄解 | 嘲^[170]하니 而至東漢하야 比比^[171]稱之하고 男生於寅하고 女生於申은 說文包字注와 高誘淮南子注와 離騷章句에 俱載其說하고 木所以沈과 金所以浮은 出於白虎通하고 金生於巳와 水生於申과 瀉南方火하고 補北方水之類는 並是五行緯說의 諸家之言이어늘 而靈素中에

169) 雁行(안행): ①기러기가 줄지어 날, ②기러기처럼 비스듬이 조금 떨어져감, ③선두에 서서감, 앞장서 감, ④기러기처럼 줄을 지음

170) 嘲(조): 비웃다, 조롱하다

171) 比比(비비): 자주, 빈번히

未有道及者하고 特見於此經하니 其決非出西京人手
 를 可以見矣라^[68] 且此經의^[69] 診脈之法이 分以
 三部하야 其事| 約易明할새^[70] 自張仲景王叔和輩
 로 取而用之하야 迺在醫家하야^[71] 實爲不磨之矜
 式^[72]이라 然이나 徵之素靈건대 業已不同하고 稽
 之倉公診籍건대 亦復不合하니 則想以其古法隱奧할
 새 不逮易辯識이라^[72] 故로 至東漢하야 或平傳其
 術者러니^[73] 於是에 高陽生之類|^[74] 據素問有三部
 九候之稱하야 仍而演之하야^[75] 以作此一家言者
 歟아^[76] 丁德用이 曰 難經은 爲華陀燼餘之文이요
 吳太醫令呂廣이 重編此經이라하고^[77] 王文潔이 曰
 扁鵲者는 軒轅時扁鵲也니 隱居巖岳하야 不登於七
 人之列하고 而自作八十一難經이라 以後에 秦越人
 이 注之經書라 故로 稱秦越人扁鵲이라하니 是特無稽
 之談耳라^[78] 姚際恆의 僞書攷에 曰 傷寒論序에
 云撰用素問九卷 八十一難者는 卽素問九卷而言也요
 六朝人이 又爲此書는 絶可笑라하니 是亦臆測이라

【注釋解釋】

《本義》에 《史記·越人傳》에 難經을 지었다는
 說이 없다가 《隋書·經籍志》와 《唐書·藝文
 志》에 모두 秦越人 黃帝八十一難 二卷의 目錄이
 있고 또한 唐의 諸王侍讀인 張守節이 《史記正義
 》할 때 〈扁鵲倉公傳〉에 모두 難經의 글을 인용하
 여 그 뜻을 해석하고 後에 四十二難과 第一難과
 三十七難의 全文을 부쳐서 기록하니 이로 말미암
 으면 古傳에 越人이 지었다고 한 것이 속이지 않
 은 것을 알겠다. 그 질문을 베풀은 말을 살펴보건
 대 經言이라고 稱한 것은 《素問》《靈樞》二經
 에서 나온 것이로되 《靈樞》에 보이는 것이 더욱
 많고 또한 二經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으니 어
 지 越人이 별도로 古經에서 모은 것이냐! 《經釋
 》에 秦越人著라고 말한 것은 《新唐書藝文志》에
 비로소 보이니 대개 可히 定하지 못한다 말하였
 다. 그러나 實은 兩漢以前의 글이다. 元胤이 일찍
 이 《素問》을 살펴보건대 그 말이 優雅하고 深奧
 하고 그 理致가 또한 精密하니 비록 漢人이 보충
 하고 기운 것이 있으나 그 實은 周秦의 古書의 文
 이 많다. 《靈樞》와 같은 것은 朱子가 알고 쉽
 다고 稱하여 《素問》에 비교하면 거의 기러기가 한
 줄로 날아가는 것과 같고 《八十一難》은 또한 그
 다음이다. 그러하되 말한 것은 또한 東京의 諸書
 와 서로 出入한 것이 있으니 元氣와 같은 말은 비

로소 董仲舒의 《春秋繁露》에 나타나서 楊雄解가
 비웃으니 東漢에 이르러 종종 稱하고, 男은 寅에
 서 生하고 女는 申에서 生함은 《說文包字注》와
 《高誘淮南子注》와 《離騷章句》에 모두 그 說을
 기록하고, 木이 가라앉은 것과 金이 뜨는 것은 《
 白虎通》에 나오고 金이 巳에서 生하는 것과 水가
 申에서 生하는 것과 南方火를 瀉하고 北方水를 補
 하는 類는 아울러 이는 五行緯說의 諸家의 말이거
 늘 《靈樞》《素問》中에 언급한 것이 있지 않고
 특히 이 經에 보이니 그 결코 西京人의 손에서 나
 오지 않은 것을 可히 볼 수 있다. 또한 이 經의
 診脈의 法이 三部로 나누어서 그 일이 대략 쉽고
 分明하기 때문에 張仲景 王叔和의 무리로 부터 取
 하여 사용하여 이에 醫家에 있어서 실제로 닿지
 않는 본보기가 된다. 그러나 《素問》《靈樞》를
 徵驗해 보면 일이 이미 같지 않고 倉公의 診籍을
 살펴건대 또한 다시 合하지 않으니 상상하건대 그
 古法이 隱微하고 深奧하기 때문에 문득 쉽게 分별
 하고 알 수 있지 않다. 따라서 東漢에 이르러 或
 그 技術을 傳하는 者가 드물더니 이에 高陽生의
 무리가 《素問》에 三部九候의 名稱이 있음을 근
 거하여 인하여 演繹하여 이 一家의 말을 지은 것
 인가! 丁德用이 《難經》은 華陀가 태우고 남은
 글이고 吳太醫令 呂廣이 이 經을 거둬 編纂하였
 다 하고 王文潔이 扁鵲이란 者는 軒轅時의 扁鵲이
 니 바위와 산에 隱居하여 七人의 隊列에 오르지
 않하고 스스로 《八十一難經》을 지었다. 以後에
 秦越人이 經書에 注를 하였다. 따라서 秦越人을
 扁鵲이라 稱하니 이는 특히 근거가 없이 하는 말
 일 뿐이다. 姚際恆의 《僞書攷》에 曰 《傷寒論》
 序에 素問九卷 八十一難을 지었다는 것은 卽《素
 問》九卷을 말한 것이고 六朝人이 또한 이 책을
 지은 것은 絶對로 可히 웃는다 하니 이는 또한 臆
 測이다.

【原文】

胡應麟이 曰^[79] 班志에 扁鵲有內經九卷 外經十
 二卷이니 或云卽今難經也이라하니 此說은 難憑이
 라 此經^[80] 所論은^[81] 一本內經之精要하야 以發
 其蘊奧이언마는 而^[82] 較諸素問靈樞之義면 往往有
 相詭者는 是果何也오 素靈은 舊稱古之內經이로되
 而取兩書較之면 亦往往有其義相乖者하니 內經中
 已如此하고 又取素靈而篇篇較之면 其言| 有前後
 相畔者하니 一書中에 亦復如此어이늘^[83] 況難經이
 雖原內經이나 而其實別是一家言이니^[84] 春秋三傳

172) 矜式(궁식): 삼가 본보기로 삼음

은 各異其辭하니 古之說經立言이 率皆爲然 이니^[85] 亦何遽取彼舉此하야 而致軒輊¹⁷³⁾也리오

徐大椿著難經經釋에 以此經으로 有以內經文爲釋者하고 有悖內經文者하고 有顛倒內經文者하니 倚¹⁷⁴⁾摭得失하야 而辨駁之하니^[86] 是未通古人立言之旨이라

吳文正公이 曰 昔之神醫 秦越人이 撰八十一難이 어늘^[87] 後人이 分其八十一하야 爲十三篇하니 予嘗嫌其分篇之未當하야 釐¹⁷⁵⁾而正之하나니^[88] 其篇은 凡六이니 一至二十二은 論脈이요^[89] 二十三至二十九은 論經脈이요 三十至四十七은 論臟腑요^[90] 四十八至六十一은 論病이요 六十二至六十八은 論穴衝¹⁷⁶⁾이요 六十九至八十一은 論針法이라^[91] 夫秦氏之書는 與內經素靈으로 相表裏로되 而論脈論經絡이 居初하니 豈非醫之道所當先明此者歟아^[92] 予喜讀醫書하나니 以其書之比他書最古也일새라^[93] 按吳氏六篇컨대 視之于楊氏之十三類하야 條理區別하니 甚爲의當이라 元以後에 注難經者 未有一表章者也라

【原文解釋】

胡應麟이 말하기를 《班志》에 扁鵲이 《內經》九卷과 《外經》十二卷이 있으니 或者가 卽 지금의 《難經》이라고 하니 이 說은 믿기 어렵다. 이 經에서 論한 것은 한편으로 《內經》의 精要에 根本하여 그 蘊奧를 發明하였건마는 《素問》 《靈樞》의 뜻에 비교하면 종종 서로 어긋난 것이 있는 것은 이는 과연 어떠한가! 《素問》 《靈樞》은 옛날의 《內經》이라고 稱하되 兩書를 取하여 比較하면 또한 종종 그 뜻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 있으니 《內經》中에 이미 이와 같고 또한 《素問》 《靈樞》을 取하여 篇마다 比較하면 그 말이 前後가 서로 배반하는 것이 있으니 一書中에 또한 다시 이와 같거늘 하물며 《難經》이 비록 《內經》에 根源하였으나 그 실체는 별도로 一家의 말이니 《春秋》의 三傳은 各各 그 말을 달리하니 옛의 說經 立言이 모두 다 그러하니 또한 무엇을 근거로 저것을 取하고 이것을 들어 優劣에 이르리오

徐大椿이 《難經經釋》을 지음에 이 經으로써 《內經》의 글로써 해석한 것이 있고 《內經》의 글을 어긋난 것이 있고 《內經》의 글을 顛倒한 것이 있고 得失을 모으고 주워서 辨別하고 反駁하

니 이는 古人이 立言한 뜻을 통하지 못한 것이다.

吳文正公이 말하기를 옛날의 神醫인 秦越人이 《八十一難》을 짓거늘 後人이 그 八十一을 나누어서 十三篇을 만드니 내가 일찌기 그 分篇한 것이 마땅하지 않음을 싫어하여 고치고 바로 잡으니 그 篇은 모두 六이니 一篇에서 二十二篇까지는 論脈이고 二十三篇에서 二十九篇까지는 論經脈이고 三十至篇에서 四十七篇까지는 論臟腑이고 四十八篇에서 六十一篇까지는 論病이고 六十二篇에서 六十八篇까지는 論穴衝이고 六十九篇에서 八十一篇까지는 論針法이다. 무릇 秦氏의 책은 《內經》인 《素》 《靈》과 서로 表裏가 됨이로되 論脈 論經絡이 처음에 있으니 어찌 醫道에 마땅히 이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일찍이 醫書를 읽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책이 他書에 비하여 가장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吳氏의 六篇을 살피건대 楊氏의 十三類에 비하여 條理가 區別되니 甚히 의當하다. 元以後에 《難經》에 注하는 者가 表章(드러낸) 者가 있지 않다.

【注釋原文】

本義彙考에 亦論分篇之義하야 與此若相類언마는 不及吳氏甄¹⁷⁷⁾別之精也라

夫八十一難經이 古今之爲箋釋者는 亡慮數十家나 若呂廣과 楊玄操와 虞庶와 丁德用은 其書雖亡 이나 而王翰林集注에 存其全說이요 滑伯仁本義所注는 稍爲妥適이요 而周仲立과 王誠叔과 馮玠와 袁淳甫과 謝堅白과 陳廷芝等解는 因其彙錄하야 而得概見一二矣이라 紀齊卿의 集注는 則本義所授이 雖爲僅僅이나 頃覽宋本史記扁鵲傳컨대 其附標 多載醫家之言하고 中有紀注와 及張潔古의 藥注數十하니 則近代徐大椿經釋이 以內經之文으로 議難經之失하니 其言이 雖似乖雅道나 注中에 浚明諸家未發之義者 亦不爲少矣라 若此數家 其傳於今者는 可以爲後學之津梁也언마는 其他則佚者 居多니 至於明雄宗立과 張世賢과 王文潔輩하야 不過剽襲本義之說하야 托名於作者之林耳라 客歲戊寅에 元胤이 竊讀此經하야 以王氏集注로 爲本하야 識其欄¹⁷⁸⁾外하고 以諸家之注로 備一時之研査하야 旣

174) 倚(기): 한쪽다리를 끌다, 당기다, 뺨다, 시위를 당기다

175) 釐(리): 다스리다, 고치다, 담하다

176) 衝(구): 길, 도로

177) 甄(견): 밝히다, 나타나다, 살피다, 교화하다, 굽다, 질그릇

173) 軒輊(헌지): 올라감과 내려감, 높낮이, 轉하여 優劣을 뜻함

爲及門之徒하여 講於家塾이러니 奈何病目視短하여 不可快讀細書할새 於是에 別編成一書하여 起稿於仲冬하여 至日이 至於今이라 春三月에 念有五日하여 而始斷手하고 顏曰八十一難經疏證이라하고 厘¹⁷⁹)爲二卷하여 以還隋志之目하고 且据草廬胡氏之言하여 劃¹⁸⁰)以六篇이라 噫라 元胤이 識庸學格¹⁸¹)하여 雖不能以闡¹⁸²)聖言之蘊奧나 評古賢之傳注矣라 謹考經文하여 尋其指歸하고 旁探群籍하여 資爲證左하고 質以過庭之所受과 對床之所聞而 後에 反之¹⁸³) 闡¹⁸⁴)하여 以竭吾陋하여 疏可通而 闕可疑하여 必有契于陋意而止矣라 然이나 豈敢謂 析理¹⁸⁵)切이리오 足以啓幽前秘하여 擊蒙後生也 니 唯在講肄之際하여 取便¹⁸⁶) 閱也라 覽者 勿以贅述見罪이던 幸甚이로다

文政己卯首夏初二日에 東都 丹波元胤은 識하노라

【注釋解釋】

《本義彙考》에 또한 分篇의 뜻을 논하여 이것과 서로 비슷한 것 같건마는 吳氏가 나타나고 구별한 정밀함에 미치지 못한다.

무릇 《八十一難經》이 古今에 註解하고 풀이한 者는 무려 數十家이니 만약 呂廣과 楊玄操와 虞庶와 丁德用과 같은 그 책이 비록 없으나 王翰林的 集注에 그 全說을 보존하고 滑伯仁 《本義》에 注한 것은 조금 타당하고 맞고 周仲立과 王誠叔과 馮玠와 袁淳甫과 謝堅白과 陳廷芝等의 풀이는 그 編纂하고 記錄한 것에 인하여 이미 한 두 가지를 보았다. 紀齊卿의 集注는 《本義》에 인용한 것이 비록 僅僅하나 잠시 宋本의 《史記扁鵲傳》을 살피건대 그 附標가 醫家의 말을 기록한 것이 많고 그 가운데 紀注와 張潔古의 藥注 數十이 있으니 近代 徐大椿 《經釋》이 《內經》의 글로써 《難經》의 실수를 議論하니 그 말이 비록 우아한 道에 어긋나는 것 같으나 注中에 諸家가 發明하지 않은 뜻을 깊이 밝힌 것이 또한 적지 않다. 이와 같이 數家가 그 지금까지 傳해지는 것은 可히 後學의 橋梁이 되건마는 기타는 佚失한 것이 많으니 明 雄宗立과 張世賢과 王文潔의 무리에 이르러서는 《本義》의 說을 剽竊한 것에 不過하여 作者의 무리에 이름만 내걸은 것일 뿐이다. 客歲 戊寅에 元胤이 저르기 이 經을 읽어서 王氏集注로 本을 삼아서 그 대강을 알고 諸家의 注로 一時의 研究

調査를 갖추어서 이미 門人의 무리가 되어 學堂에서 講論하더니 어찌 눈병이 나서 짧게 보아서 可히 가는 (글씨의) 책을 快讀하였기 때문에 이에 別도로 一書를 지어서 仲冬에 원고를 시작하여 날이 이름이 지금에 이른다. 春三月에 생각하기를 五日 동안 하여 비로소 끝내고 八十一難經疏證이라고 제목하고 二卷으로 고쳐서 隋志의 題目처럼 바꾸고 또한 草廬胡氏의 말에 근거하여 六篇으로 쪼갰다. 아! 元胤이 識學이 庸劣하고 醜惡하여 비록 能히 聖人의 말의 蘊奧에 틈을 내었으나 옛 賢人의 傳注를 살피었다. 經文을 삼가 살펴서 그 指歸를 살피고 두루 모든 書籍을 찾아서 依支하여 證據대고 뜯을 지나다가 받은 것과 책상에 대하여 들은 것으로 질정한 後에 차양과 달힌 문을 뒤집어서 나의 鄙陋함을 다하여 可히 通하는 것은 注내고 可히 의심나는 것은 빠뜨려서 반드시 鄙陋한 (나의) 意見과 合하여야 그쳤다. 그러나 어찌 敢히 理致를 分析함이 알맞고 적절하다고 말하리오! 足히 그윽한 것을 열어 보이고 비밀스러운 것을 내어서 後生을 깨우침이니 오직 익히고 익히는 즈음에 있어서 되풀이하여 閱覽함에 취하고 편리하게 한 것이다. 읽는 者가 덧붙여 記述한 것으로 죄를 입지 않으면 多幸이 甚할 것이로다

文政 己卯首夏 初二日에 東都 丹波元胤은 記錄하노라

【廖平注】

[1] 序文 | 如眞이면 則所指者 | 卽素問八十一篇이라

[2] 書 | 當出宋齊之後하니 楊氏太素註 | 稱黃帝八十一難할새 亦引呂注라

[3] 呂注 | 隋時已亡이어늘 今何以又有存本이

179) 厘(리): 釐(리: 고치다, 다스리다)의 속자

180) 劃(리): 가르다, 쪼개다, 나누다, 저미다

181) 槁(호): 싸리나무, 물건이 추악하다, 화살촉을 만드는 나무이름

182) 闡(틈): 말이 문을 나오는 모양, 느닷없이 불쑥 들어가다

183) 藪(부): 빈지문, 덧문, 차양, 방석, 덮개, 덮다, 덮이다

184) 闡(암): 달힌 문, 어렵뜻하다, 어둡다

185) 劃(개): 베다, 큰 낫, 어울리다, 알맞다, 만지다, 문지르다, 어울리다

186) 繙(번): 되풀이 풀이하다, 너그럽다, 어지럽게 취하다, 어지럽다, 번역하다

178) 欄(란): 울타리, 난간, 경계

리오

- [4] 此指素問이라
 [5] 老子는 上卷道經이요 下卷德經이니 八十一章은 後人分析之誤이라 今當以類相從하야 歸復古本하니 若難經則隨手所纂이니 無須必取八十一之理由 | 皆誤說이라
 [6] 難經所學 | 多不得肯要하니 內經 | 既有明文하니 則所疑問 | 當在內經之外어늘 答辭易하고 不能直錄經文하니 此本은 蓋不知著作之體者所爲라
 [7] 据當難者 | 方問則不過二三十條라 若仿¹⁸⁷⁾其體爲之면 雖千百條이라도 可文成이라
 [8] 說誤이라
 [9] 太玄有圖象八十一이니 不能增이요 不能減이라
 [10] 可刪하니 可合하야 毫無所以必增하니 可分八十一之起例이라
 [11] 篇數 | 其僞 | 已見이라 大抵靈素與老子은 皆後人作書이니 必仿古書하야 分析篇章하니 原本은 不如此라
 [12] 老子三生萬物은 別有取義하니 備立官하야 以三輔一之法이라
 [13] 太玄은 必八十一所指니 四書는 皆無必八十一篇之理由라
 [14] 以雷公으로 先岐伯하니 尤誤이라
 [15] 事物紀原이라 ○ 其書 | 初出하니 不言撰人하고 冠以黃帝이라 故로 說者 | 歸之黃帝하고 直以爲岐黃所撰하니 與越人으로 無涉이라 又晉時에 此書 | 尙未出이라 世紀所云은 大抵與仲景으로 同이라 以素問八十一篇當之耳요 不必指此書當也라
 [16] 楊氏太素注同이라
 [17] 四는 當爲一之誤이라
 [18] 此는 仿六十四卦이라
 [19] 皆悞學太玄者라
 [20] 此書 | 學客難耳니 實在前이라
 [21] 說難客難在前이니 後人仿之하고 難經之名은 當在開元以後이라
 [22] 難은 與問同이라 初名問하고 後乃改爲難이라 公毅二傳은 皆當名問이라 如服問三年間에 凡問皆比此例라 有疑義乃問이라 故로 發問不易하니 何氏 | 解詰於諸問하니 皆詳其理由 | 是也라 素問所以得名者 | 由此이라 今於素問外에 又加八十一問하야 不應直錄經原文하야 以爲問答也라

- [23] 有疑相質問爲難이니 所說迂曲이라
 [24] 但以脈言으로 挂¹⁸⁸⁾一漏萬하니 醫之爲醫는 豈一脈所能盡耶아 特難經之作은 專在變易古經診法耳라
 [25] 文出難經하니 名脈書 | 喜引之라
 [26] 凡經文 | 言如此하니 皆非診脈法僞이라 脈經七表八裏九道 | 皆由此出이라
 [27] 既曰重作則不應直鈔原文하야 以爲問答하니 必於靈素二經外에 別有疑義하야 乃問하고 又別有心得하니 出經原文外者니 乃可爲答이라
 [28] 何又直以爲越人이리오
 [29] 冠以黃帝하야 名曰黃帝八十一問이라
 [30] 唐初에 猶無此稱이라
 [31] 直以爲岐伯雷公作이요 黃帝命則非此書矣이라
 [32] 楊氏 | 乃唐人은 何足依据이라
 [33] 僞指撰人이라
 [34] 軒轅時에 亦有扁鵲하니 此는 不知古書註譯 體例之言이요 更造爲此等僞說이니 最可恨이라
 [35] 素問은 卽仲景所云八十一難이니 此又別創之書名이라
 [36] 採英華撮精要은 可也나 但當如太素類經 | 以爲摘本이나 不可別立書名하야 自爲問答이니 如楊子運之擬¹⁸⁹⁾經이라
 [37] 除直抄誤引改易外에 有心得發明者하니 不過一寸關尺浮中沈而已이라
 [38] 既不得云類鈔요 又不可云著作이라
 [39] 改經背經하고 差錯脫誤하니 指不勝屈이라
 [40] 書出晉後하니 此本은 原製非秦越人이니 所知所說이 殊謬라
 [41] 勃序에 見文苑英華하니 其言迂怪可疑니 非眞筆라
 [42] 諸經傳授淵源은 自戰國로 至漢初하야 不過三百年耳라 尙無傳錄이어늘 此則上下近萬年하고 師授四十餘代하니 直爲魔語이라
 [43] 以之中葉으로 偶唐屬之越人하니 此 | 便於越人前數千年에 造作師傳授受하니 是有此書而靈素 | 亦無以自立矣라
 [44] 似此野言하니 何勞採入이라
 [45] 足見稱秦越人之誤이라

187) 仿(방): 본뜨다, 비슷하다, 해마다

188) 挂(괘): 달다, 길다, 그림족자, 이별하다
 189) 擬(의): 헤아리다, 비슷하다, 비기다, 비교하다

- [46] 鄭康成注 | 亦然이라
 [47] 其書 | 專爲改古診하야 但診兩手而作이
 니 後人이 託之越人者는 亦以其精於脈也라
 [48] 錢氏 | 作脈經拔에 云引扁鵲之文하야 並
 不見於難經하니 所引難經之文은 又不稱扁鵲이요
 其非扁鵲所著 | 無疑라
 [49] 專與內經으로 爲難이니 是爲巨謬라 其書
 之古不古는 尙屬餘事요 背經反古는 卽眞書亦不足
 取라
 [50] 此指素問은 非此書라
 [51] 所引扁鵲은 乃不見於難經이라
 [52] 甲乙은 不引難經이어늘 有하니 乃新校正
 所補이니 有明文可据라
 [53] 在叔和後하야 以專診兩手로 知之라
 [54] 使與內經으로 合이면 固無所不可니라 今
 改經刪亂經하야 使眞出漢人이면 亦當屏絶이라
 [55] 其文 | 與本傳으로 多迕¹⁹⁰⁾라
 [56] 新唐書 | 乃題秦越人이라
 [57] 此書 | 唐初俗醫 | 用之라 若千金外台는
 皆陋夷不屑道라 故로 不見引用이라 儒生 | 以靈素
 繁難하고 其書簡要라 故로 喜檢閱하니 張守節正義
 所引이 是也라
 [58] 唐草人이 引稱黃帝八十一問하고 不稱越
 人이라
 [59] 旣知宗經이면 則不違經刪經하고 自制法
 門하니 依坳影射矣라
 [60] 提要에 以靈樞爲僞하고 難經爲眞하니 實
 屬顛倒라
 [61] 此 | 爲杜撰하야 以專診兩手로 爲罪魁라
 [62] 從管脈經으로 以皆用靈素하니 無一與此
 書로 合者니 作僞之迹이 顯然하고 書又甚晚出하니
 嘗別有古經하니 資其摭拾이라
 [63] 其書 | 有經論說解之分하니 雖託之黃帝
 이나 而時代實非一時이라
 [64] 明以後醫 | 皆以靈樞爲經하고 素問爲傳
 하니 明文俱在어늘 自朱子로 疑靈樞하니 提要에
 誤采杭大宗의 謬說하야 誤以靈樞로 爲僞醫者하니
 無與文章之觀信然이라
 [65] 有經傳之分은 尤古奧라
 [66] 醫家之有難은 猶經學之有劉歆과 佛學中
 之有天魔이니 何者 | 詳玩其文하고 語氣稍弱하야
 全類東京하리오 與枚氏古文尙書로 同이라

- [67] 此襲用其語하니 尤以再詁로 爲要領이라
 [68] 西京은 當作西晉이니 書出叔和어늘 後遂
 牽混하니 叔和亦專診兩手이라
 [69] 當作書이니 不足稱經라
 [70] 故法에 自明經하니 此乃大亂이라
 [71] 竟以張王師로 用難經하니 是全無聞見矣
 이라 大抵張王二書는 後人 | 皆以難經說로 參亂之
 하고 不分眞僞하니 有此之談이라
 [72] 以婦人不便診喉足이라 故로 創爲此法하
 야 以求食耳라
 [73] 避過叔和하니 是知叔和眞脈經은 不專兩
 手하고 不以浮中沈分三部이라
 [74] 竟以高陽生로 比之하니 甚足이라
 [75] 當作變而易之니 以全非古法이라
 [76] 古診法은 難於施之婦女하야 求食하니 俗
 醫乃縮하야 諸附於兩手하니 以求售¹⁹¹⁾其術이어늘
 後人이 以爲便於行術故耳라 其術이 大行하야 以古
 法全晦하니 亦如經學中에 有劉歆博士하야 舊法遂
 節이라
 [77] 此는 又怪說이니 足知其僞이라
 [78] 誤認爲眞書라 故로 有此論이라
 [79] 胡氏巧言鼓惑하야 似是而非하니 最易誤
 人이라
 [80] 當作書라
 [81] 宜加當字라
 [82] 當作乃라
 [83] 二經原博采異聞이라 故로 以別爲名者 |
 五篇이요 有正有變하고 或隱或見하야 互變交通而
 後에 經義乃可明하고 又傳寫已久하니 烏焉成馬
 (언?)이리오 素問은 得北宋校正하야 猶可讀이요
 靈樞는 尤爲桀誤하니 以隋楊氏注本으로 較今本이
 면 可證也라 胡氏 | 偶因小라 故로 遂欲破壞籀籀
 하야 比擬¹⁹²⁾不倫하니 不足依據이라
 [84] 別是一家이니 自我作이라 故로 可也라
 何必虛引經名하야 自安已說이니 羊質虎皮하고 招
 謠巧驅하야 以爲此無賴之伎倆¹⁹³⁾乎리오
 [85] 胡氏 | 於經에 更淺不知하고 三傳은 於
 大端에 無一與經相迕하니 所謂不同 | 皆後人誤解
 如杜하야 力求與二傳하니 相反之類라
 [86] 徐氏 | 猶默守兩手診法하야 以爲經外別
 傳하니 無怪紹翁如此니 其實兩家 | 皆攻駁하니 皆

190) 迕(오): 만나다, 상봉하다, 거스르다, 틀리다

191) 售(수): 팔다, 팔리다, 유행하다

192) 擬(의): 의심하다, 본뜨다, 견주다

193) 倆(량): 재주, 들, 두 사람

回護라

[87] 竟以爲眞書이면 亦屬疏略이라

[88] 吳氏著書 | 喜言篇次하니 於經에 亦然이 어늘 何況此書리오

[89] 其書 | 因脈而作此하니 二十二條은 尤爲 妖妄이라 當付之丙丁하야 恐其惑世誣民이라 故로 駁而梓之하니 所謂宣布罪狀이라

[90] 此門은 爲次謬라

[91] 每門이 皆有誤說이나 不如論脈之甚이라

[92] 一人述陣은 終身不足踰¹⁹⁴⁾ 此網羅라

[93] 贈醫士章伯明序라

23. 中國醫學源流論·難經學

【原文】

黃坤載는 可謂醫家中에 言錯簡之一家也라 前世治難經者는 吳有太醫令 呂廣과 歙縣尉 楊玄操하고 宋有丁德用과 虞庶와 周輿權^[1]과 王宗正^[2]하고 金有紀天錫^[3]과 張元素하고 元有袁坤厚^[4]와 謝縉孫^[5]과 陳振孫^[6] 하니 皆僅散見於滑伯仁難經本義中^[7]이라 伯仁而後에 注釋者 | 亦有數家^[8]나 皆因襲舊文하야 無所心得하고 等諸自鄒¹⁹⁵⁾라 今言難經은 當以滑氏書로 爲古義之淵藪¹⁹⁶⁾矣라 坤載 | 著難經懸解하야 始亦謂舊本有譌¹⁹⁷⁾하야 多所更定이라하니 仍其治內經之故智也라 其後에 徐靈胎 | 著難經經釋하야 又援內經以攻內經하니 其實內難이 同爲專家相傳之書하야 未必內經果出岐黃하야 爲天經地義而不可變이라 徐氏 | 必是彼而非此하니 亦未免依傍門戶之見也라^[9]

【解釋】

黃坤載는 醫家中에 錯簡을 말한 一家라고 말할 수 있다. 前世에 《難經》을 다스린(專攻한) 자는 吳나라에 太醫令 呂廣과 歙縣尉 楊玄操이 있고 宋代에 丁德用과 虞庶와 周輿權과 王宗正이 있고 金代에 紀天錫과 張元素이 있고 元에 袁坤厚과 謝縉孫과 陳振孫이 있으니 모두 겨우 滑伯仁의 《難經本義》中에 흩어져 보인다. 滑伯仁 以後에 注釋한 자가 또한 여러 명이지만 모두 옛글을 因襲하여 心得한 바가 없고 鄒나라로부터 같다(보잘 것이 없다). 지금에 《難經》은 마땅히 滑氏의 글을 古義의 藪과 그옥한 것으로 삼는다고 말한다. 黃坤載가 《難經懸解》를 지어 비로소 또한 舊本에

잘못이 있어 고쳐서 定한 것이 많다고 말하니 그는 《內經》을 다스린(專攻한) 옛지혜로 인한 까닭이다. 그 後에 徐靈胎가 《難經經釋》을 지어서 또한 《內經》을 끌어다가 《內經》을 攻駁하니 그 실제로 《內經》과 《難經》이 함께 專家가 相傳한 책이어서 반드시 《內經》이 과연 岐伯과 黃帝로부터 나와서 天經과 地義로 不可變인 것은 아니다. 徐氏가 반드시 저것을 옳다고 하고 이것을 그르다고 하니 또한 門戶의 意見에 의지하고 기대는데 免하지 못하였다.

【注】

[1] 字 | 仲立이라

[2] 字 | 誠叔이라

[3] 字 | 齊仲이라

[4] 字 | 淳甫라

[5] 字 | 堅白이라

[6] 字 | 廷芳이라

[7] 周學海 | 又有增輯本하니 仍以滑氏書爲主 하니 名增輯難經本義라

[8] 爲張世賢之圖注難經等이라

[9] 又有丁錦者하니 字 | 履中이요 號 | 適廬 老人이요 乾隆時에 松江人이라 嘗著古文難經闡注 二卷이라 自序에 謂游於武昌하야 客參朱公所하야 得讀古本難經하야 以校今本誤者 | 有三十餘條할새 因而爲之闡注云云이라하니 丁氏所見之本 豈能古於 滑伯仁이리니 則亦明人之意爲竄亂之耳라

IV. 結 論

이상에서 《難經》의 歷代注釋의 序文, 《難經經釋補正》에 기재된 難經解題 등의 글과 《中國醫學源流論·難經學》등의 번역을 爲主로 하고 아울러 그 內容을 몇가지로 要約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難經》은 《內經》의 精華를 뽑아서 精要를 간추려서 만든 것으로, 혹은 그 말이 어렵고 深遠하여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을 밝혀 놓은 것이라고 하거나, 혹은 《內經》에서 알기 어려운 것으로 질문을 삼아서 해석한 것이므로 《內經》을 연구하는 다리 역할을 하였고 獨取寸口

194) 踰(유): 넘다, 뛰어넘다, 통과하다, 지나가다

195) 鄒(회): 나라이름

196) 藪(수): 늪, 덩굴, 구석진 깊숙한 곳

197) 譌(와): 거짓말, 바뀌다, 변화하다

와 命門 學說 등을 發明함으로써 醫學의 새로운 領域을 개척하였다.

2. 《難經》과 儒書와의 비교로는 儒書는 六經으로 으뜸을 삼고 《大學》 《中庸》 《論語》 《孟子》가 六經의 뜻을 辨難하여 一貫한 것처럼 秦越人이 지은 《難經》은 《素問》, 《內經》의 뜻을 發明하고 秦越人이 그것을 注疏한 것이다. 또한 《難經》을 佛書의 《楞伽經》에 비유하여 句節마다 理致이고 글자마다 法이라고도 하였다.

3. 《難經》의 저자는 秦越人으로 인정하는 이가 대부분이었으나, 《漢書藝文志》에는 《扁鵲內外經》이라고만 되어 있고, 《隋書經籍志》에는 《黃帝八十一難》이라는 제목만 있다가, 《舊唐志》에 이르러서야 楊玄操의 序文에 의하여 秦越人이 지었다고 하였으니 믿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三國時代에 呂博望의 注釋書가 있고 張機의 《傷寒論》의 내용이 《難經》에 있으므로, 後漢의 良醫가 지은 것이거나 혹은 《難經》의 글과 이치를 살펴보면 戰國과 秦漢時代에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하였다.

4. 《難經》의 理論은 獨取寸口하여 胃氣와 腎을 강조하고, 寸關尺 浮中沈을 兼하여 三部九候를 말하며, 命門이 右腎이라고 하여 右腎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이는 《內經》과 附合하지 않지만 대체로 研究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5. 《難經》의 歷代 注釋家가 수십여명이지만 臆測이 많아서 하나로 통일된 의견이 없으나, 특히 주목할 것은 滑壽가 여러 注釋家의 장점을 취하고 條目별로 정리하고 그림을 그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張世賢의 《圖注》는 篇마다 그림이 있으나 그림이 없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까지 억지로 그리고 글만 쫓아서 解釋하였고, 《難經集注》는 당시에 各 注釋書가 별도로 行해져 오던 것을 王九思가 모아서 보기에 편하게 하였고, 《難經懸解》는 錯簡說을 주장한 대표적인 것이고, 《難經經釋》은 《內經》과 《難經》을 서로 증명하여 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6. 序文을 짓게 된 동기는 대부분 《難經》과 그 歷代 注釋本이 세상에 널리 研究됨으로써 人類를 疾病으로 救濟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難經》의 歷代 注釋 序文과 기타의 글을 研究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앞으로 各 注釋家別로 《難經》의 歷代 注釋家의 生涯와 注釋書의 특징과 版本의 考察 등에 대해서도 整理 研究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1.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1966.
2.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홍콩, 商務印書館, 1987.
3. 高大民族文化研究所中國語大辭典編輯室, 中韓辭典, 서울, 1990.
4. 凌輝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1.
5.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6.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85.
7. 丹波元胤, 難經疏證, 서울, 一中社, 1991.
8.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9. 滑壽, 難經本義,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10.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孚書局, 1976.
11.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12. 黃元御, 難經懸解,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3. 丁錦, 古本難經圖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14.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15.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16.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17. 李雲, 中醫人名辭典,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88.
18.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19. 嚴世藝,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20. 熊宗立, 勿聽子八十一難經,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3.
21. 謝利恒, 中國醫學源流論, 上海, 澄齋醫社, 1935.
22.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1989.